전략연구 2017-17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박철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소진
충남연구원 연구원

신선하
충남연구원 연구원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연 구 요 약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삶의 질 개선과 복지・평생교육 제공 측면에서 증가하며 중요성이 높아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중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지만, 충청남도는 아직 생활문화 관련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향을 정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방안으로서 충남의 생활문화 정책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내용 구성과 추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첫째 생활문화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과 사례조사, 둘째 충남 생활문화 정책사업 현황 및 추진 실태조사・분석, 셋째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등이다.

생활문화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생활문화 개념은 장르·영역, 활동·유형, 주체·대상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법상으로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의 개념을 “지역의 주민이 생활 속에서 자발적 또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활동”이라고 정의하고 활동목적과 내용에 있어 광의적으로 접근하였다. 광의적으로 접근한 것은 생활문화 활동의 목적이 단순히 근본적인 문화적 욕구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경제적 욕구 등 활동의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생활문화 정책과 활동은 각각의 환경과 여건(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가치와 역할에 대한 기대, 정치 체제 등)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함을 전제로 사례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외사례에서는 첫째, (일본, 독일)아마추어 예술인과 전문 예술인들과의 협력관계를 잘 형성하여 활성화하고 있었다. 둘째, (영국)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방식이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지원, 단체들의 지원보다는 단체들 간의 연계와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제공, 단체들과 지역 공동체의 연계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1]. 셋째, (영국)예술로서의 본질적인 활동뿐 아니라, 주민 복지와 삶의 질 증대, 교양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 지원을

1) 생활문화 활동의 자율성, 독립성,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적 기금이 생활예술에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지원으로써 개개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호회 간, 동호회와 공동체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 활동이 예술 진흥 차원을 넘어 문화 자본의 형성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데 주목하고 있다[2]. 국내사례에서는 첫째, 광역도와 시의 공간적 범위와 행정위계에 따라 생활문화정책에 차이가 있었다[3]. 둘째, 생활문화 정책은 예술적 관점과 함께 복지적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4]. 셋째,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역 사회의 여건에 연계된 생활문화 사업기획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생활문화 실태조사는 시설(공간)과 프로그램, 주민 및 운영자에 대한 의식조사로 나누어서 추진하였다. 생활문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조사결과, 법상 약714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생활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시설유형으로는 총9개로 ①문화원, ②주민자치센터, ③생활문화센터, ④(청소년)문화의집, ⑤미술관, ⑥(공공, 작은)도서관, ⑦평생학습센터, ⑧청소년 수련관, ⑨문화재단 등이었다.

시설별 현황실태를 정리하면, 대표적인 시설로서 문예회관・공연장은 전문공연시설로 공연・전시 문화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며, 최근 일부 생활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시시설로는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 박물관의 경우 박물 보존・전시 위주로 생활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미술관의 경우는 미술 관람객 확보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미술교실, 문화학교, 음악회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과 통합운영을 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경우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충남의 서비스 수준은 전국대비 낮은 상태이다.

문화원의 경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정 시설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공주, 서산,

---

2) 복지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선진국에서 보건을 넘어 예술과 문화적 활동은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예술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와 연계된 공동체 유지와 형성에 있어서의 역능을 알고 있기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지원을 하고 있다.

3) 광역도의 경우 시・군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과의 연계체계를 확보하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체육회의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군별 문화코디네이터(기획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청북도는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이 체계를 통해 플랫폼 강사, 문화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기획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였다.

4) 전라북도, 충청북도, 성남시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복지와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생활문화를 문화복지 관점에서 추진하였고, 성남시의 경우 지역 간 정주문화환경의 격차, 사회적인 갈등 해소 등에 대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문화의 형성과 발전의 관점에서 생활예술 정책을 추진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부여, 홍성, 예산 문화원은 생활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전통과 역사, 대상별로는 노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총 5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생활문화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집은 7개소가 있고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노후화 개선,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 관점에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으나, 서비스 변화와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동·읍 소재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자치센터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충남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 간의 정보교류 연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만족도,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수준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약-1〉 생활문화시설별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추진 실태

구분		시설현황 (개소)	생활문화 정책 및 사업추진현황
총계		714	
복합문화	문예회관	18	·생활문화 활동에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부대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활발하지 못함
공연시설	공연장	27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최근 부분적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소공연장 규모가 대부분 100㎡ 이상으로 생활문화 활동에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전시시설	박물관	46	·대부분의 시설이 박물 보존·전시 위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미술관 (전시관)	**9**	·찾아가는 미술교실, 문화학교, 음악회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제공
도서관	**공공도서관**	**58**	·평생학습센터와 연계된 생활문화프로그램 제공
	작은도서관	**282**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문화원		**16**	·주제별, 대상별로 다양한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단		**4**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생활문화센터		**5**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문화의집		**7**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10**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관		**11**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영상 문화 시설	영상미디어센터	14	·조성 초기(서천)로서 생활문화 프로그램 도입 시도
	작은영화관	5	·영화관람 중심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평생학습센터		**4**	·도서관과 통합운영을 통해 생활문화 프로그램 제공
주민자치센터		**199**	·생활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의식조사는 충남 생활문화 정책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충남도민 및 관련 운영자를 대상, ①생활문화 인식, 활동시설, 동기 및 참여방식, ②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③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④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생활문화 인식, 활동시설, 동기 및 참여방식

주민이 생각하는 생활문화 활동은 문화예술관람(50.7%), 문화강좌 참여(21.6%)가 대부분이어서 주체성보다는 참여하는 자체를 생활문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로 이용하는 생활문화시설로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①문화원, ②생활문화센터, ③문예회관(공연장), ④평생학습센터 순이었고, 면지역 주민들은 ①문화원, ②주민자치센터, ③생활문화센터, ④마을회관 순으로 응답하여, 충남지역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원을 자주 이용하지만, 도시지역은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농촌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 활동계기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개인적 관심(34.3%)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면지역 주민들은 친구의 권유・소개(31.6%)가 가장 많았다. 다음 순위로 동・읍지역 주민 15.7%, 면지역 주민 20.0%가 가족의 권유・소개로 응답하였다. 반면, 기관 또는 동호회의 소개, 공공기관 또는 방송의 홍보, 인터넷・SNS를 통해 참여하게 된 계기는 매우 적게 나타나 공적인 홍보에 의한 것이 아닌 사적인 권유・소개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활문화 활동의 주된 목적은 ①여가시간 보내기 및 활용, ②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창작(표현)활동 참여, ③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증진 순으로 나타나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기능 외에 여가문화, 정신건강 등 문화복지적 목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다. 활동 방식은 동・읍지역 주민, 면지역 주민 모두 ①문화예술행사(이벤트) 관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②강좌(강의 프로그램) 참여였으며, ③동호회 활동은 11.2%, ④문화예술행사(이벤트)

작품공연 및 전시는 4.8%로 나타나 생활문화 활동의 단계가 초기단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문화 활동 동반자로서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친구(연인 포함, 25.7%)가 가장 많은 반면, 면지역 주민들은 동네, 마을 주민(13.2%)으로 차이를 보였다. 생활문화 활동 애로사항으로서는 전체적으로는 ① '비용이 많이든다' 가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② '생활문화 정보가 부족하다' 16.1%, ③ '생활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하다' 15.1%, ④ '시설·장비 등이 불편하다'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역별로 면지역 주민들은 '교통(접근)이 불편하다' 를 가장 불편한 항목으로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생활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응답자 모두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생활문화시설' 의 경우 42.8%(133명)가 '만족' 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생활문화프로그램' 의 경우도 '만족' 이 43.4%(13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우선순위에서 동·읍지역 주민들은 영화, 연극, 국악전통예술 순 이었지만, 면지역 주민들은 국악전통예술, 연극, 영화 등 순위에 차이를 보였다. 향후 활동하고자 하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으로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연극, 영화, 음악/무용 순으로 응답하였고, 면지역 주민들은 국악전통예술관람, 요가 참여, 국악전통예술 참여로 나타나, 도시지역의 주민들은 예술 쪽에, 농촌지역 주민들은 전통 관람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서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①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②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고, 면지역 주민들은 ①생활문화 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②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순으로 응답하여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이 현재 문화공간과 시설에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개선시급성이 높은 항목으로 도시와 농촌지역 공통적으로 '공간보다는 시설의 개선',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을 응답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생활문화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정서·심리적 효과에 대해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응답자들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 증진' 효과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일상생활의 활력(활기)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나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약-2〉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합계	빈도(명)	628	268	896
	비율(%)	100.0	100.0	100.0
효과가 없음	빈도(명)	-	-	-
	비율(%)	-	-	-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빈도(명)	117	37	154
	비율(%)	18.6	13.8	17.2
삶의 즐거움 증진	빈도(명)	**148**	**60**	**208**
	비율(%)	**23.6**	**22.4**	**23.2**
일상생활의 활력(활기) 증가	빈도(명)	**127**	55	182
	비율(%)	**20.2**	20.5	20.3
삶에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빈도(명)	122	**63**	**185**
	비율(%)	19.4	**23.5**	**20.6**
자존감 증대	빈도(명)	90	41	131
	비율(%)	14.3	15.3	14.6
이해·포용력 증대	빈도(명)	24	12	36
	비율(%)	3.8	4.5	4.0

문화·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관람, 체험, 교류 증대'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지만, 다음으로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문화교류·소통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생활문화 활동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건강한 여가시간의 활용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주민은 생활문화 활동 수요가 앞으로 증가(88.4%)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생활문화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주민(4.07점), 운영자(4.03점) 모두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운영자(4.28점)들이 주민(3.95점)보다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중요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생활문화시설과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민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4.18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의 경우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4.25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3〉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5점 척도)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주민 평균(점)	운영자 평균(점)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	3.98
생활문화시설과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4.18**	**4.08**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4.05	3.90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4.13**	**4.23**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4.11**	**4.25**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4.00	3.98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3.96	3.90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4.14**	**4.18**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3.95	3.98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3.86	3.98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3.97	4.05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3.93	3.7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4.07**	**4.15**

평가는 5점 척도 :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

충청남도 생활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과 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정책 기본방향은 첫째, 여가문화, 복지, 공동체 측면에서 생활문화 진흥 정책 추진해야 하며 둘째, 현장밀착형 생활문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해야 하고

셋째,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광역시스템 구축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4〉 충남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목표, 전략 및 사업

정책과제와 사업으로서 ◥ 첫째,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조성과 매개인력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①충남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조성, ②충남 생활문화 매개인력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1) 충남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조성

충남도민은 현재 생활문화공간과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속적인 생활문화공간의 확충과 시설개선, 장비지원 등의 필요성을 높게 제기하고 있다. 생활문화 활동의 확산과 지속성을 생각할 때 충청남도와 시·군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조성은 첫째, 현재 생활문화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과 공간, 생활문화 활동의 적합성 및 편의성에 대해 일차적인 진단을 통해 기존 시설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면지역에서 생활문화 활동은 주로 ①주민자치센터, ②문화원, ③노인복지회관, ④마을회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동·읍지역에서는 ①문화원, ②생활문화센터, ③문예회관/공연장, ④주민자치센터, ⑤평생학습센터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문화의집을 생활문화센터화하여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의집, 문화원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의집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로 활성화 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충남 생활문화 매개인력 지원

주민이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촉진자, 매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활문화예술, 기술과 교류에 재미있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지원하는 강사, 지원자(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활동의 참여와 지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개인력(강사, 기획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개인력 발굴과 지원은 충남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출향 예술인 또는 생활예술인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중 희망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특히 충남도 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예술관련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충남지역 내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및 지원사업 추진도 필요하다. 또한, 생활문화강사와 함께 생활문화기획자(코디네이터)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화코디네이터는 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발견하여 이를 창조적, 생산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 지원' 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

둘째, 생활문화 활동의 홍보와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①생활문화와 활동에 대한 정책 홍보, ② 충남 생활문화 활동 및 정책사업에 대한 브랜드 구축을 제안한다.

(1) 생활문화와 활동에 대한 정책 홍보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과 정책 중요도에서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홍보'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생활문화 활동 시작 전,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 계기는 동・읍지역의 경우 ①개인적인 관심, ②친구의 권유・소개, ③가족의 권유・소개가 전체의 79.2%, 면지역의 경우 ①친구의 권유・소개, ②개인적인 관심, ③가족의 권유・소개가 전체의 89.0%를 차지하여,

개인의 관심 또는 소개로 시작되었고, 정책 홍보 등을 통한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활동 시작 전, 활동 중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동호회 등에 충남도와 시·군, 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소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확산과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매체,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충남 생활문화 활동 및 정책사업에 대한 브랜드 구축

주민참여의 정보제공과 홍보를 위해서는 대상이 명확하고 콘텐츠(내용, 실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충남도와 시·군, 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 할지라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충남 만의 통합정책브랜드를 구축하여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충남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①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 구축, ②다양한 정보제공, 성과의 공유와 확산시책이 필요하다.

(1)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동안 충청남도의 생활문화 정책은 생활교류(문화원), 생활교류(농촌마을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생활기술(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생활문화 시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도민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와 충남문화재단 지원 하에 2017년도부터 시작한 동아리 지원 사업이다.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서 예산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한정적인 재원과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네트워크화하고 협력을 통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의 명칭을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라 하고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하에 문화정책과에서 주도하거나 문화정책과 내에 생활문화정책팀을 두어 문화예술 정책을 전문가(문화예술인)와 생활예술인(일반주민),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약-4〉 충남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

구분	내용	비고
명칭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	
참여기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자치행정과, 농촌마을지원과	
	충남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시·군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예회관 담당자	
업무	·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 정보교환 및 공유 ·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도내 우수 프로그램, 선진사례 등 ·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추진 및 평가 -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중복 방지 -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협력·지원	
활동근거	·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조례'에 근거	

(2) 다양한 정보제공, 성과의 공유와 확산

충청남도에서 생활문화를 정책적 영역으로서 접근한 것은 2017년부터지만, 금산 생활문화센터 '어깨동무'(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운영분야 최우수센터), 3농혁신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생활문화를 농촌마을만들기에 접목한 태안군 만대마을(대통령상, 금상), 당진시 백석올미마을(동산, 장관상) 등의 우수사례가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운영의 지속성 확보, 각각의 문화시설에서는 보다 많은 방문객 유치와 사업성과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고자 하지만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어려운 상태이다. 충청남도는 충남도 내외의 우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지원 및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 차원의 생활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내 자료실, 블로그 등이 있지만, 충청남도 내 기관들의 사업계획과 추진현황, 추진성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생활문화 네트워크 홈페이지와 자료실을 구축하고 블로그, SNS, 통합 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성과의 공유와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정) 기반을 구축한다.

➢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도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충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나타낼 뿐 아니라, 공적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기반이 된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일회적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는 현재 23개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조례 유형은 ①생활문화(예술) 진흥, ②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③지역문화진흥 조례와 함께 제정하는 등 3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 다섯째,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 및 동아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①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과 모델사업의 확산, ② 생활문화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과 단계별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1)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과 모델사업의 확산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주민 또는 특정 동호회가 아닌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와 평가, 지원 후 성과 분석을 통한 우수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 차원에서 특화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창의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생각하게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청남도형 지역생활문화 특화 지원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통해 사업결과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활력을 부여하고 자신감 형성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지역 특화에 기여했는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사업의 선정과 평가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 (2) 생활문화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과 단계별 발전방안 마련

생활문화 활성화의 중요한 척도로 동아리 활동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생활문화 활동에 자발적 참여, 교류 증가의 결과적 형태가 동아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의 생활문화 동아리는 대부분 배움, 친목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문화・사회・경제적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친목에서, 숙련, 공헌의 단계로 발전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동아리 또는 클럽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단계적인 육성 로드맵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기대효과 ····· 3
2. 연구범위 및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5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 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제2장 관련이론 · 정책추진 및 사례 ····· 12

1. 생활문화 개념 및 정책지원 이론 ····· 12
   1) 생활문화 개념 및 변화 ····· 12
   2) 생활문화정책의 지원 이론 ····· 18
2. 중앙정부의 생활문화 정책동향 ····· 20
   1) 생활문화 정책의 흐름 ····· 20
   2)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유형 ····· 22
   3) 생활문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 ····· 22
3. 사례조사 ····· 34
   1) 국외사례 ····· 4
   2) 국내사례 ····· 38
   3) 시사점 ····· 46

제3장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사업추진 현황 및 실태 ····· 48

1. 조사 · 분석의 개요 ····· 48
   1) 조사개요 ····· 48
   2) 분석의 틀 ····· 49

2. 충남 생활문화 정책사업추진 현황 및 실태 ····· 50
1) 충청남도 생활문화 관련 시설 및 사업추진현황 ····· 50
2) 시설운형 현황 종합 ····· 83
3. 충남 생활문화 활동 및 정책요구도 조사 ····· 86
1) 의식 조사 개요 ····· 86
2) 충남 생활문화 진흥과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 의식 분석 ····· 88
3) 충남 생활문화 진흥과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운영자·전문가 의식 분석 ····· 110
4) 충남 생활문화 진흥과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과 운영자 간의 의식 비교 분석 ····· 121
5) 설문의식조사 종합 ····· 127

제4장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 131

1. 기본방향 ····· 131
1) 정책기본 방향 ····· 131
2) 목표와 추진전략 ····· 133
2. 정책과제 ····· 135
1)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조성과 매개인력 지원 ····· 135
2) 생활문화 활동의 홍보와 공유 ····· 136
3) 충남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 구축 ····· 138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140
5)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 및 동아리 육성 ····· 141

참고문헌 ····· 143

부록 1. 설문조사지 - 주민 ····· 145

부록 2. 설문조사지 - 운영자 및 전문가 ····· 154

표 목 차

<표 1-1> 생활문화의 두 흐름 ····· 2
<표 1-2>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0
<표 2-1> 생활문화 개념의 변화단계 ····· 14
<표 2-2>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생활문화 관련내용 ····· 15
<표 2-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상의 생활문화시설 관련내용 ····· 16
<표 2-4>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내용 ····· 16
<표 2-5> 박근혜 정부의 생활문화 관련 정책 ····· 21
<표 2-6> 생활문화센터 유형 ····· 23
<표 2-7> 생활문화센터 지역별 조성 현황 ····· 24
<표 2-8>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시시콜콜'사업 지원내용 ····· 27
<표 2-9>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시시콜콜'사업 지원내용 ····· 27
<표 2-10>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 ····· 28
<표 2-11> 2016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 29
<표 2-12> 2009-2016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지원현황 ····· 29
<표 2-13> 2016 지역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추진 현황 ····· 30
<표 2-14> 문화이모작 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 32
<표 2-15> 전북문화기획자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복지전문인력의 차이 ····· 41
<표 3-1>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사업추진 현황 분석의 틀 ····· 49
<표 3-2> 충남 생활문화시설 현황(2016) ····· 50
<표 3-3> 충남 문예회관 현황(2016) ····· 51
<표 3-4> 충남 공연시설 현황(2016) ····· 52
<표 3-5> 충남 공연시설별 규모(2016) ····· 53
<표 3-6> 충남 박물관 현황(2016) ····· 54

<표 3-7> 충남 국·공립박물관 현황(계속) ····· 55
<표 3-8> 충남 미술관/전시관 현황(2016) ····· 56
<표 3-9> 충남 미술관/전시관 운영 프로그램 현황(2016) ····· 56
<표 3-10> 충남 시·군별 도서관 수(2016) ····· 57
<표 3-11> 충남 공공도서관 현황(2016) ····· 58
<표 3-12> 충남 시·군별 작은도서관 수(2016) ····· 60
<표 3-13> 충남 시·군별 작은도서관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 61
<표 3-14> 충남 문화원 현황 ····· 62
<표 3-15> 충남 문화원 프로그램현황(2016) ····· 63
<표 3-16> 충남 지역 문화재단 현황 ····· 65
<표 3-17> 충남 생활문화센터 현황(2016) ····· 66
<표 3-18> 충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현황(2016) ····· 66
<표 3-19> 충남 문화의집 현황(2016) ····· 67
<표 3-20> 충남 문화의집 상설 프로그램현황(2016) ····· 67
<표 3-21> 충남 문화의집 상설프로그램 외 프로그램현황(2016) ····· 68
<표 3-22> 충남 문화의집 동아리 현황(2016) ····· 69
<표 3-23> 충남 청소년 문화의집 현황(2016) ····· 70
<표 3-24> 충남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현황(2016) ····· 71
<표 3-25> 충남 청소년 수련관 현황(2016) ····· 72
<표 3-26> 충남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현황(2016) ····· 73
<표 3-27> 충남 영상미디어센터 현황(2016) ····· 74
<표 3-28> 충남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현황(2016) ····· 74
<표 3-29>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주요사업 ····· 75
<표 3-30> 2015년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주요사업 내용 ····· 75
<표 3-31> 충남 작은영화관 현황(2016) ····· 77
<표 3-32> 충남 평생학습관 현황(2016) ····· 77

<표 3-33> 충남 평생학습관 프로그램현황 ····· 78
<표 3-34> 충남 주민자치센터 현황(2016) ····· 80
<표 3-35> 시·군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현황(2016) ····· 80
<표 3-36> 충남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 현황(2016) ····· 81
<표 3-37> 충남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 프로그램현황(2016) ····· 81
<표 3-38> 주민자치사업 예산 현황(2017) ····· 83
<표 3-39> 생활문화시설별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추진 실태 ····· 85
<표 3-40> 의식조사 개요 ····· 86
<표 3-41> 응답자 성비 ····· 88
<표 3-42> 응답자 연령 ····· 88
<표 3-43> 응답자 직업 ····· 89
<표 3-44> 응답자 거주지 ····· 89
<표 3-45> 응답자의 동·읍·면별 거주지역 ····· 90
<표 3-46> 응답자 거주기간 ····· 90
<표 3-47> 응답자 개인 소득 ····· 90
<표 3-48> 응답자 가구 소득 ····· 91
<표 3-49>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 91
<표 3-50> 이용빈도가 높은 생활문화시설 우선순위 ····· 92
<표 3-51> 생활문화 활동 계기(또는 매체) ····· 93
<표 3-52> 생활문화 활동의 주된 목적(목표) ····· 94
<표 3-53> 생활문화 활동 방식 ····· 94
<표 3-54> 생활문화 활동 동반자 ····· 95
<표 3-55> 생활문화 활동 애로사항 ····· 96
<표 3-56>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시간 ····· 96
<표 3-57>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거리 ····· 97
<표 3-58> 생활문화시설 적정 시간 - 오전 ····· 97

<표 3-59> 생활문화시설 적정 시간 - 오후 ····· 98
<표 3-60> 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7점 척도) ····· 99
<표 3-61>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우선순위 ····· 99
<표 3-62> 향후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우선순위 ····· 100
<표 3-63>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동읍·면 비교) ····· 101
<표 3-64>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102
<표 3-65>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103
<표 3-66>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 104
<표 3-67>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 104
<표 3-68> 생활문화 활동 지속 의향 ····· 105
<표 3-69> 생활문화 활동 수요 변화에 대한 인식 ····· 106
<표 3-70>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 ····· 106
<표 3-7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 - 충청남도 ····· 107
<표 3-7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 - 시·군 ····· 107
<표 3-73> 향후 도민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남도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 ····· 108
<표 3-74>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동읍·면지역별) ····· 108
<표 3-75>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 109
<표 3-76> 응답자 연령 및 성비 ····· 110
<표 3-77> 응답자 거주지 ····· 110
<표 3-78> 응답자의 동·읍·면별 거주지역 ····· 111
<표 3-79> 응답자 소속기관 ····· 111
<표 3-80> 응답자 종사기간 ····· 112
<표 3-81> 주민의 생활문화 관심과 수요 ····· 112
<표 3-82> 향후 주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 ····· 112
<표 3-83>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한 충족도 ····· 113
<표 3-84> 생활문화정책과 기존 문화복지 정책의 차별성 ····· 114

<표 3-85>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 시간 및 거리 ····· 115
<표 3-86> 생활문화시설 이용 시간 ····· 115
<표 3-87>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116
<표 3-88>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 117
<표 3-89>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 118
<표 3-90>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5점 척도, 기준3점) ····· 118
<표 3-9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 ····· 119
<표 3-92>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5점 척도, 기준3점) ····· 119
<표 3-93>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120
<표 3-94>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시간에 대한 인식 ····· 121
<표 3-95>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거리에 대한 인식 ····· 121
<표 3-96> 생활문화시설 이용 시간 ····· 122
<표 3-97>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122
<표 3-98>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 123
<표 3-99>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 124
<표 3-100>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5점 척도, 3점 기준) ····· 124
<표 3-10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7점 척도, 4점 기준) ····· 125
<표 3-102> 향후 도민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남도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 ····· 125
<표 3-103>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 126
<표 3-104>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 129
<표 3-105>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 130
<표 4-1> 충남 생활문화 매개자(강사, 기획자) 발굴 및 양성 ····· 136
<표 4-2> 충남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 ····· 138
<표 4-3>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40
<표 4-4> 충남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과 모델사업(예시) ····· 142

그 림 목 차

<그림 2-1> 문화이모작 사업과정 ····· 31

<그림 2-2> 전북 생활문화 정책 비전과 목표 ····· 38

<그림 2-3> 권역별(시·군-읍면동-마을), 영역(기능)별 문화복지시설 구축구상안 ····· 39

<그림 2-4> 전북 생활문화동호회네트워크 조직도(12년 설립, 13년 본격 활동) ····· 40

<그림 2-5> 2017녀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행사 및 프로그램 ····· 45

<그림 4-1>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 133

<그림 4-2>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정책추진전략 ····· 134

<그림 4-3> 정책브랜드 유형(좌)과 성남 생활문화 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례(우) ····· 137

<그림 4-4>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국 VA Site map ····· 139

<그림 4-5> 충청남도 동호회/클럽 육성 단계 ····· 142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삶의 질 개선과 복지·교육 차원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문화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강조되었고, 문화복지에서도 생애주기 등 맞춤형 복지가 중심적 정책으로 대두[5]되며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적 삶"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로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제안하며, 생활문화 정책 추진목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로 하고 실천과제로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국민의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5) 정광렬, 2015,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7.

(2) '문화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20세기 '문화민주화'에서 21세기 '문화민주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이 문화를 생산, 소비, 유통하고 공유하게 되었다. 20세기에 주민들은 문화예술 작품의 관람을 통해 자각하였지만, 21세기에 주민들은 스스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통해 자기를 표출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자기를 자각하며, 전업작가나 예술가가 아니지만 생활문화예술인으로서 작품을 생산하며 소비하고 있다.

〈표 1-1〉 생활문화의 두 흐름

구분	「문화의 민주화」로서 생활문화	「문화민주주의」로서 생활문화
시기	20세기	21세기
중점방향	일상생활 내 문화관람 촉진	일상생활 내에서 문화활동 촉진
주민위치	관람자	생산자이자 소비자
예술형태	전시장, 공연장에서 벗어난 일상공간에서 문화활동	전업작가나 예술가가 아닌 주민의 문화활동
추진전략	생활권 문화시설 건립 찾아가는 문화활동	주민문화시설 지원 주민주도 문화활동

(3) 생활문화 정책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향이 정립되어 있지 못함

생활문화 진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예술 정체성 정립과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차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남도와 시·군에서는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상태이다.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활발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있지만, 아직도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시·군도 상당수이며, 충청남도에서도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실정이다. 또한, 충남도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생활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며, 정책 차원에서도 명확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 방향과 통합적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충남의 지역문화 진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4) 충청남도와 시·군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생활문화와 활동은 지역주민의 여가, 복지, 삶의 만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충청남도와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창의적 시책추진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에 연구배경이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방안으로서 충남의 생활문화 정책추진 실태조사를 통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충청남도 및 시·군에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 실태조사와 생활문화정책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충청남도 생활문화정책의 과제를 도출하여, 셋째,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삶의 질 개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하는데 있다.

3)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1) 충남 도민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생활문화 정책의 중요성 제고와 지속성 마련

충남지역에 생활문화 확산이 도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제고시킴으로써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성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생활문화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이 포괄적이고 넓으며 한편으로는 사적인 부분이 있어 공적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연구를 통한 정책 방안 제시는 공적인 정책접근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지속성을 제공할 것이다.

(2) 충남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활문화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생활문화 전달체계 개선 및 사업추진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생활문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충남도와 지자체에 적합한 생활문화 정책 제안은 사업추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기대된다.

(3) 생활문화 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마련

생활문화 정책의 확산을 통하여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활문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문화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충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시간적으로는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기준년도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생활문화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과 사례조사, 둘째 충남 생활문화 정책사업 현황 및 추진 실태조사/문제점 분석, 셋째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등이다.

2) 연구방법

연구 내용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고찰 - 생활문화의 개념과 정책변화

생활문화의 개념과 정책변화, 사례조사는 일차적으로 문헌조사를 추진했다. 생활문화 관련 연구, 저서, 정부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사례조사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국내사례는 일차적으로 문헌을 통해 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검토한 후 생활문화 관련단체인 (재)생활문화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의집 협회, 문화원연합회, 생활문화네트워크 등에서 추진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문헌 검토 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워크숍, 인터뷰, 현장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외사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시간적, 비용적 한계상 선행연구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 충남 생활문화 정책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

충청남도 및 시・군자치단체, 생활문화관련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추진실태는 문헌, 인터넷 홈페이지, 기관에서 제공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및 시・군 문화 관련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조사하였고, 4개 시・군 생활문화센터(부여군 부여, 보령시 웅천읍, 서산시 서산, 아산시 온양문화원, 금산군 금산어깨동무), 충남문화재단 및 시・군문화재단, 주민자치센터 등의 사업추진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생활문화 활동 현황과 정책추진 성과는 주민설문조사와 운영자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에 따라 2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①주민, ②생활문화 관련 시설 운영자・전문가 등이다.

대상에 따른 설문내용은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문내용을 구조화하여 실시하였다. 주민을 대상으로는 ①생활문화 활동 참여 동기, 방식, ②시설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③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④활성화를 위한 정책요구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운영자・전문가를 대상으로 ①생활문화에 대한 관심, 여건 및 개선사항, ②생활문화 활동 효과, ③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4) 충남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충남 생활문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현장 및 사례조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기본방향을 도출하고,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실천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문회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 생활문화정책의 방향, 추진시책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고, 총 3회에 걸쳐서 시기별로는 연구 시작 전, 중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충청남도,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본 연구는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방법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검토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검토를 통해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생활문화 정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사례로서는 국내에서는 전북, 성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국외로서는 영국, 일본, 미국 등에서 추진하거나 작동되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충남 생활 문화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과 운영자에 대해 생활문화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가 의미하는 시사점,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검토와 제3장 충남 생활 문화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및 실태 조사·분석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은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정책과제로서 접근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한 후, 연구가 갖는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밝혔다.

연구 개요 (1장)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범위 및 방법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관련이론·정책 사업 추진현황 및 사례 (2장)	□ 생활문화의 개념 및 정책 • 생활문화의 개념과 이론 • 생활문화 정책의 변화와 방향 □ 생활문화 정책 사업 및 지역별 활동 현황 • 생활문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 • 지역별 생활문화 관련 사업 및 활동현황 □ 국내외 생활문화 정책 및 사업 사례 • 국외 – 영국, 독일, 일본 등 • 국내 – 전북, 충북, 성남 등 • 시사점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사업추진 현황 및 실태 (3장)	□ 조사·분석의 개요(틀) □ 생활문화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및 실태 □ 생활문화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 분석 종합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4장)	□ 정책의 기본방향 • 목표와 전략 □ 생활문화 정책 및 사업전달체계 개선방안 • 도, 시·군, 생활문화센터, 재단, 문화원 관련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 생활문화 전문인력 확충 및 활용방안 •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확충과 활용
결론 및 정책제언 (5장)	□ 결론 및 요약 □ 정책적 활용 및 향후 연구과제 • 정책 활용방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생활문화와 관련된 기존연구는 ①활동조사와 관련된 기초연구 ②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연구 ③참여자 만족도에 대한 학술연구가 이루어졌다.

①생활문화 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로 조광호(2015)는 생활문화 정책 추진 및 활동지원을 위해 “생활문화 활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정립, 활동조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②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연구로써 강윤주(2012)[6]는 생활예술의 중요성과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생활예술 비전의 공유, 생활예술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축제 지원, 생활예술 환경지원을 위한 생활매개자, 법제도, 공간, 지식정보화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정광렬(2016)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생활문화 전달체계 개선방안, 생활문화진흥원 기능 활성화 방안, 법령 개정과 전문인력 확충・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 조현성(2014)[7]은 문화예술동호회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구축의 주체・형태, 네트워크의 역할・업무, 그리고 정부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활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지역별・주체별로 정해홍(2016)은 전라북도의 정책방향과 지원체계에 대해, 이성은(2017)은 대전지역과 대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활성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③생활문화참여 만족도 연구로서 장민희(2014)는 생활문화예술동호인을 대상으로 목적, 만족도 향후 참여의사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만족도가 성별, 세대별, 참여분과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밝혔다.

김유진(2017)도 마을예술창작소와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참여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연구를 하였는데, 참여활동 내용과 관계 형성이 참여자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줌을 밝혔다.

선행연구 조사결과, 생활문화 정책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충남도는 아직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본 연구의 필요성, 시의성, 차별성이 있다.

---

6) 강윤주, 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
7) 조현성, 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1-2〉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연구명 - 연구자	목적, 범위 및 방법	주요내용
생활 문화 활동 조사 연구	생활문화활동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 조광호 (2015)	• 생활문화의 개념, 범위 규명, 생활문화활동 조사틀 마련 • 문헌·자료조사,활동사례 조사 및 분석	• 생활문화 관련 정책동향 파악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및 지역활동 현황 • 생활문화 활동조사 기본개념 및 조사 기초(안) 구성 및 제안
(국가) 생활 문화 활성화 정책 연구	생활예술 지원정책 방안 연구 - 강윤주(2012)	• 생활예술 전망과 정책 지원 방안 제시 • 문헌조사, 사례조사	• 생활예술에 대한 이론 및 법적 근거 검토 • 국내 생활예술 관련 정책·사업 조사 • 해외 생활예술 현황조사 • 생활예술정책방안 제안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 정광렬(2016)	• 현장 수요에 대응한 생활문화 정책기반 구축방안 제시 • 문헌조사, 현장 및 면접조사, 설문조사, 자문회의	• 생활문화 개념 및 정책에 대한 이론 탐색 • 생활문화 지원정책 실태 및 전달체계 분석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방안 -전달체계, 생활문화진흥원 기능, 법령 개정, 생활문화 전문인력 확충 및 활용 방안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 조현성(2014)	•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방안 • 문헌연구, 현장사례조사,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 중앙정부, 지자체의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 정책·사업 조사 • 국외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 조사 -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시
(지역) 생활 문화 활성화 정책	전라북도의 생활문화예술 방향과 지원체계 연구 - 정해홍(2016)	• 전북 생활문화예술 지원체계 분석 및 지역 특성에 대응한 방안 모색 • 문헌 및 자료조사	• 생활문화예술의 사회적 의미 • 전북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정책 조사 • 전북 생활문화예술 지원체계 발전 방안 제시

구분	연구명 - 연구자	목적, 범위 및 방법	주요내용
연구	대전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연구 - 이성은(2017)	• 대전문화재단을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방안 • 문헌 및 자료조사	• 국내 문화재단의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정책 사례조사 •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생활 문화 활동의 효과 연구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활동 만족도 분석 - 장민희(2014)	•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사업만족도 분석 • 전북 익산을 대상 •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 동호회 활동 특성분석 • 일반특성요인과 사업만족도 관계분석 • 개별활동요인과 사업만족도 관계분석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활동과 삶의 만족도 연구 - 김유진(2017)	•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활동참여 동기와 만족도 관계 분석 • 서울마을예술창작소,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참여자 대상 • 문헌조사, 설문조사, 상관관계 및 요인분석	• 생활문화예술공동체 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론 구상 • 생활문화예술공동체 활동 및 만족도 조사 • 참여 동기(지적, 심리적, 사회적), 활동만족도, 영향(정서적, 대인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	충남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 충남도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충남 생활문화 정책추진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마련 • 충남도 문헌 및 자료조사, 충남도민설문조사, 사례조사	• 충남도 생활문화 정책추진실태 • 충남 생활문화 정책/사업 만족도조사 • 국내외 생활문화 우수사례조사 • 충남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제안

제2장 관련이론 · 정책추진 및 사례

1. 생활문화 개념 및 정책지원 이론

1) 생활문화 개념 및 변화

(1) 생활문화 개념의 유래와 변화

"생활문화"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서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생활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시민문화, 자발적 문화, 비공식 예술, 참여예술, 아마튜어 예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생활문화는 다도, 꽃꽂이 등 예술이 아닌 장르적 개념의 문화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8]. 우리나라에서 생활문화는 처음에는 문화향유 및 참여적 문화활동의 관점에서 별도의 이론적 정립 없이 사용되었다. 초기의 생활문화 개념은 창작자 중심의 정책과 대비한 문화복지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생활문화가 문화정책에 최초로 등장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에서도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복지 증진의 관점이었다. 그러나 창작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문화향유 중심, 이를 위한 문화인프라 조성 등이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생활문화는 문화복지의 개념을 벗어나 참여적인 문화 활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별도의 문화공간에서만이 아닌 생활 속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문화의 일상화 정책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점과 연계하여 문화의 영역이 생활양식 등으로 확장되면서 초기의 생활문화는 생활양식, 특히 전통생활양식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

8) 정광렬(2004).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이러한 관점을 잘 나타내는 것이 1990년 문화부가 별도로 독립하면서 생활문화국을 신설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생활문화국은 생활문화과·지역문화과·박물관과·문화시설과의 4개과를 두었는데, 생활문화과는 주로 장르적 관점에서 예술이 아닌 분야를 다루었고(여기에서 기초적인 생활양식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가 추진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문화향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였다. 생활문화국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체육청소년부와 통합되면서 실국이 축소되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생활문화와 관련된 국 단위의 조직은 구성되지 못하였다.

생활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활문화의 개념은 4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전문예술이나 창작자 중심의 예술과 대비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서구에서의 아마튜어 예술, 비공식 예술 등의 관점이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된 향유자/시민 중심의 생활문화 진흥이 이러한 관점을 따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및 문화부 발족 시 이러한 관점을 따르고 있다. 문화학교 등에서의 각종 문화교육활동, 참여적 문화활동도 이러한 관점이다.

둘째, 예술이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수용하는 장르의 확장적 개념인 생활양식으로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으로 생활문화는 예술 이외의 장르적 개념으로서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정생활문화, 전통생활문화에서 다루는 관점도 이러한 관점에 따르고 있다. 예를들어 재외문화원에서 다루는 문화프로그램 중 한국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따르고 있다.

셋째, 공간적·시간적 관점으로서 생활문화이다. 문화활동은 노동시간과 분리된 여가활동으로서 별도의 시간에 별도의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생활과 분리되거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문화의 생활화, 생활 속의 문화, 문화의 일상화 등으로 변화되어 온 문화정책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최근의 생활문화 개념 이전에 사용된 생활예술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넷째, 문화활동의 대상 및 주체성, 방식 등의 관점이다. 문화의 일상성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전문예술인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시민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참여적 문화활동의 경우에도 수동적인 문화강좌가 아닌 수요자들이 직접 기획이나 운영에 참여하고, 예술

활동의 경우 동호회, 모임 등을 구성하여 직접 창작활동을 하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표, 교류 및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되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방식을 하게 된다. 기존 문화의집이나 문화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생활문화센터의 방식이 이러한 관점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추상적이라서 활동유형/범주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2-1〉 생활문화 개념의 변화단계

관점	시기	내용 및 특성
행위자 관점	1990년대 초반	• 전문예술/창작자가 아닌 일반시민/아마추어의 문화활동 • 문화향유, 문화학교, 문화교육 등 • 비전문가의 창작활동
장르적 관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 예술적·심미적 개념에서 확장된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활동 - 전통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 정서적 취미활동 등
공간/시간적 관점	2000년대 초반	• 노동시간과 분리된 여가활동으로서가 아닌 일상 속, 생활 속의 문화활동 - 전문문화공간, 생활문화공간 등 장소 여부는 기준이 아님.
활동의 방식 관점	2010년대	• 문화활동의 방식에서 주체적 활동이 기준 - 창작활동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문화활동 기획과 과정의 주체적 참여가 기준 - 수동적인 문화강좌 등은 문화관람 등의 관점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제외

자료 : 정광렬, 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8의 내용을 재정리.

(2) 생활문화의 법적 개념 및 한계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생활문화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법 제2조)에 의하면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적 활동**"** 을 말한다.

〈표 2-2〉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생활문화 관련내용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제2조(정의) 3	•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	제7조 (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

자료 : http://www.law.go.kr/

생활문화 시설은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생활문화 지원, 시설 및 확충의 지원 등에 대해 지역문화진흥법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표 2-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상의 생활문화시설 관련내용

조항	내용
제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9]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자료 : http://www.law.go.kr/

〈표 2-4〉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내용

고시시설	내용
생활문화센터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지역미디어시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자료 : http://www.law.go.kr/

지역문화진흥법의 생활문화 관련 개념은 지역문화의 전반과 관련된 지역과 지역주민에 의한 일상적 문화활동의 개념으로서 확장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대상으로서 문화예술 정의는 문예진흥법에 따라 영역별 개념인 반면에 생활문화는 주체(지역주민)·대상(전문예술인이

9)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은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등이다.

아닌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활동유형(자발적·일상적)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생활문화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정책대상과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정책수단이 부분적이며, 실제 정책은 협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생활문화 활동의 범주를 보면 시민들의 문화향유, 교육, 창작, 공동체, 교류, 참여활동, 독서 등 포괄적이어서, 문화예술 정책과의 관계 및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생활문화시설의 범주는 문예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시설 유형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시설, 마을회관, 지역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 등을 모두 포함하여(동법 시행령 제2조) 생활문화 활동의 범주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3) 생활문화 개념의 정의

생활문화의 개념은 장르·영역, 활동유형, 주체·대상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왔다. 즉, 생활문화는 예술문화와 대비된 의식주 관련 생활양식(문예진흥법, 건전 생활문화,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 등), 활동유형(시민들의 수동적 문화관람과 대비되는 적극적인 참여적 예술활동), 주체·대상·시공간(시민·지역주민의 자발적·일상적 문화활동)으로 변화되어 왔다.

한편 현행법 상에서도 생활문화의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상 생활문화의 개념은 ‘국민들이 취미와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문화적 차치 실현과 문화적 산물을 느끼고 음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음악, 미술, 연극, 무용・춤, 영화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으로 정의하며 활동 목적은 광의적, 활동내용은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상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여, 활동목적은 협의적, 활동내용은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생활문화의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의 개념을 “지역의 주민이 생활 속에서 자발적 또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활동”이라 정의하고 광의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생활문화 개념에서 문화적 욕구 충족이라는 협의적인 개념을 제외한 것은 문화의 다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정서적, 사회・경제적 욕구 등이 목적이 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생활문화정책의 지원 이론

생활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적 참여문화 활동의 증가이다. 시민들이 정책의 대상으로서 수동적 문화향유자가 아닌 주체적 문화창조자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문화예술활동은 주로 수동적인 관람이나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는데, 주체적인 참여적 활동만이 아니라 문화활동의 기획과 창조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독서의 경우를 보면 책 읽기를 넘어서 토론과 글쓰기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서는 책을 읽고, 강의에 참여하고 탐방하고 질문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직접적인 토론과 글 쓰기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중에도 학생들의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도서관 등에서도 학부모들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책을 발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지역주민 문화활동 공간의 다양화이다. 전문적인 문화공간이 아닌 소규모의 커뮤니티 공간, 일상적 삶의 공간이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파출소(치안센터)의 경우에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독서활동의 경우에도 도서관 등을 벗어나, 서점, (북)카페,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2017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독서동아리공간 나눔지원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작은 도서관이 대상이어서 당초 취지와 맞지 않거나 민간의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문화활동 영역의 다양화이다. 순수예술 분야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예술과 전문예술의 엄격한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계허물기는 각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트렌드이다. 직업으로서 활동 이외에 즐기면서 하는 활동이 더욱 증가하고, 각 영역간 복융합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가속화될 것이다.

넷째,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기반 생활문화의 확대이다. 이러한 흐름은 시민들간의 소통 및 협업 기반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어려운 계층과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생활문화는 문화권 및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문화의 가치는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로 나누어 정책지원의 근거를 설정할 수 있다. 생활문화의 문화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 참여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한다. (2)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하여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3) 전문예술과 아마튜어 예술간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시장 확대에 기여한다. 생활문화의 사회적 가치는 (1)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기여, (2) 집단적 활동을 통한 소통과 협력 강화, (3) 마을 및 소규모 공동체에 맞춤형 문화활동, (4) 사회통합에 기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활문화의 경제적 가치는 (1) 시민들이 문화창조자로서 지역사회 창의성과 경제적 가치 창출, (2) 지역 브랜딩 및 창조기반 구축 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영역과 활동을 왜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 영역에 대해서만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간, 시설, 교류, 협력, 재정, 지식정보 등의 자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원을 시장 및 자발적 영역에서 개인들이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른바 공유재의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문화격차 및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있는 여건에서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문화권 보장이라는 헌법 및 문화기본법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또한 생활문화의 가치에서 살펴보았듯이 생활문화도 전문예술이 가지는 다양한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정당성과 가치가 있다. 다만, 생활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과 수단이 필요하다.

2. 중앙정부의 생활문화 정책동향

1) 생활문화 정책의 흐름

생활문화 개념이 정책으로 최초로 등장한 것은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0년 문화부가 독립하면서부터이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생활문화의 개념과 정책 및 사업이 등장하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1990~1993) 문화부에 생활문화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생활문화는 주로 생활양식이라는 장르적 개념으로서의 생활문화와 함께 계층별로 보다 세분화되고 특성화된 문화의 생활화, 문화향유의 증진에 초점을 두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국민문화복지 증진이라는 국정목표 하에서 문화복지가 추진되면서, 문화의집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초기 단계의 본격적인 생활문화 정책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지방문화원 등에서 문화학교 제도가 도입되고 시민문화교육이 확대되었다. 현재 상당수의 지방문화원 등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문화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문화예술교육 중심의 문화학교는 민간의 문화센터에서의 문화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어 생활문화 프로그램 확산에 기여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 없이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 당시 외환위기 등의 외부환경으로 문화산업의 비중이 강조되면서 경제위기로 존립위기에 처한 예술가들의 생존 및 지원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자발성, 일상성에 기초한 생활문화라기 보다는 활동유형의 관점에서 참여적인 문화활동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민주주의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참여적 활동에 기반한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방식을 일부에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문화민주주의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식으로 생활문화 자체에 대한 진전된 관점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생활문화에 관한 새로운 정책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다만 예술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지원의 전략적 관점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졌다. 4대 예술지원 방식 개선의 한 분야로서 추진된 생활 속의 예술정책이 가장 큰 사례이다. 생활 속의 예술은 생활문화/예술이

라는 개념과 관점을 사용하였지만, 전문예술의 지원방식을 소비자/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으로 정책지향의 차이가 있다. 즉, 지역작가들에게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지 않고도 창작기회를 확대, 생활 속에서 예술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유능력 제고,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의 상호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생활문화와는 차이가 있지만, 접근방식에서 예술가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와 수요자/시민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생활문화 개념의 관점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목적이 예술지원, 최종적인 예술가 수혜방식 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라는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문화의 일상화가 설정되고, 자발성, 일상성에 기초한 생활문화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문화융성위원회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문화권을 규정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의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된 사업이외에 2015년도부터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담당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지역별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표 2-5〉 박근혜 정부의 생활문화 관련 정책 (단위 : 억원)

사업명	지원주체	예산규모		지원대상	내 용
		'15	'16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20	135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생활문화 진흥원	15	5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기획프로그램 및 이용자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 진흥원	20	16	생활문화동호회 /단체	프로그램 운영지원/축제개최 지원/전국생활문화제 개최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지원	한국문화원 연합회	12	10.8	지역 단체/기관/ 시설/주민조직	사전활동비/공동체 형성 활동비 지원
문화이모작*	한국문화원 연합회	1.6	1.45	마을리더/시민활동가/마을살이, 인생이모작 준비자	교육 및 기획 사업 /지식실행 공동체 지원

*문화이모작 사업은 2016년도부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담당,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생활문화진흥원에서 담당. 문화가 있는 날은 2018년도부터 생활문화진흥원에서 담당예정

2)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유형

정부의 생활문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생활문화센터(문화의집), 작은도서관 등 생활문화시설의 조성과 확산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에 유휴시설, 문화의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말까지 128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독서와 관련해서는 독서동아리공간 나눔지원사업, 문화파출소 사업도 이러한 사업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생활문화프로그램 및 동호회(동아리・생활문화공동체) 지원이다. 지역사회 및 생활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호회 활동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 여기에는 생활문화동호회 등의 사기진작, 교류 및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축제 및 교류활동, 문화가 있는 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생활문화공동체, 동아리 지원 및 축제 등도 이러한 사업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이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2016년도부터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전국의 생활문화시설에 배치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동아리 지도인력(강사, 지도사, 리더, 토론리더 등) 등의 사업도 이러한 사업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이와 연계된 생활문화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생활문화 프로그램은 각 지역사회・생활문화시설・동호회 등의 수요에 따라 특성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맞춤형), 실제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성・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상태이다. 문화예술교육 분야도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 필요성에 따라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등) 및 DB 준비 등에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 생활문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

생활문화 정책사업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교육 지원사업에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지원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인력양성 사업에 문화이모작 사업 등이 있으며,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지역주민의 문화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 제공, 지역주민의 문화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생활문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4년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생활문화센터는 역할, 운영환경, 공간조성에 따라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하며 차이점은 다음표와 같다.

〈표 2-6〉 생활문화센터 유형

역할에 따른 유형	거점형	생활권형
위치	• 시·군구 단위 조성	• 읍면동 단위 조성
기능	•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멀티 플랫폼 역할 수행 • 전문시설이 필요한 생활문화 활동 공간/발표공간 지원 • 생활문화 활성화 위한 네트워크 허브기능/정보제공/컨설팅 지원	• 지역주민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교류 지원 • 지역주민 자율적인 문화활동/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교류 기회 제공
운영환경에 따른 유형	**도시형**	**농촌형**
특징	• 높은 인구밀도/큰 인구 규모 • 2/3차 산업 중심	• 낮은 인구밀도/작은 인구 규모 • 1차 산업 중심
커뮤니티	• 목적적인 상호 작용	• 지속적인 상호작용
인구	• 인구 5만 이상	• 인구 5만 미만
토지활용	• 상업지구/주거지역 비율 높음	• 논밭 비율 높음
공간조성에 따른 유형	**독립형**	**공동형**
특징	• 생활문화센터가 독립된 형태	• 생활문화센터가 다른/기존시설 포함

나. 추진현황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지원되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직전 연도에 신청을 받아 대상 시설이 결정된다. 2014~2016년까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지원된 시설은 총 102개(2016.11 기준)로 2014년 34개소, 2015년 34개소, 2016년 34개소가 지원받았으며, 그 중 53개(2016.11월말 기준)의 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하였다.

지역별로는 부산(13개소)이 가장 많았으며, 세종(1개소)과 대전(2개소), 울산(3개소), 충북(3개소)이 가장 적게 조성되어 있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는 기존의 5개 문화의집이 총괄계획에 따라 모두 생활문화센터로 조성되어 개관하였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 이외의 공간과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생활문화센터 개관현황 및 역할, 운영환경, 공간조성에 따른 조성지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7〉 생활문화센터 지역별 조성 현황

년/지역	총계(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	34	0	3	2	1	2	1	0	6	2	0	1	3	5	4	3	1	0
15	34	1	3	3	2	1	0	2	3	5	0	2	2	4	1	0	3	2
16	34	2	7	1	3	1	1	1	2	1	1	0	2	3	2	2	2	3
총계(개)	102	3	13	6	6	4	2	3	11	8	1	3	7	12	7	5	6	5

다. 사업의의와 성과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위주의 체험·창작활동을 지원하며,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민간중심의 Bottom-up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과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10].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공공 소유로 공공 운영이었다면,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율적인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며, 기존 문화시설은 공간을 조성하는 건립비용만 지원하였다면, 생활문화센터는 리모델링 비용부터 문화활동을 위한 플랫폼 활용/활동비용(시설/기자재/홍보비/컨설팅/네트워크)도 지원하고 있다.

10) 기존의 문화시설은 관람 위주의 서비스 제공형태로 신규 건물을 건립하여 Top-down 방식의 일방적·획일적인 공급형태였다.

종합적으로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성과 자생적인 힘을 키우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지속적 문화활동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으로 관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11]

가. 사업개요

사업추진배경은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스스로 즐기고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및 생활문화예술축제 활성화에 있다.

사업의 목적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일상 속 생활문화예술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가 중심의 문화향유에서 국민 주도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사업의 내용은 3가지로 (1)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2) 권역별 생활문화제 개최 지원, (3) 전국생활문화제 개최 및 생활문화정책 홍보 등이다.

나. 추진현황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4년부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동호회 거점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5년 20억원, 2016년 16억원이 집행되었다. 생활문화동호회 사업 지원인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은 공모를 거쳐 선정하며[12], 2015년에는 36개, 2016년에는 41개 생활문화시설/단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개 단체당 약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주민 및 생활문화동호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가 있는 날' 마을 생활권 내 지역주민 및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류 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축제)을 지원하고 있다.

---

11)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은 지역문화진흥법(2014.1)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의 법제화로 가능하게 되었다.

12) 생활문화동호회에 직접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렵고, 임의단체인 생활문화동호회의 지원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시설을 통하여 간접지원하고 있다.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축제 지원사업은 2015년 15개 광역시도 9개 단체에 대해 363,500천원을 지원하여 23개 프로그램이 추진되었고, 참여동호회 880팀(9,486명), 관람객 355,995명이 참여하였다.

2016년도에는 14개 권역별 축제 규모에 따라 약 2천5백만원 내외를 지원하였다. 다만, 2015년도에는 지자체 매칭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축제당 5천만원이 지원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7년 성남시의 사랑방 문화클럽 동호회를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이 추진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전라북도 내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며, 전담 인력(코디네이터, 문화기획자)과 강사비용을 지원하였다.

다. 사업의의와 성과

동호회 활동지원 사업의 만족도 수준은 집단의 규모·동질성·지속성의 기준이 높을수록 높고, 그렇지 않을수록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호회 지원사업은 적은 예산으로도 활성화가 가능하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13]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사업 및 전국적인 축제를 통하여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인식과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문화시설을 통하여 간접지원으로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연계, 동호회의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 생활문화교육 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활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 비전문가의 구분 없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문화활동을 지원[14]하고 있다.

---

13) 생활문화 활동 자체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속적인 활동공간과 상호간 교류 및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다는 것에 만족도가 높다.
14) 사업의 주체가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시민이라는 점, 결과 중심형 지원사업이 아닌 과정 중심형 지원사업이

〈표 2-8〉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시시콜콜'사업 지원내용

구분	시작기	성장기
신청조건	• 조직구성 단계 혹은 형성초기 단계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단계	• 조직구성 완료 후 확장 단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전단계
중점지원 내용	• 조직 형성 및 역량 강화 활동비 • 프로그램 개발 및 파일럿 운영비 등	• 조직역량 강화 및 확대 활동비 • 공간조성, 프로그램 확산 운영비
지원방법	5백만 원~1천만 원	5백만 원~3천만 원
	단년(당해)지원	연장지원
비고	•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아이디어 실험, 파일럿 운영이 필요한 단계 지원	• 기존 활동경험, 실험 등을 바탕으로 시민문화예술교육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단계 지원

활동 지원 사업은 자율적인 사업 제안을 우선으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조직 성장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2-9〉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동 '시시콜콜'사업 지원내용

지원항목	세부내용
조직 운영	• 내부인력 역량 교육, 전문인력 채용, 네트워크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기반 콘텐츠 개발과 실험(파일럿) 운영 등
공간 운영[1)]	• 공간 기능 개선(리모델링, 기기구입 등)
기타	• 홍보, 마케팅, 자원조사 및 아카이빙, 축제, 세미나 등 신청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자율 제안
프로그램 뱅크[2)]	•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책정 가능

주 : 1. 공간운영비는 성장기만 신청가능하며 전체예산의 50%까지 책정 가능
2. 신청예산 중 30% 이하

전문문화예술교육단체가 아니더라도 더불어 사는 마을을 꿈꾸는 주민과 예술가, 지역의 변화와 활력을 꿈꾸는 청년 등 사회 및 개인 삶의 문제에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협업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다양한 시민조직들의 공유, 소통, 상호 작용적 학습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라는 것에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있다.

나. 추진현황

2011년부터 시민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3년 간 진행하였고, 2014년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시시콜콜’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2-10〉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년도	지원단체수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별별솔루션’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구축 지원	11년	4개
			12년	9개
			13년	6개
			14년	1개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공간 기반의 문화예술단체・기관・시설	• 시민문화공간(생활시설/행정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거점 조성 지원	12년	8개
			13년	6개
			14년	2개
시민문화예술 교육활동지원사업 ‘시시콜콜’	임의·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시민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위한 새로운 주체 발굴, 성장 지원	14년	27개
			15년	33개

다. 사업의의와 성과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이슈와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원 사업 내용으로 공간,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뱅크 등 다양화하고, 조직 운영 및 역량 지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 사업과는 달리 새로운 지원 수단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활성화 사업인 ‘시시콜콜’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와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4)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 생활문화교육 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공동체 문화 회복과 지역의 변화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제고와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주체적, 능동적 문화예술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중심의 문화공동체 형성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표 2-11〉 2016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구분	내용
수혜대상	•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단지,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주민
지원내용	•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문화예술교육, 주민동아리, 주민강사육성, 마을축제, 주민간담회 및 공동체 교육, 주민운영 위원회 운영 등)
지원예산	10억 8천만 원(1개 사업 당 20~35백만 원/27개 단체)
주최/주관/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원연합회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필수조건),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기관·시설 및 주민조직 ※신청우대 조건 - 지원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이모작사업 운영 및 참여 경험이 있거나 생활문화센터(생활권형)를 운영 중인 단체

나. 추진현황

2015년까지 연 171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6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는 총 27개 단체(연속지원 대상 14개 단체, 신규 13개단체)가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 참여자수는 총 40,212명(일반 참여자 38,930명, 기획 및 예술인력 1,282명)에 이르고 있다.

〈표 2-12〉 2009-2016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지원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8	19	25	24	27	31	27	27
지원수(개)	3년차	-	-	7	4	3	10	7	5
	2년차	-	13	6	5	12	8	7	9
	1년차	18	6	12	15	12	13	13	13

자료 :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www.kccf.or.kr)

〈표 2-13〉 2016 지역별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추진 현황

지역	총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7	1	1	1	2	1	-	-	2	2	2	-	3	3	5	3	1
신규사업	13	-	1	1	1	-	-	-	2	2	1	-	1	2	2	-	-
연속사업	14	1	-	-	1	1	-	-	-	-	1	-	2	1	3	3	1

출처: 한국문화원연합회(2015), 2015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결과보고서

다. 사업의의와 성과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의 주체적 능동적 참여와, 일상 생활권인 마을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여, 예술단체와 지역주민의 소통, 협력 및 상호 작용 체계를 구축한 점 등의 측면에서 생활문화정책과 관련이 높다.

지역주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인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수행 경험과 노하우 축적에 의미가 있다. 특히, 사업 초기 예술가와 기획자 중심 모델이 점차 주민 조직 중심 모델로 전환되고 있고, 주민들의 주체성이 발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사업 대상이 지역주민이나 기획조직 보다는 전문 문화단체가 선정되어 당초 사업취지가 퇴색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체적·능동적 참여보다는 소극적·객체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5) 문화이모작 사업

가. 사업개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기획과 관련된 기본교육을 제공한 뒤에 삶의 생활터전에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스스로 발굴하여 지역에 고유한 특색이 담긴 문화기획을 할 수 있는 문화인력양성 사업으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된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시범사업』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이모작 사업과정은 기초과정→ 집중과정→ 기획사업(↔지식실행공동체:네트워크 모임)

등의 단계 구성되며, 사업대상은 마을리더[15], 시민활동가[16], 마을살이 준비자[17], 인생이모작 준비자[18] 등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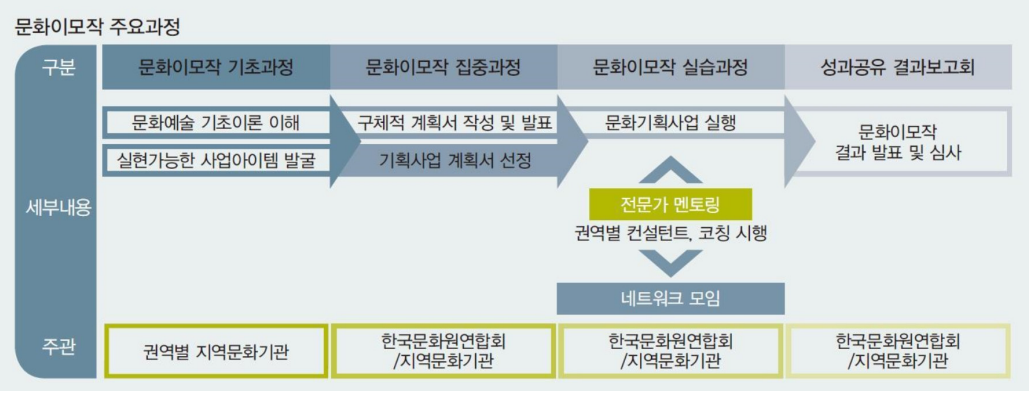
나. 추진현황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된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시범사업』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다. 사업의의와 성과

지역과 마을의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문화적으로 기획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인력 양성으로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마을마다 문화향유의 생산과 향유의 주체자가 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세워 지역문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확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 문화이모작 사업과정

15)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대표(추진위원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일반 농산어촌 체험마을 주민
16)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활동에 관심있는 시민활동가
17) 문화귀촌, 귀농을 통해 마을살이를 꿈꾸는 청년, 문화예술인, 일반인 등
18) 문화를 토대로 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은퇴예정자, 은퇴자, 일반 회사원, 개인사업자, 학생 등의 예비문화인력

〈표 2-14〉 문화이모작 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년도	사업대상	세부지역 및 단체		
2011	4개 권역 총10개 사업	경인권	–부평문화원 (인천시 부평구), 상봉리 반단마을 목공촌 협의회 (경기이천), 양평미술치료센터 (경기도 영평군)	
		충청권	–창작극단 하다 (충북 수안보면), 부수리 하얀민들레 생태마을 (충북 보은군)	
		전라권	–평촌 새마을회 (전북 진안군), 증궁마을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전북 진안군), 전남 고흥문화원 (전남 고흥군), 도장리 민속보존회 (전남 화순군)	
		제주권	–출판기획 풍경 (제주 표선면)	
2012	4개 권역 총13개 사업	강원권	–"소각소통" (평창군 미탄면), "동산비치가 꿈꾸는 마을" (춘천시 효자1동), "해맞이 대해마을 주민음악 축제" (신촌리 해맞이 대해마을), "박사마을의 사랑방 축제" (춘천시 서면)	춘천시 문화재단
		충청권	–"오서산 주말 시골장터"(충남 홍성 오서산 억새풀 마을), "지속과 확장가능한 서운고개 마을공동체" (충북 제천지 남현동 의병대로 29길), "호시탐탐 골목탐탐 자알놀았다람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원)	충북 문화재단
		전라권	–"웅포는 문화다" (전북 익산시 웅포면 25개마을), "슬슬(slowslow)놀이터"(전북 익산시 금마 동고도리 황동), "비비정 마을탐사단" (전북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마을)	익산 문화재단
		경상권	–"아!!!트랜스파머(ArTransFarmer)"(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오륜에 사심"(부산 금정구 오륜동 오륜마을), "두둠두둠 곰play" (부산 기장군 정관면 주민자치회관)	부산 문화재단
2013	4개 권역 총18개 사업	충청권	–"회초리를 청하다" (충남 서산시 지곡면 중앙리 224), "부비고 프로젝트" (충북 청원군 낭성면 고드미 마을), "달빛산책, 월류봉에 들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재 월류봉)	충북 문화재단
		경상권	–"할매, 할배 학교 갑시다!" (경남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마음1장 돌1장 옹기종기 돌담길"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우거리 사랑방 되살리기" (경남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화산 경운기 투어"(경북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마을대학, 영오리 캠퍼스"(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경남 문화예술 진흥원

년도	사업대상	세부지역 및 단체		
		전라권	–“난향에 묻어나는 돌담길 이야기” (전남 구례군 광의면 운동리 난동마을), “동동마을 은빛 프로젝트” (전북 장수군 장계 동동마을), “문화도시락(文化都市樂)” (전남 순천시 일원), “용골메아리” (전북 김제시 용골마을)	익산 문화재단
		강원권	–“도시로 간 농부” (강원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대풍이네 Living Library” (강원 춘천시 교동 대풍이네 헌책방), “동고동樂” (강원 춘천시 효자2동 일대), “날아라, 청개구리” (강원도 인제국 서화면 서흥리 404번지 주택), “문화예술 소통 놀이터” (강원 강릉시 사천해변), “사물놀이 추억 이야기쇼”(강원 원주시 행구동 주민센터)	춘천시 문화재단
2014	4개 권역 총19 사업	경인권	–“무지개 라디오” (경기 분당구 구미동), “마이크 테스트” (인천 남동구 만수동), “우각로 신토불이 골목장”(인천 남구 숭의동), “야화(和)하자” (경기 안산시 선부2동), “안녕하세요. 어서오시겨” (인천 강화군 강화읍), “공간애 프로젝트” (인천 남구 용현동)	인천 문화재단
		충청권	–“시가 만권이 있는 집”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화가 있는 아파트 ‘삶의 향기 몇 점’” (충북 청주시 분평동), “물안뜰 어르신 연극에 빠지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 “돗자리 펴는 마을 프로젝트” (충남 서산시 해미면)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경상권	–“학교ing”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봉 숲 도서관” (경남 밀양시 법흥리), “화이부동–귀농인 재능 네트워크” 경남 합천군 가회면), “빛타래 안동포 마을 가을 콜렉션” 경북 안동시 금소리)	경남 문화예술 진흥원
		전라권	–“세대공감 문화체험 200% 즐기기” 전북 김제시 금산면), “꽃청춘 문화신문” (광주광역시 일곡동), “별 님달님 반짝반짝” (전남 신안군 증도면), “떴다! 새댁” (전남 화순군 유마리)	전남문화 예술재단

3. 사례조사

1) 국외사례

(1) 영국

가. 개요

영국의 생활문화 진흥은 1946년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설립되면서 예술 부문의 목표를 '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의 예술적 참여 및 기회 증진[19]'으로 하면서 부터이다. 생활문화 시설과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아트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활문화 활동은 전국적 차원에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어우러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소규모 클럽으로서 소식지 발간, 컨퍼런스 및 이벤트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동호회와 클럽을 연결하는 비영리단체인 Voluntary Arts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관련 시설 및 활동사례

① 아트센터[20]

아트센터는 경제적으로 극장, 공연장 등을 운영할 수 없는 소도시에 문화 활동 장려를 위해 다목적홀로 조성되었다. 문화예술 접근과 향유가 어려운 소도시에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②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 센터는 1차 세계대전 후에는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지만, 2차 세계대

19) 문화체육미디어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에서 발간한 문화백서(The Culture White Paper, 2016)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살펴볼 수 있다. 총 4개의 섹션 중 2번째 섹션에서 문화번영은 곧 지역사회의 성장으로 건강한 지역사회와 경제성장을 위해 문화의 역할 및 국가와 지역의 파트너쉽, 역사적 유산 지원의 중요성과 기술의 발전 및 문화적 경험의 확장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4번째 섹션에서는 정부에서 문화센터에 지속적 투자와 문화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펀딩 모델과 개발/적용을 비롯하여 나아가 공공단체의 지원을 통한 문화 투자 및 유연성 제고, 혁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20) 아트센터는 예술위원회의 '예술을 위한 계획(Plans for an Arts Centre, 1945)'에 의해 추진되었다.

전 이후에는 주민자치에 의한 지역사회연계와 주민을 위한 지역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되었다.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뿐 아니라, 모임공간, 스포츠 시설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와 대표를 선발하여,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Voluntary Arts -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

1991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서 영국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60,000개로 추산되는 소규모 자발적 예술 그룹들을 연합하는 200여개의 단체들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영국 전역에 사무실이 있다.

Voluntary Arts 지원대상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 예술 그룹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발적 예술 그룹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없이 전시·공연 등의 티켓 수익, 멤버쉽 회비, 기부금으로 마련으로 운영되고 있다.

Voluntary Arts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동호회연합체 지원과 함께 영국 내 창조적인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캠페인 'Get Creative'와 매년 'VA Week festival'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 Voluntary Arts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Voluntary arts 관련 정기적인 뉴스와 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 Voluntary arts activity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웨일즈예술위원회,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 등 영국 내 5개 예술위원회와 복권기금을 통해 받고 있으며, 영국 문화부의 아마추어 예술 관련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주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2) 독일

가. 개요

독일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어 있어 연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동호회를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동호회를 지원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되고 있는 동호회를 다시 연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영국의 Voluntary Arts와 민간네트워크보다는 동호회 콘텐츠별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음악동호회의 경우 'Musikrat(음악위원회, 일종의 사단법인 음악회)'가 있어 각 주별 아마추어 음악동호회로부터 회비를 걷고, 공식 기구로서 대표성을 띤 채 각 주별 아마추어 음악동호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받는다.

나. 관련 시설 및 활동사례

① 사회문화센터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들은 지역이나 연방 차원의 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며, 연방정부보다는 지역의회나 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독립적 자율적 수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문화센터는 대개 중소규모 도시에 설치하며 독일 전체에 500여 곳의 사회문화센터가 있는데, 규모는 도시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센터 운영 목적은 주민들에게 문화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 내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며 특히 장르간의 협업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특히, 센터 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80%가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이들은 재능 기부와 함께 전문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자질을 개발한다.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문화적 접근 기회를 제공하며 아마추어와 전문가 사이 수준인 준전문가 수준의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대중과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3) 일본

가. 개요

일본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생활예술가들의 전국 축제인 '국민문화제'가 1986년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협력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생활문화 시설로서는 대표적으로 공민관이 있으며,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방적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 관련 시설 및 활동사례

① 국민문화제

일본의 국민문화제는 1986년 제1회 도쿄를 시작으로 2016년 32회를 맞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전시, 공연, 학술행사 등이 개최되는데, 결과와 함께 준비 과정 자체를 중시하며 이를 '문화창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기업, 개인과의 연계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② 공민관

일본의 공민관은 학교 교육뿐 아니라 일본국민들이 상호학습을 통해 교양을 배양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문부성 주관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으로 조성되어 현재 시·정·촌의 92퍼센트에 약 18천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민관은 문화교양기관으로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지만, 교육적인 기능이 강조되어 있다. 지역적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을 갖추고 있지만, 대체로 2층 건물에 로비, 홀, 모임공간, 워크숍실, 운동실, 소도서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각종 강좌와 모임 등 이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민관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 공무원 위주의 운영에 따른 시민자치조직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③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방적회사 창고를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추진되었으며, 문화 활동을 위한 연습실, 작업 공간, 무대, 전시공간 등을 갖추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조성하였다. 운영은 시민 누구나 연중무휴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편의성을 위해 저렴한 대관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 감독제'를 도입하여 시민 스스로 자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시민 예술촌 모델은 일본의 타 지역 사례의 모델이 되고 있다.

2) 국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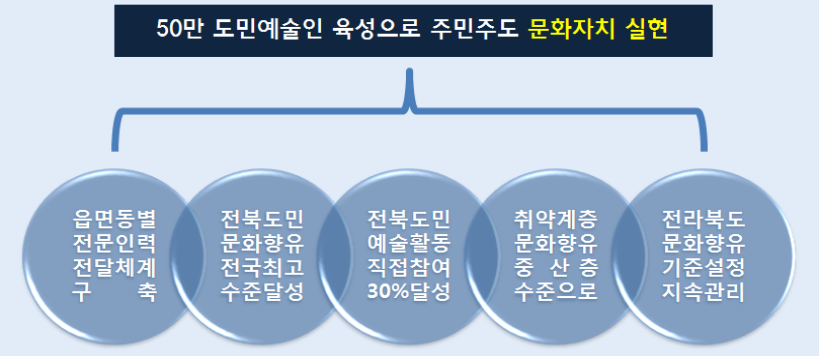
(1) 전라북도[21]

가. 사업개요

전라북도의 생활문화정책은 2012년 삶의 질 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적 복지개념의 문화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생활문화를 복지의 일환으로서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이해하고, 전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 당시에 전라북도가 문화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전략과 과제들은 지난 정부에서 정책화 된 생활문화정책과 다르지 않다. 즉 문화복지와 생활문화라는 이름만 다를 뿐, 전라북도에서는 2012년부터 생활문화를 문화복지라는 이름의 핵심도정으로 설정하고, 기반 조성부터 공동체 육성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전북도정의 생활문화(문화복지) 비전은 예술행사의 단순관람부터 문화공동체 활동까지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지원(문화시설, 프로그램, 인력·체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50만(15세 이상 도민의 30%) 도민예술인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림 2-2〉 전북 생활문화 정책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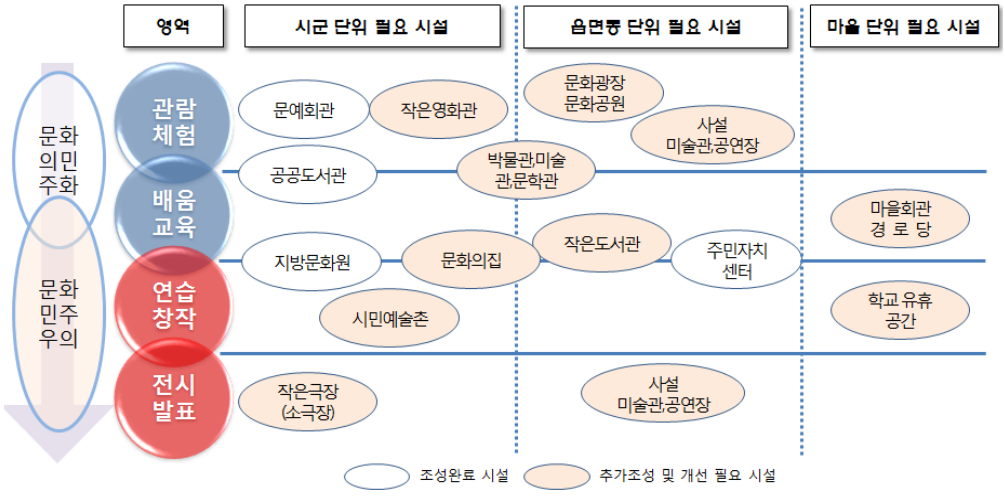
21) 장세길, 2017, 전북 생활문화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충남 생활문화 진흥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 참조.

나. 사업내용

전북도민의 문화향유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화향유 및 창조적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집중하며,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력 ·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문화 복지시설: 생활밀착형 시설(작은공간시리즈), 영역별·기능별 확충

생활문화 복지시설 조성의 핵심키워드는 생활밀착형 작은공간 조성이다. 특히 문화시설의 중심을 예술가에서 도민예술가(현재에서 보면 생활문화인)로 전환하는 것으로 도민예술인이 생활현장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기능별(문화교육, 창작연습, 예술관람), 권역별(광역, 기초, 생활) 시설을 구상하여 추진하였다.



〈그림 2-3〉 권역별(시·군-읍면동-마을), 영역별(기능) 문화복지시설 구축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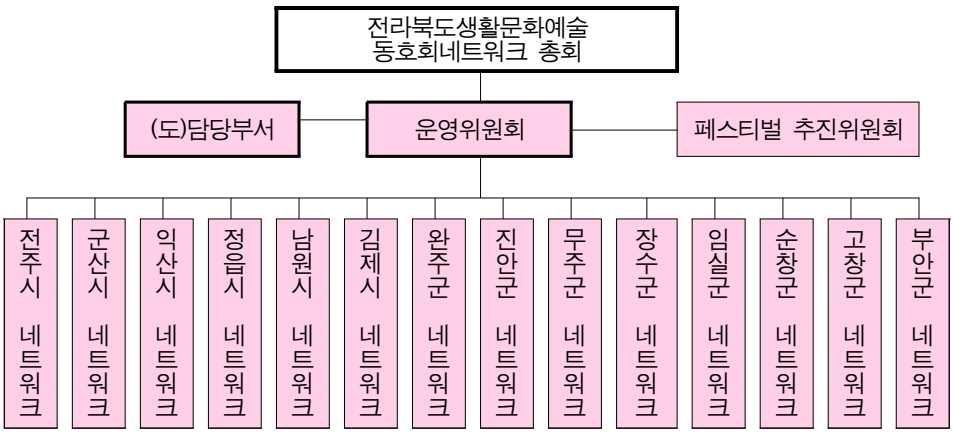
대표사업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작은 공간 시리즈(작은영화관 아트스쿨, 작은미술관 교육지원사업,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등) 조성, 24시간 개방 시민예술촌 등이 있다.

② 문화복지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 동호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첫째, 관람-교육-참여-활동이라는 문화향유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고 둘째, 동호회를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핵심단위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대표사업으로는 첫째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및 민간단위 동호회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다. 전라북도에서는 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모델을 적용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당시 전라북도에는 광역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민간(사단법인) 조직을 시・군별로 설립하고, 민간 단위(생활체육협의회 방식)의 전라북도 조직을 설립하였다. 이 조직에 가입한 동호회에 대하여 지방비를 지원하여 동호회를 육성하였다.

〈그림 2-4〉 전북 생활문화동호회네트워크 조직도(12년 설립, 13년 본격 활동)



두 번째 사업으로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이다.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시・군별로 페스티벌을 진행한 후에 전라북도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13년 페스티벌(2013.10.12.~13)에 동호회 255개팀에 2,600명이 참가했고, 2014년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전라북도 페스티벌은 취소되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동호회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③ 문화복지인력 및 지원체계

작은공간시리즈가 성공을 거두면서 전라북도 삶의질 정책을 대표했으나, 실제 문화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인력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속적인 문화복지사업을 위해서는 민간 단위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1차적으로 시·군 단위로 문화코디네이터(생활문화 전담 전문인력)를 지방비 100%를 투자하여 배치[22]하였다.

대표사업으로는 시·군별 문화코디네이터 사업인데, 2014년부터 문화기획자란 이름으로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읍면동 배치를 최종목표로 설정하여, 1단계로 2012년부터 전라북도가 주관이 되어 14개 시·군별 1명씩 생활문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동을 지원하였다.

〈표 2-15〉 전북문화기획자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복지전문인력[주1)]의 차이

구분	전북 문화기획자	문화복지 전문인력
역할	• 생문동 지원 사업 -문화공동체 회복을 위한 생문동 강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프로그램, 강사지원 등) -페스티벌 기획과 운영을 위한 활동 -문화사업 개발 -기타 생문동 행정업무 (예산지원과 동호회 관리)	• 저소득층 문화지원 -문화나눔 카드 사업 -저소득층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자활프로그램 기획 -후원 유치 활동(기부, 후원포함)과 문화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운영 -지역별 저소득층 문화향유실태 파악 -기타 문화예술지원활동의 행정업무
대상	• 중산층 주부·직장인·노인층, 동호회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 독거노인
	• 문화소외 지역 주민: 농, 산 어촌, 도서 문화소외지역 주민, 도시근교 농촌동, 공장밀집근로자 집단거주지역, 도시 빈민주거지역 주민	

주 1: 문화복지전문인력 사업은 2016년부로 사업이 중지되었고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전환됨

22) 생활체육지도자보다 높은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여, 당시 월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충청북도 -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

가. 사업개요

충청북도에서는 생활문화활동화를 위해 충북문화재단을 통해 2016년부터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8억이며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사업은 총 6개로서 ① 문화예술동호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플랫폼 강사 파견지원, ② 문화매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코디네이터 교육 및 활동지원, ③ 동호회, 코디네이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시스템 사용 교육, ④ 청년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학동호회 확대, 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⑥ 웹진발간을 통한 생활문화예술 정보 공유 등이다.

나. 사업내용

① 문화예술동호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플랫폼 강사 파견지원

예술가와 동호회원들의 문화적 활동에 있어서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6년 전문예술가에서 2017년 플랫폼 강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호회 별로 주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초과 시에는 계획변경 승인신청후 문화재단과 협의 하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항 목	변 경 내 용		비 고
	2016년	2017년	
강사 명칭 변경	전문예술가	플랫폼 강사	
문화코디네이터 활동 동호회	월 10개 내외	월 15개 내외	
사업 접수·관리운영	오프라인 (현장접수 및 우편)	홈페이지 일괄 접수·관리	
강사파견	동호회 2개 이상 가능	거주지역+도내 타 시·군	하반기

② 문화매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코디네이터 교육 및 활동지원

문화코디네이터[23] 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화코디네이터는 동호회 활동 촉진을 위해 동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플랫폼 강사와 소통함으로서 문화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총25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세부적인 역할은 주체적 문화 활동을 하도록 동호회에 자각과 자발성을 이끌며,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획을 돕고 지원하며, 도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와 기획을 하며, 문화시설 또는 기타 문화복지기관 등과 같은 곳의 생활권 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지역 특성화 문화자원을 탐구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도민 생활문화예술(장르 또는 동호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축제기획, 동호회 활동축적과 관리, 문화인력 재창출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 등의 활동에 있다.

③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행사명은 충북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로서 통합 페스티벌과 권역별(북부, 남부, 중부) 페스티벌로 나누며, 총사업비는 50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에 참여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통합페스티벌의 주요 내용은 콜라보레이션(합동) 공연, 사업홍보부스 운영 등이다.

---

23) 문화코디네이터는 공공의 영역에서 수평적, 감성적 리더쉽을 가지고 대중들에게서 문화적 역량을 발견해내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가치를 얽게 맺는 사람을 말한다(출처 : 충북문화재단, 2017 충북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하반기) 문화코디네이터 워크숍, p23).

(3) 성남 -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가. 사업개요

성남시는 1970년대 이전까지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군에 속했으나, 1970년대 서울 도심 정비 및 개발 계획에 따라 도심 빈민층의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성남시가 조성되었다. 90년대에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분당지역이 개발되고, 2000년대 초반에는 판교가 개발되며 벤처단지가 조성되었다. 30~40년 사이에 이질적인 사회계층들이 유입되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계층 분화와 갈등이 지역사회에서 발생되었는데, 이는 성남시민 상호가 공유하고 경험한 역사적, 문화적 연결 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및 계층 간 갈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에서는 성남문화재단 주관으로 2006년 기초 조사를 통해 생활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실행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사랑방문화클럽네크워크 사업이다. 중요한 것은 생활예술 정책이 기존의 '예술의 독립성'에 기반한 예술지원 정책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는 도시 및 사회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었다는 것이다.

나. 사업내용

사업은 총3단계 15개년(2006~2020)의 장기 계획 속에 실행되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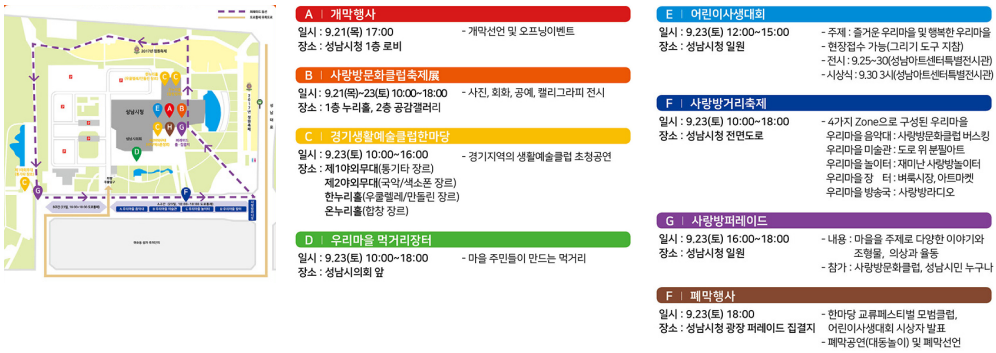
1단계 사업으로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에 필요한 공간 임대, 강사섭외, 악기 및 재료 구입 등 생활문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했다[24]. 지원 사업은 총37개 클럽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으며, 10월에 38개 클럽 710명이 참여한 '제1회 사랑방문화클럽 축제'를 성남아트센터 및 율동공원에서 개최했다.

2008년 지원은 큰 폭의 변화를 겪는데, 동호회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5~6개 동호회가 1개 팀을 구성하고 팀별 1년 활동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방식으로 지원 형태가 바뀌었다. 팀별 활동도 단순한 연합 발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 소외 지역이나 소외 계층을 찾아가 문화예술의 재능을 공유하는 활동 지원으로 변경되었다. 생활문화 활동 지원정책의 공공성을

24) 지원 사업 추진 전에 생활예술 동호회 발굴과 네트워킹을 위해 30여개 동호회가 참여한 '클럽파티'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잇게 다양한 모임을 가졌다.

강화하겠다는 의지였다. 이 사업은 ‘사랑방문화클럽 문화 공헌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67개 클럽, 7개 팀이 46회의 활동이 실행되었다.

〈그림 2-5〉 2017년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행사 및 프로그램



2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전국 교류 네트워크 구축, 장르별 축제 개최, 시민 활동가 교육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랑방문화클럽의 사업 명칭도 사업 성격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로 공식 변경된다. 2009년 국내 최초로 국외 기관들과 교류 포럼이 개최되었고, 2010년에는 전국 색소폰 애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합동 연구 ‘함께 불자 색소폰, 1,000명의 색소폰 연구’와 장르별 협력사업으로 ‘시민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11년에는 전용 연습 공간이 성남아트센터 앙상블극장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2곳이 더 설치되었다.

3단계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요방향은 자발성 촉진을 위한 자율적 예산 결정권의 부여, 재단과의 소통 강화, 창작 활동의 활성화, 클럽 간 교류 활성화,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의 확대 등이다.

사랑방문화클럽네크워크 사업은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성남지역 사회에 공동체 문화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며, 개인들의 사적인 취미 활동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라는 상호협력 플랫폼을 통해 공공 영역의 공적 활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3) 시사점

(1) 국외

생활문화 정책과 활동은 각각의 국가적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가치와 역할에 대한 기대, 정치 체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아마추어 예술인과 전문 예술인들과의 협력관계이다. 일본의 경우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존중과 자부심이 높으며 전문예술인도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협력을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 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 전문예술인 들이 사회문화센터를 통해 아마추어 예술인을 돕고 지역공동체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주민들이 생활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높으며, 예술인을 주민들과 분리된 존재가 아닌 수평적이며 협력적 관계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예술인 또한 주민들과의 교류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방식이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지원, 단체들의 지원보다는 단체들 간의 연계와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제공, 단체들과 지역공동체의 연계 강화에 지원을 함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생활문화 활동의 자율성, 독립성,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적 기금이 생활예술에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지원으로써 개개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호회 간, 동호회와 공동체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예술로서의 본질적인 활동뿐 아니라, 주민 복지와 삶의 질 증대, 교양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 활동이 예술의 진흥 차원을 넘어 문화자본의 형성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데 주목하고 있다. 복지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선진국에서 보건을 넘어 예술과 문화적 활동은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예술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와 연계된 공동체 유지와 형성에 있어서의 역능을 알고 있기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지원을 하고 있다.

(2) 국내

국내 생활문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지자체를 보면 생활문화 활동의 공공성 확보, 사회적, 복지적 관점에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었으며,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도와 시의 공간적 범위와 행정위계에 따라 생활문화정책에 차이가 있었다.

광역도의 경우 시·군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과의 연계체계를 확보하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체육회의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군별 문화코디네이터(기획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청북도는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이 체계를 통해 플랫폼 강사, 문화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기획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생활문화 정책은 예술적 관점과 함께 복지적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전라북도, 충청북도, 성남시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데 공동적인 것은 복지와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생활문화를 문화복지 관점에서 추진하였고, 성남시의 경우 지역 간 정주문화환경의 격차, 사회적인 갈등 해소 등에 대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문화의 형성과 발전의 관점에서 생활예술 정책을 추진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역 사회의 여건에 연계된 생활문화 사업기획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공에서 접근하는 최소 단위는 대부분 동호회이다. 그러나 동호회도 성격과 규모에 따라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 사적인 단체를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개별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동호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동호회 활동 보다는 동호회 활동이 지역사회에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동호회 활동의 공공성(공헌)이 강조될수록 참여 활동의 '의무' 또는 '재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며 동네와의 연계, 협력활동의 감소가 나타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공통의 고민이었다.

제 3 장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 · 사업추진현황 및 실태

1. 조사·분석의 개요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도내에 위치한 생활문화 인프라 및 정책사업 추진 현황 및 실태파악과 충남 생활문화 활동 및 정책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도민의 생활문화향유 기회확대, 삶의 질 개선, 지역문화 활성화, 충남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및 정책과제 도출에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충청남도 생활문화 관련 시설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생활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 도민과 운영자 ·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의식조사를 시행하였다.

첫째 충청남도 생활문화 관련 시설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문예회관, 공연시설, 전시시설(박물관, 전시관), 도서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화원,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영상문화시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시설별 세부 현황과 사업내용을 살펴보았다. 조사방법은 충남도내 소재하고 있는 715개소의 생활문화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관련 문헌 및 통계 데이터, 홈페이지 현황자료, 관계기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시설별 소재지, 규모, 개관년도, 운영방식, 운영인력, 사업비, 주요 생활문화 사업, 운영 프로그램, 실시 횟수 등을 조사 · 분석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는 생활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충남 도민, 생활문화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충남생활문화 활동 및 정책요구도 관련 의식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시 · 군 생활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충남도민과 관계 운영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1:1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 분석의 틀

생활문화 관련 시설의 현황 및 주요 사업 운영 실태 조사는 도내 715개소의 생활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충남의 생활문화 정책 추진 실태 및 성과에 대한 의식조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충남도민 311명과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사업추진 현황 분석의 틀

분석항목	분석내용	분석방법
현황 및 실태 조사 (715개소)	1.충청남도 생활문화 시설별 세부현황 및 운영현황	문헌자료, 통계데이터, 홈페이지 현황자료, 관계기관 내부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파악
	2.충청남도 생활문화 시설별 주요 운영프로그램 현황	
	실태조사 대상 : ①문예회관, ②공연시설, ③전시시설(박물관, 전시관), ④도서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⑤문화원, ⑥문화재단, ⑦생활문화센터, ⑧문화의집, ⑨청소년 문화의집, ⑩청소년수련관, ⑪영상문화시설(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⑫평생학습관, ⑬주민자치센터	
정책요구도 조사 (주민311명, 운영자 및 전문가 40명)	1.주민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 생활문화 활동시설, 인식, 동기 및 참여방식 - 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2.운영자 및 전문가	
	-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 여건 및 개선사항 -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2. 충남 생활문화 정책사업추진 현황 및 실태

1) 충청남도 생활문화 관련 시설 및 사업추진현황

(1) 총괄

지역문화진흥법 상 충남 시·군별 생활문화 시설 현황을 보면 약715개의 생활문화시설이 있다. 양적으로는 천안이 11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 114개소, 당진시 59개소, 보령시 55개소, 서산시 5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생활문화 활동과 관련이 높은 시설은 작은 도서관이 282개소, 문화원 16개소, 문화재단 4개소, 생활문화센터 8개소, 문화의집 7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0개소, 청소년수련관 11개소, 영상미디어센터 14개소, 작은영화관 5개소, 평생학습센터 4개소, 주민자치센터 199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어 양적으로는 작은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충남 생활문화시설 현황(2016) (단위 : 개)

구분	총계	복합문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문화원	문화재단	생활[4]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영상문화시설		평생[7]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	공[2] 연장	박물관	전시관	공공도서관	작은[3] 도서관			문화센터				영상[5] 미디어센터	작은[6] 영화관	학습센터	
충남	715	18	27	46	9	58	282	16	4	5(3)	7	10	11	14	5	4	199
천안시	117	3	7	7	2	10	50	3	1	-	-	1	2	3	-	-	28
공주시	47	1	1	9	1	4	10	1	-	-	1	1	-	1	-	1	16
보령시	55	1	1	2	1	5	24	1	-	1	1	1	1	-	-	-	16
아산시	114	1	4	6	1	6	73	1	1	1(1)	-	-	1	1	-	1	17
서산시	52	1	1	-	-	5	28	1	-	1	-	1	1	2	-	-	11
논산시	45	1	1	1	1	3	19	1	-	-	-	-	1	1	-	1	15
계룡시	11	1	1	-	-	2	2	-	-	-	1	-	-	-	-	-	4
당진시	59	1	1	4	1	4	28	1	1	(1)	1	2	-	1	-	-	14
금산군	37	1	1	4	-	5	9	1	-	1	2	1	1	-	1	-	10
부여군	34	1	2	4	-	2	6	1	-	1	-	1	-	1	-	-	15
서천군	31	1	2	-	-	2	7	1	-	-	1	1	1	1	1	-	13
청양군	24	1	1	-	-	2	8	1	-	-	-	-	-	-	1	-	10
홍성군	28	1	1	3	1	2	4	1	1	-	-	1	1	1	-	-	11
예산군	36	2	2	4	1	3	8	1	-	-	-	-	1	1	1	-	12
태안군	25	1	1	2	-	3	6	1	-	(1)	-	-	1	1	1	1	7

자료 : 1)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2)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http://www.kopis.or.kr)
3)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http://www.smalllibrary.org/)
4) 생활문화진흥원(http://www.nccf.or.kr) / (n)은 개관 예정 개수 5)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www.krmedia.org)
6) 문화체육관광부 생생정책(www.mcst.go.kr) / 7)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nile.or.kr)

(2) 시설별 세부현황 및 운영현황

가. 복합문화시설

① 문예회관

2016년 기준 충남의 문예회관 수는 총 18개소로, 전국에 분포한 문예회관 총 229개소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문예회관 운영인력은 총 157명이며, 평균 8.7명이 근무하고 있고, 아산시 평생학습관 극장 운영인력이 21명으로 가장 많다. 문예회관의 경우 생활문화시설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시설에 동호회 또는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생활문화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3〉 충남 문예회관 현황(2016) (단위 : ㎡, 명, 백만원)

시·군	시설명	규모	개관년도	운영방식	운영인력	사업비
소계	18개소	123,451			157	10,075
천안시	신부문화회관	4,867	1987	직영	5	307
	성환문화회관	4,838	1995	직영	5	307
	천안예술의전당	33,755	2012	위탁	16	588
공주시	공주문예회관	3,825	1990	직영	7	426
보령시	보령문화예술회관	6,026	2002	직영	8	804
아산시	평생학습관 극장	6,949	1992	직영	21	420
서산시	서산시 문화회관	10,718	1990	직영	12	1,084
논산시	논산시문화예술회관	2,615	1985	직영	5	114
계룡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9,462	2011	직영	17	1,307
당진시	당진문예의전당	7,585.6	2005	위탁	19	601
금산군	금산다락원	3,657	2004	직영	5	440
부여군	국악의 전당	945.3	2005	직영	3	56
서천군	문예의 전당	2,777	1989	직영	2	100
청양군	청양문예회관	5,615	2006	직영	7	807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3,066	1988	직영	8	643
예산군	예산군 문예회관	2,685	1993	직영	6	585
	충청남도문화예술회관	9,672.6	2012	직영	4	364
태안군	태안군문화예술회관	4,392	2001	직영	7	1,12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② 공연시설

기준 충남의 공연시설 수(2016년 기준)는 총 27개소로 이 중 문예회관으로 등록된 18개소를 제외하면 9개소 공연시설이 있다.

문예회관을 제외하고 지자체별 공연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 4개소, 아산시 3개소, 부여군, 서천군 각1개소가 있으며, 운영방식은 7개소가 지자체 직영, 2개소는 위탁하고 있다.

전문공연시설은 아니지만 국립부여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대강당을 조성하여 문화행사,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표 3-4〉 충남 공연시설 현황(2016) (단위:㎡,년,명,백만원)

시·군	시설명	소재지	개관년도	운영방식
소계	27개 중 9개소			
천안시	천안대학로예술극장	동남구 버들로 41 파리빌딩	2005	위탁
	천안 익스트림 아트홀	동남구 신부동 461-6 도솔빌딩 B2	2014	위탁
	천안시청 봉서홀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1995	직영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동남구 원성1동 191-3	1997	직영
아산시	아산시 보건소 별관	아산시 모종동 573-2	1998	직영
	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	아산시 시장길 29	2009	직영
	아산시여성회관	아산시 남부로 92	2013	직영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5	1993	직영
서천군	국립 해양생물자원관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2015	직영

자료 :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http://www.kopis.or.kr)

한편, 충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연시설은 천안시의 천안예술의전당(33,755㎡)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부여시의 국립부여박물관(14,483㎡), 금산군 금산다락원(12,840㎡)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연시설 공연장 규모는 대공연장(1,000석 이상) 보다는 중공연장(300석 이상~1,000석 미만), 소공연장(객석수 300석 이하)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고, 생활문화 활동에 용이한 100석 이하의 공연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서산시와 홍성군 2곳 뿐이어서, 생활문화 활동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충남 공연시설별 규모(2016)

시·군	시설명	개관 년도	연면적 (㎡)	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객석수 (개)	면적 (㎡)	객석수 (개)	면적 (㎡)	객석수 (개)	면적 (㎡)
계	27개소								
천안시	천안대학로 예술극장	2005	535	-	-	-	-	156	
	천안 익스트림 아트홀	2014						290	
	성환문화회관	1995	4,838	-	-	760	450	240	51
	천안시청 봉서홀	1995	4,424	1,051		-	-	-	-
	충남학생교육문화원	1997	6,914	1,148	637	298	388		
	신부문화회관	1987	4,867	-	-	998	922	200	307
	천안예술의전당	2012	33,755	1,642		443			
공주시	공주문예회관	1990	3,825	-	-	649	1,255	180	273
보령시	보령문화예술회관	2002	17,197	-	-	820	768	167	275
아산시	아산시 보건소 별관	1998							
	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	2009							
	아산시여성회관	2013							
	아산시 평생학습관	1992	6,949	-	-	509	858	-	-
서산시	서산시 문화회관	1990	3,626	-	-	601	979	80	162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1985	2,615	-	-	577	732	180	273
계룡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2011	9,462	-	-	784	811	200	386
당진시	당진문예의전당	2005	7,586	1,001	2,472	300	1,272	-	-
금산군	금산다락원	2004	12,840	-	-	727	2	250	246
부여군	국악의전당	1994	1,625	-	-	-	2,230	250	293
	국립부여박물관	1993	14,483						
서천군	문예의전당	1989	2,760	-	-	636	648	200	216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15							
청양군	청양문예회관	2006	5,615	-	-	727	1,321	190	261
홍성군	홍주문예회관	1988	2,982	-	-	615	1,100	100	150
예산군	예산군문예회관	1993	2,685	-	-	505	825	-	-
	충청남도문화예술회관	2012	9,672			722			
태안군	태안군문화예술회관	2001	4,392	-	-	687	2,099	168	172

자료 :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http://www.kopis.or.kr),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③ 전시시설 - 박물관/전시관

과거 박물관, 전시관(미술관)은 유물・유적을 보관하거나, 전시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었으나 관람객 감소로, 최근에 다양한 기획전시,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는 생활미술 프로그램,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박물관

2016년 기준 충남에는 총 46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국・공립 박물관 28개, 사립・대학 박물관 18개가 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공주시 9개, 천안시 7개, 아산시 6개 순이며, 이어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시에 각각 4개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충남 박물관 현황(2016)

(단위: ㎡, 년, 명, 백만원)

구분	시·군	기관명	소재지	규모 (연면적)	개관 년도	운영 인력	사업비 (2016)
총계		46개소		207,655		563	56,160
국립 (5)	천안	우정박물관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17,193	1938	2	55.6
	공주	국립공주박물관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12,103	1946	46	2,055
	부여	국립부여박물관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5	14,483	1993	43	3,501.1
	금산	칠백의총관리소	금산군 금산면 의총길 50	183.6	1976	23	1,026
	아산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48	3,104	2011	51	3,686.5
공립 (23)	천안	천안박물관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29-13	1,440	2008	11	1,257.9
		유관순기념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38	542	2003	18	439.1
		이동녕기념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4길 38	349	2010	2	43.7
	공주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공주시 국고개길 24	1,405	2006	8	800
		석장리박물관	공주시 금벽로 990	2,050	2006	7	1.014
		송산리고분군모형관	공주시 웅진로 37-2	1,314	2013	9	692.5
	보령	보령석탄박물관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08	1,800	1995	6	324.3
		보령박물관	보령시 대흥로 63	8,636	2013	19	935
	아산	외암민속관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5	602	2004	14	372
		영인산산림박물관	아산시 염치읍 아산온천로 16-30	6,043	2012	9	405.7
	논산	백제군사박물관	논산시 충곡로 311	4,471	2005	13	1,936.2

〈표 3-7〉 충남 국·공립박물관 현황(계속)

(단위: ㎡, 년, 명, 백만원)

구분	시·군	기관명	소재지	규모 (연면적)	개관 년도	운영 인력	사업비 (2016)
총계		46개소		207,655		563	56,160
공립 (23)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당진시 송악읍 안틀모시길 11	2,367	2011	3	534.3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379-9	869	2005	3	113.5
		심훈기념관	당진시 상록수길 97	703.2	2014	3	58.8
	금산	금산향토관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5	2,046	2009	-	67
		금산인삼전시관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5,396	1997	5	125.3
	부여	정림사지박물관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3,149	2006	10	480
		능산리고분군전시관	부여군 부여읍 왕릉로 61	473	1987	-	-
		백제역사문화관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8,796	2006	6	968.8
	홍성	결성농요농사박물관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 318-83	232	2004	1	27.5
		홍주성박물관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0	1,669	2011	8	445.1
	예산	윤봉길의사 기념관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1,412	2001	8	501.8
	태안	고남패총박물관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270-6	1,610	2002	2	131.1
사립 (15)	천안	독립기념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59,764	1987	124	29,353.6
		복권박물관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283	201	1997	3	-
	공주	동산박물관	공주시 반포면 정광터1길 108-8	950	2013	4	60
		공주민속극박물관	공주시 의당면 돌모루2길 17-11	700	1996	3	125.1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11-1	4,016	2004	17	1,655.8
	아산	온양민속박물관	아산시 충무로 123	6,091	1978	18	827.5
		공세리성당 박물관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성당길 10	423	2008	2	34.6
		아산정린박물관	아산시 배방읍 휴대길 142	681	2011	2	170.9
	당진	한국도량형박물관	당진시 산곡길 219-4	346	2012	4	68.4
	금산	태영민속박물관	금산군 남이면 하금평촌길 26	469	2000	4	95
	홍성	한국식기박물관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957-24	11,346	2007	7	88.4
	예산	수덕사 근역성보관	예산군 덕사면 수덕사안길 79	2,613	2000	4	70.4
		한국고건축박물관	예산군 덕산면 홍덕서로 543	2,791	1998	5	305
		한국문인인장박물관	예산군 광시면 운산2길 111-3	340	2001	6	82.4
	태안	안면도 쥬라기박물관	태안군 남면 곰섬로 37-20	2,290	2011	23	2,166
대학 (3)	천안	백석대 기독교 박물관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번지	8,720	2009	-	17.4
	공주	공주교육대 박물관	공주시 웅진로 37	426	1974	1	29.3
		공주대학교 박물관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1,047	1967	6	25.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나) 미술관

2016년 기준 충남에는 총 9개의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립 미술관 2개, 사립미술관 7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미술관은 1993년에 설립된 천안시 리각미술관이며, 가장 최근에 개설된 미술관은 2012년에 설립된 천안 예술의전당 미술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충남 미술관/전시관 현황(2016)

(단위 : ㎡, 명, 백만원)

구분	시·군	시설명	위치	규모	개관 년도	운영 인력	사업비 (2016)
총계		9개소		21,342		49	
공립 (2)	천안시	천안 예술의전당 미술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185	1,540	2012	7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61-7	1,313	2011	9	
사립 (7)	천안시	리각미술관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4-1	551	1993	5	
	공주시	임립미술관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7-10	1,830	1996	6	
	보령시	모산조형미술관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길 673-24	2,274	2003	5	
	아산시	당림미술관	아산시 송악면 와암로 1182번길 34-16	660	1997	5	
	논산시	선화기독교미술관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334-11	2,099	2001	4	426
	당진시	아미미술관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10,829	2010	5	
	예산군	수덕사 선미술관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74-4	246	2011	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3-9〉 충남 미술관/전시관 운영 프로그램 현황(2016)

시·군	시설명	프로그램
총계	9개소	
천안시	천안 예술의전당 미술관	공동기획 3회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고암미술상전, 상설전, 특별기획전, 어린이`성인아카데미 체험, 미술실기대회 개최 등
천안시	리각미술관	뒤러 동판화전 등 5회
공주시	임립미술관	소장품전(상설전 4회), 특별기획전(이돈희, 김건수), 신진작가발굴전(임미나, 천하제일미술대회 입상작 전시),제16회 향토작가초대전, 2015 제12회 공주국제미술제, 학술세미나 "미술행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 가치공유프로그램-움직이는 미술관 찾아가는전시, 직장인을 위한 교육프로

시·군	시설명	프로그램
		그램 "찾아가는미술교실" 뮤지엄페스티벌 "꿈꿈꿈을 보여줘요", 특별기획전 4인(김배희, 임립, 이택우,유병호)4색전", 토요창작아카데미, 일요미술놀이교실 , 미술특상, 문화가 있는 날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보령시	모산조형미술관	주한 대사관과 함께하는 국제문화예술제
아산시	당림미술관	기획전시,상설전시,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어린이문화학교, 방과후연계프로그램
논산시	선화기독교미술관	미술관소장작품상설전
당진시	아미미술관	ECOLE DE AMI,초등교사미술교실,어린이미술제,음악회, 다문화가정문화교실.
예산군	수덕사 선미술관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④ 도서관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충남의 공공도서관 수는 총 58개소(지자체 39개소, 교육청 19개소)로[25], 천안시가 10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아산시 6개소, 보령시와 금산군이 각 5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은 도서서비스 이용의 불편으로 독서와 정보습득보다는 공부방의 역할이 컸지만, 최근에는 개가식 서비스 제공으로 독서가 생활문화화 되고 있고 독서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독서동아리,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표 3-10〉 충남 시·군별 도서관 수(2016) (단위:개,석,명)

구분	공공(어린이도서관 포함)				열람석	인구수	인구 십만명당 도서관수	장애인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충남	58	39	19	-	16,564	2,130,337	2.7	11	11
천안시	10	7	3	-	5,777	622,836	1.6	4	4
공주시	4	2	2	-	777	113,057	3.5	2	-
보령시	5	3	2	-	1,004	107,279	4.7	-	-

25) 전국에 분포한 도서관 총 978개소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공공(어린이도서관 포함)				열람석	인구수	인구 십만명당 도서관수	장애인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아산시	6	5	1	-	928	311,143	1.9	-	4
서산시	5	3	2	-	1,618	173,715	2.9	2	1
논산시	3	2	1	-	792	127,735	2.3	1	1
계룡시	2	2	-	-	299	40,713	4.9	-	-
당진시	4	3	1	-	1,427	172,320	2.3	-	-
금산군	5	4	1	-	803	55,166	9.1	-	1
부여군	2	1	1	-	550	69,749	2.9	-	-
서천군	2	1	1	-	139	58,143	3.4	-	-
청양군	2	1	1	-	644	33,038	6.1	-	-
홍성군	2	1	1	-	301	96,463	2.1	-	-
예산군	3	2	1	-	715	85,257	3.5	1	-
태안군	3	2	1	-	790	63,723	4.7	1	1

주 : 인구십만명당 도서관 수 산출식 = 도서관 수×100,000÷(해당연도)인구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충청남도점자도서관(http://lib.cnblind.or.kr), 각 지자체별 2016 통계연보

가) 공공도서관

충남 도내 공공도서관 총 면적은 118,560㎡(1관 당 평균 204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의 두정도서관(6,663㎡), 신방도서관(5,390㎡)순의 규모로 나타났다.

〈표 3-11〉 충남 공공도서관 현황(2016) (단위: ㎡, 년, 명천원)

시·군	시설명	위치/소재지	규모 (연면적)	개관 년도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사업비 (2016)
소계	58개소		118,560			358	38,135.62
천안시	충청남도평생교육원	목천읍 충절로 843번지	12,282	2005	교육청	28	3,087.9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원성동 260-2	3,421	1994	교육청	32	2,370.8
	천안성환도서관	서북구 신선동길 25	1,346	1993	교육청	5	546.6
	신방도서관	동남구 통정4로 7	5,390	2013	지자체	3	751.6
	아우내도서관	동남구 병천2로 57	4,456	2007	지자체	8	398.3
	중앙도서관	동남구 중앙로 118	4,824	1990	지자체	5	1,305.3
	도솔도서관	서북구 불당동천안시청 2층	1,088	2008	지자체	16	363.32

시·군	시설명	위치/소재지	규모 (연면적)	개관 년도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사업비 (2016)
	두정도서관	서북구 부성3길 9	6,663	2010	지자체	4	2,202.5
	성거도서관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434	1,576	1998	지자체	7	386.1
	쌍용도서관	서북구 월봉4로 153	4,792	2002	지자체	5	1,125.7
공주시	공주도서관	영명학당2길 24-5	1,069.2	1985	교육청	5	474.3
	공주유구도서관	유구읍 중앙1길 49-17	965	1991	교육청	5	434.1
	공주시 사립도서관 강북관	월송동 현로 51	2,285	2006	지자체	5	749
	공주시 사립도서관 웅진관	고마나루길 17	2,815	1991	지자체	3	1,004.9
보령시	보령도서관	명천동 430-12	1,663	1973	교육청	5	488.5
	보령웅천도서관	방축길 90 39	1,013	1993	교육청	5	463.4
	보령공공도서관	천변북길 121	1,245.8	1996	지자체	1	636.9
	보령주산도서관	충서로 411	933	1999	지자체	4	88.6
	죽정도서관	체육관길 17	991	2015	지자체	1	411.3
아산시	아산도서관	문화로 53	1,919	1990	교육청	8	411.2
	아산시립남산도서관	온양2동 266-35	971	2006	지자체	4	373.4
	아산시립둔포도서관	둔포중앙로 161번길 27-6	1,015	1995	지자체	1	384
	아산시립배방도서관	배방면 공수리 69-1	1,490.8	1999	지자체	1	522.7
	아산시립송곡도서관	송곡남길 82 4	1,880.9	1999	지자체	2	1,154
	아산시립어린이도서관	권곡동 448-1	673.8	2006	지자체	13	508.2
서산시	서산해미도서관	서문4길12	1,175	1993	교육청	5	391
	충남서부평생학습관	동서1로41-4	2,443.1	2004	교육청	23	2,124.3
	서산시 대산도서관	대산1로78 22	874.6	1996	지자체	1	404.7
	서산시립도서관	부춘공원2로26	2,612	1995	지자체	4	1,450.1
	서산어린이도서관	서령로136	1,211	2013	지자체	10	212.2
논산시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부창동 부창로 71	4,878	1972	교육청	22	2,170.4
	논산강경도서관	강경읍 남교리 81-3	1,446.7	1994	지자체	2	288.4
	논산연무도서관	안심로 47번길 6 -11	1,511	1998	지자체	3	313.0
계룡시	계룡도서관	새터산길 27	2,740	2006	지자체	6	512.9
	엄사도서관	번영7길17	1,197	2009	지자체	5	422.2
당진시	당진도서관	서부로266	2,070	1974	교육청	5	575.6
	당진시립송악도서관	송악읍 틀모시로 840	997.6	2000	지자체	3	230.8
	당진시립중앙도서관	당진중앙2로 132-30	4,485	2009	지자체	1	1,189.2
	당진시립합덕도서관	면천로 1578 1	987	1995	지자체	8	229.2
금산군	금산도서관	금산천길 28	1,169	1989	교육청	5	468.3
	금산기적의도서관	비단로 296 13	528.5	2005	지자체	10	221.4

시·군	시설명	위치/소재지	규모 (연면적)	개관 년도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사업비 (2016)
	금산인삼고을도서관	금산로 1543	1,172	2007	지자체	2	390.0
	진산도서관	진산면 읍내리 553-1	698.3	2013	지자체	4	176.6
	추부도서관	추부면 마전리 420-8	563.7	2009	지자체	1	244.3
부여군	부여도서관	성왕로 259	986.3	1971	교육청	5	452.4
	홍산공공도서관	홍산로 77-1	930.8	2014	지자체	3	173.0
서천군	서천도서관	서천읍 군사리 176-4	866	1987	교육청	4	405.2
	서천장항공공도서관	성화로 26 2	1,084	1997	지자체	3	188.6
청양군	청양도서관	청양읍 송방리 169-1	1,601	1974	교육청	4	448.9
	정산도서관	역말길 5-5	1,762	2014	지자체	12	136.9
홍성군	홍성도서관	충절로 1050	2,596.4	1974	교육청	6	554.5
	광천공공도서관	광천로 342	1,078	1997	지자체	2	470.9
예산군	예산도서관	예중길42	1,039	1975	교육청	5	460.1
	예산군립도서관	예산읍 벚꽃로 214	1,283.2	2013	지자체	2	468.3
	예산삽교도서관	두리별리길 34	772.2	1997	지자체	4	207.3
태안군	태안도서관	원이로 20	1,681	1992	교육청	5	495.6
	태안군립중앙도서관	태안읍 백화로 184	2,773	2013	지자체	1	692.5
	태안안면도서관	장터로99 15	578	1999	지자체	6	325.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나) 작은도서관(마을문고 포함)

2016년 기준 충남에는 총 278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양적으로 작은도서관 개관수는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 관수는 아산시에 73개소, 천안시에 50개소, 서산시와 당진시 각 26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충남도에서는 시・군과 5:5 매칭 하에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6년에 3억(총6억), 2017년에는 3억2천만원(6억4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3-12〉 충남 시·군별 작은도서관 수(2016) (단위 :개)

충남 시·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연평균증가율
충남 전체 수	216	233	256	278	8.78%
천안시	0	53	58	50	-2.87%
공주시	4	5	6	10	35.72%
보령시	21	22	20	24	4.55%

아산시	54	56	65	73	10.57%
서산시	23	23	27	26	4.17%
논산시	15	17	16	19	8.20%
계룡시	1	1	0	2	25.99%
당진시	18	17	24	26	13.04%
금산군	8	7	9	9	4.00%
부여군	3	3	6	6	25.99%
서천군	13	12	4	7	-18.64%
청양군	6	7	8	8	10.06%
홍성군	2	2	4	4	25.99%
예산군	2	4	4	8	58.74%
태안군	4	4	5	6	14.47%

작은도서관은 독서운동, 계몽운동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문화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이 연계된 프로그램으로서 생활문화 활동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프로그램으로는 인형극, 연극, 미술・사진전시회, 북콘서트, 요리 등이 있다. 충남의 경우 연간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건수는 661건, 실시횟수는 6,935회, 참가자수는 63,7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문화프로그램은 프로그램 322건, 실시횟수 3,592, 참가자수 34,636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3-13〉 충남 시·군별 작은도서관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충남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독서, 문화프로그램 합계		
	프로그램 수(건)	실시 횟수 (건)	참가 자수 (명)	프로그램 수(건)	실시 횟수 (건)	참가 자수 (명)	프로그램 수(건)	실시 횟수 (건)	참가 자수 (명)
합계	339	3,343	29,119	322	3,592	34,636	661	6,935	63,755
천안시	63	314	1,734	58	348	2,456	121	662	4,190
공주시	23	219	2,181	23	130	1,380	46	349	3,561
보령시	34	464	2,752	19	252	2,068	53	716	4,820
아산시	62	610	5,636	73	1,020	7,178	135	1,630	12,814
서산시	72	531	4,518	14	136	1,683	86	667	6,201
논산시	19	160	2,208	10	71	1,004	29	231	3,212
계룡시	-	-	-	-	-	-	-	-	-
당진시	31	326	1,774	73	460	2,651	104	786	4,425
금산군	7	250	4,100	15	850	10,750	22	1,100	14,850
부여군	5	210	1,931	6	65	584	11	275	2,515
서천군	14	218	1,915	19	202	3,725	33	420	5,640

청양군	5	18	219	9	11	257	14	29	476
홍성군	4	23	151	3	47	900	7	70	1,051
예산군	6	54	549	11	117	926	17	171	1,475
태안군	1	6	12	6	29	400	7	35	412

⑤ 문화원

충남에는 총 16개의 문화원이 있으며, 천안시에 3개의 문화원이 소재하고 있고, 계룡시에는 현재 문화원이 없다[26]. 공주문화원은 충남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규모도 가장 큰 2,159㎡이며, 다음 홍성문화원 1,996㎡ 순이다.

충남에 소재한 문화원 프로그램의 연간 참여자 수는 전체 577,104명으로, 서산문화원(235,000명)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온양문화원(50,500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3-14〉 충남 문화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군	문화원명	위치	규모 (㎡)	개관 년도	운영 인력	참여자수	사업비 (2016)
소 계	16개소		14,602		54	577,104	9418.6
천안시	천안문화원	동남구 옛농고 7길 11-1	300	1954	2	16,080	60.3
	동남구 문화원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172	488	1958	1	1,304	202.3
	서북구 문화원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276	1963	3	1,580	162.7
공주시	공주문화원	대통1길 66	2,159	1954	3	28,500	620.4
보령시	보령문화원	대흥로 63	848	1956	2	50,000	298
아산시	온양문화원	온천동 남산로 28	824	1957	4	50,500	479.5
서산시	서산문화원	부춘공원 2로 11	1,883	1965	5	235,000	1,532.4
논산시	논산문화원	시민로 270	78	1964	4	37,000	1,228.5
당진시	당진문화원	남산공원길151-16	766	1955	3	50,000	394.6
금산군	금산문화원	금산읍 금산로 1559	226	1967	4	23,036	826
부여군	부여문화원	부여읍 의열로 43	1,463	1954	4	20,000	1,326.6
서천군	서천문화원	서천읍 화금서길 29-18	611	1965	3	5,000	337.1
청양군	청양문화원	청양읍 중앙로 129	571	1965	4	1,512	364.9
홍성군	홍성문화원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1,996	1965	4	40,000	524.1
예산군	예산문화원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1,137	1955	4	3,966	492.8
태안군	태안문화원	태안읍 남산1길 85	976	1990	4	13,626	568.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6) 설립 역사가 가장 깊은 문화원은 천안문화원과 공주문화원으로 각각 195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각 지역 향토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원에서는 매년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제별로는 전통과 역사, 대상별로는 노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특징이며, 세부프로그램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5〉 충남 문화원 프로그램현황(2016)

시·군	문화원명	프로그램
소 계	16개소	
천안시	천안문화원	산약초반, 전통다도예절, 어르신문화시조창, 청소년봉사활동, 도서대여, 동양철학명리학, 사이버운영 등
	천안시동남구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단오축제, 백일장사생대회, 백전씨름대회 등
	천안시서북구문화원	문화프로그램, 향토민속발굴, 천안의구비설화, 교양강좌, 음악회, 미술전시회, 글, 그림, 휘호대회 등
공주시	공주문화원	공주문화 발간, 향토민속발굴사업,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 지역문화학교 운영, 청소년 및 시민문화유적답사,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우리조상알기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등
보령시	보령문화원	해맞이, 신년하례회, 3.1만세운동기념식, 문화유적답사, 추석맞이전통민속체험, 우리고장바로알기 교양강좌, 오감보령 강좌, 김좌진장군 추모제향, 청소년 미술대전,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한내돌다리밟기 민속행사, 문화학교 운영, 작품전시회 등
아산시	온양문화원	신년하례회, 맹정승축제, 4.4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 어르신 문화학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향토민속발굴사업, 생활문화한마당, 지역특성화사업, 문화탐방, 문화강좌,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등
서산시	서산문화원	서산의 숨결발간, 지역문화학교운영,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문화유적현장학습, 지역문화특성화사업, 백제사신로와 닷개포구 학술조사, 향토민속발굴,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노인일자리사업, 작은도서관운영, 서산시평생학습축제 등
논산시	논산문화원	새해인사회, 정월대보름맞이민속한마당, 시민과함께하는문화유산탐방, 회원정기답사, 훈련소모범장병문화관광탐방, 와초작은문학제, 논산시여행과함께하는 훈련소견학, 도지사배민속제전참가, 가족백일장및애향사생대회, 논산시청소년문화제, 논산시어르신장기대회, 논산시서예휘호대회, 시민과함께하는작은음악회, 시와음악이어우러지는자리, 조선시대과거제논산향시, 독서의달독후감공모전, 달빛음악회, 양촌휴양림작은음악회, 어르신문화학교(3), 인문학탐방, 논산지역의언어조사, 논산의옛길과 그문화2, 청소년서적충절의고장논산발간, 논산문예집발간, 논산문화발간, 시민의날음악회 외 14건 공연주관 등
당진시	당진문화원	문화학교강좌, 향토문화유적탐방, 찾아가는 문화탐방, 당진문화 발간사업, 지역특성화사업, 지역문화자원발굴사업, 어르신일자리사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당진사랑 역사문화탐방 등

금산군	금산문화원	삶꽃문화사랑운동, 금산대보름축제, 비단고을산꽃축제, 금강여울축제, 금산문화예술제, 문화소모임동아리활동, 문화학교 등
부여군	부여문화원	부여서동연꽃축제, 백제역사문화탐방시티투어,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 등
서천군	서천문화원	기벌포대보름제, 학술연구사업, 성씨뿌리찾기 사업, 기벌포문화제, 문화서천발간, 향토민속발굴사업, 문화강좌, 지역문화특성화사업, 어르신문화동아리사업, 초대작가전, 청소년백일장, 충남학강좌, 고 박권수 추모유작전, 민예품 전승지원사업,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어르신문화활동가양성사업, 농촌작은문화교실 등
청양군	청양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문화가족동아리운영, 칠갑산장승문화축제, 어르신문화학교 등
홍성군	홍성문화원	문화학교,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전통성년식, 우리문화 탐방, 함께하는 문화공간, 만해추모다례, 거리영화제, 관현악단 활동지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홍성문화발간 등
예산군	예산문화원	백제부흥군 위령제, 추사 추모 전국휘호대회, 지역문화특성화사업 등
태안군	태안문화원	태안향토지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태안역사문화학술발표회, 지방문화원특성화사업, 어르신문화학교, 자염축제, 태안군어린이동요대회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⑥ 문화재단

2016년 기준 충남에는 광역단위의 충남문화재단(홍성군)과 기초단위의 천안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등 총 4개의 문화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산문화재단이(2008년)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다음으로 천안문화재단(2012년), 당진문화재단(2013년), 충남문화재단(2014년)의 순으로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기초 문화재단에서는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과 지역민 생활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단위 문화재단인 충남문화재단의 경우 직접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7년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표 3-16〉 충남 지역 문화재단 현황

시·군	문화재단 명	개관년도	생활문화 관련 주요사업
총계	4개소		
천안시	천안문화재단	2012	·한뼘미술관(동호회 및 지역작가 전시 무료대관) ·찾아가는 예술무대(지역주민 및 생활문화동아리 공연 등) ·예술의 전당 문화센터(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사업, 청년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천안문화예술 뱅크 구축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교류회 운영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2008	·문화예술공작소 운영(바스락전시실, 뽐나게 연습실, 아장아장책놀이터, 은행나무광장카페, 도란도란 커뮤니티실 등) ·은행나무아카데미운영(캘리그라피, 미술치료 등) ·문화예술교육사업(아산온궁오케스트라 운영) ·꿈다락토요문화학교(꼬마작곡가 교육 시행)
당진시	당진문화재단	2013	·생활 속 예술지원(당진문화동아리 주간사업, 당진문화동아리 역량강화사업, 당진시민오케스트라 등) ·시민예술교육지원(음악, 미술, 무용, 문학 등 시민문예아카데미 운영)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그림자극, 화합연극) ·꿈다락토요문화학교(연극, 보컬, 댄스 등 강좌 시행)
홍성군	충남문화재단	2014	·문화예술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도민의 문화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음악, 문화예술체험, 미술, 댄스, 국악 등)

자료 : 재단별 각 홈페이지(2017)

⑦ 생활문화센터

2016년 기준 충남에는 총 5개의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아산시, 당진시, 태안군 등 3개소가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 충남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에 설립된 서산시 서산 생활문화센터이며, 가장 최근에 개설된 미술관은 2016년에 설립된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다.

충남 총 8개의 생활문화센터 중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아산시 배방읍 복지회관, 서산 생활문화센터만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시설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었는데, 웅천생활문화센터는 웅천읍사무소, 온양문화원 생활문화센터는 온양문화원, 금산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는 금산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다.

개관 예정인 당진시, 태안군의 생활문화센터 또한 기존의 문화원에 설립될 예정이며, 아산 배방읍에 위치하게 될 생활문화센터는 아산 배방읍 복지회관에 설립될 예정이다.

〈표 3-17〉 충남 생활문화센터 현황(2016)

시·군	센터명	위치	개관년도	운영방식	비고
총계	8개소(예정3개소)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웅천읍 장터중앙길 88	16년	직영	
아산시	온양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남산로 28	15년	위탁	
	아산 배방읍 복지회관	-	예정	직영	
서산시	서산 생활문화센터	호수공원 1로 22	14년	직영	
당진시	당진문화원	읍내동 50-6	예정	위탁	
금산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금산읍 방아동 4길 17	15년	위탁	
부여군	부여 생활문화센터	부여읍 의열로 43	16년	위탁	
태안군	태안문화원	태안읍 백화로 192	예정	위탁	

자료 : 생활문화진흥원(http://www.nccf.or.kr)

5개소의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내용을 다음표와 같다.

〈표 3-18〉 충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현황(2016)

시·군	센터명	프로그램
소 계	8개소(예정3개소)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서예교실, 한글교실, 청소년프로그램 등
아산시	온양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노래교실, 해금, 색소폰, 통기타, 독서, 라인댄스, 판소리, 거북선밴드, 풍물, 우쿠렐레, 오카리나
	아산 배방읍 복지회관	**개관 예정**
서산시	서산 생활문화센터	북아트, 음악회, 풍선아트, 리본공예, 생활다도 등
당진시	당진문화원	**개관 예정**
금산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색소폰, 요가, 댄스스포츠, 생태교육지도사, 아토피상담사, 태보, 줌바댄스, 다이어트복싱, 7080합창, 영화토론, 비단뫼합창, 드럼, 시화로만나는청춘, 북아트, 수납전문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충남학, 문화예술교육사, 리본공예, 줌바댄스, 핸드드립, 청소년바리스타, 우쿨렐레, 책읽는놀이터, 친환경놀이, 우리아이키성장프로그램, 생초보통기타 등
부여군	부여 생활문화센터	키즈북카페, 청소년 문화공간 등
태안군	태안문화원	**개관 예정**

자료 : 생활문화진흥원(http://www.nccf.or.kr)

⑧ 문화의집/청소년 문화의집

가) 문화의집

2016년 기준 충남에는 총 7개의 문화의집이 있으며, 금산군에 2개소, 공주시, 보령시, 당진시, 계룡시, 서천군에 각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 반면,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에는 문화의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문화의집은 보령시와 당진시에 각각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후 금산문화의집이 2000년, 추부문화의집이 2003년에 설립 되었다.

충남 문화의집 총 면적은 3555.51㎡(1관 당 평균 507.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주시의 유구문화의집(932.1㎡), 금산군의 추부문화의집(877.61㎡)순의 규모를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의집 운영은 7개 중 4개소(공주, 보령, 계룡, 서천)는 지자체 직영이며, 3개소(당진, 금산 2곳)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00년에 개관된 금산문화의집은 2015년부터 금산생활문화센터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3-19〉 충남 문화의집 현황(2016)

(단위: ㎡,명,천원)

시·군	문화원명	위치	규모	개관 년도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사업비 (2016)
소 계	7개소		3555.5			17	588,170
공주시	유구문화의집	유구읍 백교리 82-6	932.1	2006	직영	1	17,000
보령시	주산문화의집	주산면 충서로 411	485.0	1999	직영	2	75,730
당진시	당진문화의집	읍내동 남산공원길 151-16	710.8	1999	위탁	1	30,000
계룡시	계룡문화의집	신도안면 신도안2길 59	130.0	2005	직영	3	61,158
금산군	추부문화의집	추부면 하마전로 31	877.6	2003	위탁	3	379,132
	금산문화의집	금산읍 방아동4길 17	330.8	2000	위탁	5	150
서천군	서천문화의집	서천읍 군사리 356	89.2	2005	직영	2	25,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3-20〉 충남 문화의집 상설 프로그램현황(2016)

시·군	센터명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수	이용자수 (명)
공주시	유구문화의집	실버댄스스포츠	1	2,149

보령시	주산문화의집	풍물교실, 노래교실, 난타교실, 건강체조교실, 웰빙댄스교실	5	100
당진시	당진문화의집	영어서당, 수채화(5반), 유화, 민요장구, 연필인물화, 건강택견체조, 고전무용, 풍수지리	12	25,000
계룡시	계룡문화의집	서예, 어린이글쓰기 및 스피치, 양재, 가야금, 에어로빅, 퀼트, 사고력수학1, 사고력수학2, 요가, 벨리, 플루트, 오카리나, 홈패션	13	600
금산군	추부문화의집	아동벨리, 미술, 헬스동아리, 오보에, 플룻, 드럼, 클라리넷, 바이올린1반, 바이올린2반,첼로,호른, 트럼펫, 트럼본, 오케스트라,어르신 합창, 어르신요가, 어린이발레, 성인노래교실,성인민요,기타강좌,유아댄스, 어린이 합창, 토요학교, 올키즈스트라, 손길프로그램, 필라테스, 청소년댄스,나눔봉사단, 청소년 벤드	30	34,000
	금산문화의집	색소폰초. 중급반, 요가1.2반, 댄스스포츠, 생태교육지도사, 아토피상담사, 태보, 줌바댄스, 비단뫼합창, 다이어트복싱오전.오후반, 우리아이키성장프로그램, 7080합창, 영화토론, 통기타초.중급반, 비단뫼합창, 드럼, 시화로만나는청춘, 북아트, 수납전문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충남학, 문화예술교육사, 리본공예, 줌바댄스, 핸드드립, 청소년바리스타, 우쿨렐레, 책읽는놀이터, 친환경놀이, 우리아이키성장프로그램, 생초보통기타	35	500
서천군	서천문화의집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3-21〉 충남 문화의집 상설프로그램 외 프로그램현황(2016)

시·군	센터명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수	이요자수(명)
공주시	유구문화의집	-	-	-
보령시	주산문화의집	-	-	-
당진시	당진문화의집	-	-	-
계룡시	계룡문화의집	-	-	-
금산군	추부문화의집	글짓기 및 그리기대회, 청소년문화탐방, 내 꿈을 펼쳐라, 금난새 예술감독님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추부도서관*문화의집 프로그램 어울림 마당,동아리 축제.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제2차 청소년 문화탐방, 인사동및 광화문일대 문화탐방, 금산군 자원봉사자 대회,오케스트라공연,청소년 캠프4회, 10주년 추억의	21	41,500

		갤러리,문화의집이전 노인잔치, 음악회5회,등		
	금산문화의집	청소년꿈나래 페스티벌, 시골길 라디오 콘서트, 청소년 꿈보따리 페스티벌, 조손가족 힐링캠프, 생활문화축제, 마을문화리더 문화캠프, 문화읽는놀이터, 청소년난타, 청소년챔버오케스트라	9	450
서천군	서천문화의집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3-22〉 충남 문화의집 동아리 현황(2016)

시·군	센터명	동아리		
		동아리명	동아리수	총회원수(명)
공주시	유구문화의집	탁구교실, 서예교실	2	60
보령시	주산문화의집	-	-	-
당진시	당진문화의집	-	-	-
계룡시	계룡문화의집	-	-	-
금산군	추부문화의집	아동벨리,치어리더, 미술,스텝, 헬스, 오보에, 플룻, 드럼, 클라리넷, 바이올린, 호른, 트럼펫, 트럼본, 오케스트라우쿠렐레,기타, 합창,	25	420
	금산문화의집	댄스스포츠비너스, 소나무밴드, 8비트밴드, 통기타 알파, 통기타시나브로, 영화동아리'마실', 5분스피치, 노래교실,요가교실, 남산색소폰동호회, 커피동호회, 인삼골쎄시봉합창, 비단뫼합창, 친환경놀이, 금산문학회, 다복(원투원투), 생태교육지도사, 아토피상담사, 금산사진클럽	19	245
서천군	서천문화의집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나) 청소년문화의집

2016년 기준 충남에는 총 10개의 청소년 문화의집이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시에 2개소가 있고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청소년문화의집은 1999년에 설립된 부여군 부여 청소년 문화의집이며, 가장 최근에 개설된 청소년문화의집은 2013년에 설립된 금산군 금산군미래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총 10개의 청소년문화의집 중 천안시 천안 청소년문화의집, 당진시 당진 청소년문화의집, 금산군 금산군미래센터만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시설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3-23〉 충남 청소년 문화의집 현황(2016)

(단위: ㎡, 명, 천원)

시·군	문화원명	위치	규모	개관 년도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사업비 (2016)
소 계	10개소						
천안시	천안 청소년 문화의집	동남구 중앙로 118	814.2	2000	직영		
공주시	공주 청소년문화센터	대통1길 57		2006	위탁		
보령시	보령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원길11		2005	위탁		
서산시	서산 청소년 문화의집	해미면 성지3길 33	1,121	2006	위탁	6	
당진시	합덕 청소년 문화의집	합덕읍 문화길 39		2005	위탁		
	당진 청소년 문화의집	당진시 무수동 7길		2009	직영		
금산군	금산군 미래센터	금산읍 인삼로 17		2013	직영		
부여군	부여 청소년 문화의집	부여읍 의열로 43		1999	위탁		
서천군	서천 청소년문화센터	서천읍 남산길 176		2011	위탁		
홍성군	홍성 청소년 문화의집	홍성읍 문화로 33번길		2002	위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충남도청(www.chungnam.go.kr)

〈표 3-24〉 충남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현황(2016)

시·군	기관명	프로그램
천안시	천안 청소년 문화의집	생크림 데코덴 거울 꾸미기, 파라코드 매듭 팔찌 만들기, 레진 공예로 목걸이 만들기, 우리 가족 다육화분만들기, 가족소망 메시지 캔들 만들기 등
공주시	공주 청소년문화센터	배트민턴, 유기견 자원봉사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청소년이 만드는 청소년신문, 진로탐색활동, 청소년 프리마켓, 치유의 밥상 로컬푸드 등
보령시	보령 청소년문화의집	도예교실, 티테라피, 오색한지 전통문화, 닥종이인형 체험, 드럼교실, 기타교실, 방송댄스, 바둑교실, 과학교실, 토이페이퍼 그라프트, POP, 점핑클레이, 캘리그라피, 초코아트, 핸드페인팅, 비누만들기 등
서산시	서산 청소년 문화의집	쿠키교실, 명랑체육교실, 스포츠스태킹, 탁구교실, 두드림교실, 주산교실, 방송댄스교실, 녹색환경지킴이, 대학입시관련 강좌 등
당진시	합덕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학특별체험, 청소년 토요문화체험, 청소년 문화 활동 체험 등
	당진 청소년 문화의집	창의적 체험활동, 신나는 발명캠프, 천문대 별자리 캠프 등
금산군	금산군 미래센터	초등체험강좌, 진로체험활동, 스포츠활동, 역사사랑활동, 자기계발 활동 등
부여군	부여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어울림마당
서천군	서천 청소년문화센터	우쿨렐레 교실, 통기타교실, 밸리댄스, 청소년밴드, 펄러비즈, 창의미술, 젤리플라워, 방송댄스, 공예교실, 난타교실, 풋살, POP, 탁구, 국악교실 등
홍성군	홍성 청소년 문화의집	-

자료 : 충남도청(www.chungnam.go.kr)

⑨ 청소년 수련관[27]

2016년 기준 충남에는 총 11개의 청소년 수련관이 위치하고 있으며[28], 논산시 청소년 수련관, 금산군다락원 청소년 수련관, 태안군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외 8개 수련원은 위탁 운영되고 있다.

규모별로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359,000㎡), 금산 다락원 청소년 수련관(25,193㎡), 논산시 청소년 수련관(3993㎡),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3602㎡)순으로 크다.

〈표 3-25〉 충남 청소년 수련관 현황(2016)

(단위: ㎡, 명, 천원)

시·군	문화원명	위치	규모	개관 년도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사업비 (2016)
소 계	11개소						
천안시	천안시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1	359,000	1987	위탁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3,602	2012	위탁		
보령시	보령시청소년수련관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00			위탁		
아산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 시민로 500			위탁		
서산시	서산시청소년수련관	서산시 서령로 136			위탁		
논산시	논산시청소년수련관	논산시 논산대로 424	3,993	2000	직영	8	
금산군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	금산읍 금산로 1559	25,193	2004	직영		
서천군	서천청소년 수련관	장항읍 장항산단로 34번길 72-40			위탁		
홍성군	홍성군청소년수련관	홍성읍 문화로 33번길 33			위탁		
예산군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위탁		
태안군	태안군청소년수련관	태안읍 동문리 백화로 199			직영		

자료 : 천안시태조산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cayouth.or.kr), 천안시청소년수련관(www.youth.ac), 보령시 청소년 수련관(byc.brsisul.or.kr),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www.smartyouth.co.kr), 서산시청소년수련관(youth.seosancwc.or.kr), 논산시청소년수련관(www.nonsan.go.kr/youth), 금산다락원청소년수련관(www.daragwon.net), 서천청소년수련관(www.scvision.or.kr), 홍성군청소년수련관(www.hsytc.or.kr),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yesanyouth.or.kr), 창의인성교육넷(http://www.crezone.net)

27)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청소년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는 시설이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28) 충남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청소년 수련원은 1987년에 설립된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며, 가장 최근에 설립된 수련관은 2012년에 설립된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충남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현황(2016)

시·군	센터명	프로그램
소 계		
천안시	천안시태조산 청소년수련관	태조산등산학교, 태조산캠핑, 상상모꼬지, 상상봉사활동, 리더십아카데미, 프리마켓, 과학놀이터 등
	천안시청소년 수련관	방송댄스교실, 탁구교실, 창의미술, 우쿨렐레, 통기타교실, 바리스타교실, 파티쉐 교실 등
보령시	보령시청소년 수련관	수련활동, 간부수련, 신입생OT, 극기체험, 단위활동, 천체관측, 태양관측, 망원경 조작 체험, 천문과학 캠프 등
아산시	아산시청소년 교육문화센터	한자 자격증반, 주산교실, 서예교실, 바둑 교실, 기타교실, 방송댄스, 농구교실, 발레교실, 가야금교실, 드럼교실 등
서산시	서산시청소년 수련관	꽃비누 만들기, 스포츠스태킹, 방송댄스교실, 탁구교실, 농구교실, 축구교실, 레고교실, 드론교실, 과학교실 등
논산시	논산시청소년 수련관	성장댄스, 스텝박스, 음악줄넘기, 탁구, 풋살, 뉴스포츠, 클라이밍, 서예, 한국화, 활동미술, 우쿨렐레, 바이올린, 오카리나, 한자교실, 한국사교실, 논술교실 등
금산군	금산다락원 청소년 수련관	드럼반, 암산과 주산교실, 한자자격증교실, POP, 통기타 교실 등
서천군	서천청소년 수련관	요리교실, 오케스트라, 영상교실, 랩 교실, 자전거동아리, 환경동아리, 밴드동아리, 리더십함양프로그램, 진로 리더십 캠프, 간부수련회 등
홍성군	홍성군청소년 수련관	드론교실, 석고방향제, 요리교실, 종이접기, 바둑교실, 밸리댄스, 초콜릿아트, 토탈공예, 피구교실, 농구교실, 체조교실, 펄러비즈, 가죽공예,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예산군	예산군청소년 수련관	HAPPY HOUSE 인테리어, 미니가구 꾸미기, 천연비누 만들기, 폼아트 교실, 토피어리, 손바느질, 통기타 교실, 보컬트레이닝, 드럼교실, 만화교실 등
태안군	태안군청소년 수련관	만화스케치, 요술풍선, 카이로봇, 한지공예, DIY 냅킨공예,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자료 : 천안시태조산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cayouth.or.kr), 천안시청소년수련관(www.youth.ac), 보령시 청소년수련관(byc.brsisul.or.kr),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www.smartyouth.co.kr),서산시청소년수련관(youth.seosancwc.or.kr), 논산시청소년수련관(www.nonsan.go.kr/youth),금산다락원청소년수련관(www.daragwon.net),서천청소년수련관(www.scvision.or.kr), 홍성군청소년수련관(www.hsytc.or.kr), 예산군 청소년수련관(yesanyouth.or.kr), 창의인성교육넷(http://www.crezone.net)

청소년수련관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는 수련, 교류, 문화예술, 상담, 자원봉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참여위원회, 지역중심 청소년동아리지원,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⑩ 영상문화시설

가) 영상미디어센터

충남 지역에 영상미디어센터는 총 2개(2016년 기준)가 있으며, 천안시, 서천군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서산시에서 서산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 중에 있는데 18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다.

〈표 3-27〉 충남 영상미디어센터 현황(2016)

(단위: ㎡, 명, 백만원)

시·군	센터명	위치	규모	개관년도	운영방식	운영인력	사업비(2016)
소 계	3개소						
천안시	천안 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원성동 261-18	962	08	직영		560
서천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장항읍 장항로145번길 30		14	위탁		297

자료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www.krmedia.org)

〈표 3-28〉 충남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현황(2016)

시·군	센터명	프로그램
소 계	3개소	
천안시	천안 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제작지원, 교육, 상영, 홍보, 마을미디어, 경영지원,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등
서천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라디오 네트워킹, 미디어교육, 창작 지원 및 커뮤니티 지원, 문화시설 운영, 생활문화사업, 연구, 출판, 계간지, 자문위원회, 마을 미디어 대회 등

자료 :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업무보고 p3,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2016년 운영계획안 p17

〈표 3-29〉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주요사업

기능별	사업 내용
제작지원	- 장비대여 사업, 디지털 자료변환 사업 운영 - 제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영상제작 동아리, 대학생 연합 상영회, 비채영상제작공작소 운영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대외협력 업무
교육	- 영상미디어 제작관련 유·무료교육 운영 -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상교육 운영 - 청소년 영상교육 관련 국비사업 유치 및 운영, 공간 대여사업
상영	- 천안여성영화제 기획 및 운영 - 정기 및 공동체 상영사업 기획 및 운영, 특별전 개최 및 아카이브 구축·관리 - 찾아가는 상영 프로그램 운영
홍보	- 비채 대내·외 홍보운영
마을미디어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운영 - 천안영상대전 개최
경영지원	-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진행 - 예산・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세무감사, 도/시 행정사무감사 수감 - 센터 자체 수입관리 및 각종 세금신고 - 시설 유지보수 관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천안)	- 연간 219일 이상 독립영화 유, 무료 상영 - 정기 및 기획 상영 운영

자료 :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업무보고, p. 3.

〈표 3-30〉 2015년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주요사업 내용

목표	구분	내용	비고
소통활성화 (소통활동 촉진/ 소통역량 습득 및 강화)	라디오 네트워킹	-지역 자원 간 라디오 교육 및 제작단 구성	-계층별 사업(청소년/여성/노인 대상)
	미디어 교육	-협력기관, 단체 진행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 -적극적 홍보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공격적 마케팅 추진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영상, 음성, 텍스트, 사진 포함 (지역순화경제센터 등 다양한 주체들과 매칭)
	창작 지원 및 커뮤니티 지원	-시설 지원 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커뮤니티 활성화	-청소년 제작 활성화 지원 발굴·홍보/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성(2016년 목표: 여성, 청소년

		(영화커뮤니티)	중심)/지역주민의 참여 촉진을 위한 권한 부여
문화향유 권 확대	문화시설 운영	-전시회 상설화	-공간 업그레이드 등 추진 -자유학기제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전시 프로그램 개발
	생활 문화 사업	-문화카페 운영	-영화 사업, 마을 기업 등의 사업과 연계 모색
		-영화사업: 다양성 및 문화적 향유권 강화 사업/찾아오는 영화관, 찾아가는 영화관(기벌포 영화관 등과 연계 추진) -작은영화제: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소규모 영화제 운영	-기벌포영화관의 어린이 동반자 대기 영화 상영, 어른 동반자 어린이 위탁 영화 상영 사업 등 고려
		-음악문화사업(별악프로젝트)	-2015년 별악프로젝트의 성과를 이어나가는 사업 기획 및 운영
R&D	연구	-서천군미디어문화모델 개발 (작은영화관 융합형 미디어센터 모델-운영 위주로)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모법인과 연계해 연구
	출판	-교재 출판 -연구보고서 발간	-모법인의 연구팀과 함께 수행
미디어 문화 거버넌스 강화	계간지	-4회의 소통 계간지 발간	-계간지 발행비 분담을 통해 내실화 추진
	자문 위원회	-미디어 및 영화 전문가·지역 전문가, 계층·연령별 지역민으로 구성된 자문위 운영	
	마을 미디어 대회	-전국마을미디어대회(가칭) 제1회 개최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2016년 운영계획안, p. 17.

나) 작은영화관

작은영화관은 총 2개(2016년 기준)가 조성되어 있으며,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3개소는 설립예정에 있다. 운영방식은 서천기벌포영화관은 직영이며, 예산 시네마는 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작은영화관은 주민들에게 영화관람을 통한 문화향유에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아직 운영 초기라 생활문화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

〈표 3-31〉 충남 작은영화관 현황(2016)

(단위: ㎡, 명, 천원)

시·군	센터명	위치	규모	개관 년도	운영 방식	사업비 (2016)
소 계	5개소					
서천군	서천 기벌포 영화관	장항읍 장항로 145번길 30	339	16	직영	2,000
예산군	예산 시네마	예산읍 천변로160		17	위탁	1,000
금산군	금산 작은 영화관	금산읍 하옥리 335-1	473	예정	위탁	1,000
청양군	청양 작은 영화관	청양읍 칠갑산로 221	368	예정	위탁	1,000
태안군	태안 작은 영화관	태안읍 백화로 192	277	예정	위탁	1,68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생생정책(www.mcst.go.kr)

⑪ 평생학습관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기관 4개소, 지자체별 학습관(센터)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표 3-32〉 충남 평생학습관 현황(2016)

(단위: ㎡, 명, 백만원)

시·군	센터명	위치	규모	개관 년도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사업비 (2016)
총계	14개소						
천안시	충청남도 학생교육문화원	동남구 옛농고 1길 41		97	교육청	16	
	충청남도 평생교육원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43	12,282	05	교육청		
	천안시 평생학습센터	동남구 중앙로 118		07	직영		
공주시	공주시 평생학습관	봉황로 1			직영		
아산시	아산시 평생학습관	남부로 92	1,454	06	직영	16	
서산시	서산시 평생학습센터	고운로 177		05	직영		
	충남 서부평생학습관	동서 1로 41-4	6,552	04	교육청	25	
논산시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부창로 71	2,470	01	교육청	22	
당진시	당진시 평생학습관	당진중앙1로 59		12	직영		
부여군	부여군 평생학습관	부여읍 성왕로 360	1,325	17	직영		
서천군	서천군 평생학습센터	서천읍 군청로 57		10	직영	6	
홍성군	홍성군 평생학습센터	홍성읍 남장리 221-1			직영	5	
예산군	예산군 평생학습센터	예산리 사직로 33			직영		
태안군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태안읍 백화로 180	2,967	17	직영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nile.or.kr)

〈표 3-33〉 충남 평생학습관 프로그램현황

시·군	센터명	프로그램
천안시	천안시 평생학습센터 *천안성환도서관 통합운영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찾아가는 평생학습, 재능나눔아카데미, 충남학, 천안시민대학, 도솔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화상영어 등
공주시	공주시평생학습관 *금산도서관 통합운영	몸펴기운동, 초급영어, 풍물교실, 컴퓨터교실, 웃음치료, 우리춤 체조, 우리글방, 생활요가, 시조교실, 건강체조, 기타교실,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건강댄스, 스마트폰 활용, 문화인교실, 서예교실, 문인화교실 등
보령시	보령시 평생학습센터 *보령도서관, 보령웅천도서관 통합운영	행복학습매니저양성과정, 인지활동지도사 과정, 잠수기능사, 갈등관리상담사/협상전문가 자격과정,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웹툰창작강좌 등
아산시	아산시 평생학습관 *아산도서관 통합운영	생활일본어회화, 생활영어회화, 생활중국어회화, 영어회화문법, 온라인쇼핑몰창업, 전산세무, 컴퓨터기초활용, 컴퓨터활용능력, 한글, 파워포인트, 네일아트, 프랑스자수, 재테크, 오카리나, 우드버닝, 한지공예, 동화구연지도자과정, 리본아트, POP, 독서토론토의지도사과정, 바리스타, 토털공예, 학습코칭지도사과정, 라떼아트, 스피치, 부동산공경매, 포토샵 등
서산시	충남서부평생학습관 *서산해미도서관 통합운영	독서교실, 학부모성격유형검사 MBTI, 가족 소통 프로젝트, 도예교실, 바둑교실, 키즈밸리댄스, 주산수리셈, 영어연극, 과학교실, 손뜨개 교실, 오카리나, 항공드론, 레고교실, 3D 프린팅＆3D모델링, 역사교실, 난타교실 등
논산시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리듬 줄넘기, 스포츠스태킹, 어린이요가, 어르신 인형극단, 진로진학 길잡이, 청소년 코딩, 만다라 교육, 신비로운 마술교실, 창의 수학과학 교실, ITQ 파워포인트, ITQ한글 등
당진시	*당진도서관 통합운영	진로체험, 종이접기, 보드게임, 자기소개서 쓰기, 아트 큐빅공예, 한식조리기능사 과정, 이혈요법, 웰빙댄스, 요가, 서예, 난타, 기체조, 기공체조, 건강체조, 가요, 한글교실 등
금산군	*금산도서관 통합운영	스파트폰활용교육, 그림책놀이지도사 과정, 한자교실, 역사교실, 캘리그래피, 생활일본어, 요가, 독서교실 등
부여군	부여군 평생학습관 *부여도서관 통합운영	도예교실, 전래놀이, 대입제도 교육, 바디다이어트 요가,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과학교실, 글쓰기 교실, 독서교실 등

시·군	센터명	프로그램
서천군	서천군 평생학습센터	코딩교실, 요리교실, 우쿨렐레, 오카리나, 바둑, 항공과학교실, 주산식 암산교실, 중국어교실, 영어회화교실, 전통민요교실, 유화교실, 바이올린교실, 수채화교실, 재활용리폼공예지도사 과정, 생활과학교실 등
청양군	청양군 평생학습센터 *청양도서관 통합운영	중국어, 동화구연지도자 과정, 동양고전, 독서교실, 연극,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등
홍성군	홍성군 평생학습센터 *홍성도서관 통합운영	성인문해교육, 유산지도사 과정, 마인드맵지도사 과정, 플로리스트, 경제교육, 세계사교육, 창의수학, 요리교실, 하모니카, 팬플룻, 만돌린, 오카리나, 프랑스자수, 아로마 테라피, 캔버스 아트, 세밀화, 스트레칭, 영어회화, 역사강좌, 천연화장품, 토탈공예 등
예산군	예산군 평생학습센터 *예산도서관 통합운영	우쿨렐레, 정보화 교육, 전통민화 그리기, 원예치료, 캘리그라피, 가죽공예, 꽃꽂이, 하모니카, 풍선아트, 댄스스포츠, 동화구연, 통기타, 한지공예, 우리 문화유산 지도사, 데코플라워 등
태안군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태안도서관 통합운영	가족 과학교실, 경기민요, 사물놀이, 사진교실, 유화, 판소리, 다도교실, 서각교실, 가야금교실, 설장구, ITQ파워포인트, 한글 2010, 제빵교실, 엑셀2010, 한지공예, 스마트폰, 문해교육사, 평생교육지도자양성, POP예쁜손글씨 등

자료 :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https://www.cnall.or.kr), 천안시 평생학습센터(http://www.cheonan.go.kr/lll), 아산시 평생학습관(http://life.asan.go.kr/_kor/index.asp)보령시평생학습센터(http://www.brcn.go.kr/life.do),서천군평생학습센터(http://life.seocheon.go.kr/), 홍성군 평생학습센터(http://www.hongseong.go.kr/prog/euc/lll/sub05_01/list.do),

⑫ 주민자치센터

2016년 기준 충남에는 있는 총 207개의 읍면동 중 193개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193개소 중 21개소는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자치센터, 주민회관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활동으로서 ①주민자치, ②문화여가, ③지역복지, ④주민편익, ⑤시민교육, ⑥노후준비 등의 6개 분야에 총 1,74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여가분야의 프로그램이 1,250개(7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충남 주민자치센터 현황(2016)

(단위:개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수				명칭사용실태						
계	읍	면	동	계	읍	면	동	계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자치센터	주민회관	기타
207	24	137	46	193	21	129	43	193	172	0	4	14	2	1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충청남도 내부자료

〈표 3-35〉 시·군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현황(2016)

(단위:개)

구분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노후준비
합계	**1741**	**205**	**1250**	**150**	**42**	**94**	**0**
천안시	371	36	259	42	6	28	0
공주시	120	18	81	13	2	6	0
보령시	134	11	101	14	3	5	0
아산시	206	26	157	9	6	8	0
서산시	139	50	77	6	3	3	0
논산시	93	0	92	0	0	1	0
계룡시	77	4	65	1	1	6	0
당진시	117	16	76	10	0	15	0
금산군	78	0	68	2	0	8	0
부여군	79	5	59	8	5	2	0
서천군	48	6	23	6	6	7	0
청양군	54	10	32	11	0	1	0
홍성군	83	10	60	10	2	1	0
예산군	83	3	64	12	3	1	0
태안군	59	10	36	6	5	2	0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충청남도 내부자료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은 1,638,807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763,661명 중 5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6〉 충남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 현황(2016)

(단위:개,명)

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주민참여현황(명)		비고
	프로그램(개)	횟수/주당	시간/회당	1회 평균	연인원	
전체 프로그램	1,666	3,706	4,258	66,734	2,763,661	
문화여가 프로그램 합계	1,165	2,262	2,323	34,407	1,638,807	
천안시	259	494	507	13,727	506,862	
공주시	79	142	137	1,641	95,849	
보령시	106	174	185	3,068	89,970	
아산시	149	287	316	3,619	270,387	
서산시	77	129	141	1,249	117,034	
논산시	92	174	193	2,316	225,056	
계룡시	50	78	99	782	13,458	
당진시	76	115	139	1,617	44,857	
금산군	83	73	107	1,613		
부여군	62	142	173	1,342	61,113	
서천군	23	30	47	648	24,040	
청양군	32	39	64	531	27,612	
홍성군	60	312	117	1,389	63,477	
예산군	64	102	99	1,565	72,485	
태안군	36	44	109	912	26,607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충청남도 내부자료

문화・여가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생활문화, 생활스포츠로 구성이 되며, 생활문화부분은 생활예술, 생활기술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3-37〉 충남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 프로그램현황(2016)

시·군	프로그램
천안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노래교실**, **오카리나**, **난타**, 댄스스포츠, 요가, 게이트볼, 건강댄스, **농악**, **POP**, **풍물교실**, **통기타**, 줌바댄스, **한지공예**, **청소년 방송댄스**, **서예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 배드민턴교실 등

시·군	프로그램
공주시	**노래교실**, 실버댄스, **풍물교실**, 홈패션교실, 요가, 댄스스포츠, **난타**, 족구, 배드민턴, **두레풍물**, 배드민턴, **전통무용**, **민요가락풍물단**, 국선도, 경혈건강학, 에어로빅교실, **탁구교실** 등
보령시	**노래교실, 풍물교실, 서예교실, 색소폰 교실**, 건강체조,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국화재배, 윤회매교실, 탁구교실, 요가교실, **서각교실**, 스포츠댄스교실 등
아산시	요가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통기타교실**, 헬스, 탁구교실, 밸리댄스, 에어로빅, 방송댄스, **서예교실, 사군자교실, 풍물교실**, 태극권, **뜨개질교실**, 게이트볼, **서각, 꽃꽂이교실** 등
서산시	줌바댄스, 요가, **캘리그라피**, 스포츠댄스, **생활중국어**, **소묘**, **민요교실**, **바둑교실**, **풍물교실**, 탁구교실, 체력단련실, **사진교실**, **전통무용교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논산시	에어로빅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스포츠댄스, 요가교실, **풍물교실**, 노인건강체조, **농악교실**, **지와바리**, **기타교실**, 웰빙댄스교실, 노인에어로빅, 파워에어로빅, **웃음치료** 등
계룡시	요가교실, **노래교실**, 라인댄스, 필라테스,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난타**, 건강마사지, **플롯**, **서예**, **전통민화**, **들꽃자수**, **닥종이**, **한지공예**, **우크렐레**, **퀼트**, **홈패션**, 양재, **프랑스자수**, 부동산경공매, **가야금**, **색소폰** 등
당진시	**문인화**, 댄스스포츠, **통기타**, 요가, 다이어트댄스, 요가교실, **지끈공예**, **POP디자인, 문예화교실**, **오카리나**, **노래교실**, 탁구교실, 족구교실, 테니스교실, 배구교실, 게이트볼 등
금산군	요가, **영어회화**, **서예**, **색소폰**, 스포츠댄스, **재즈댄스**, **가야금병창**, **경기민요**, **통기타**, **난타**, **농악**, **문인화**, 탁구, **노래**, **사물놀이**, **사진**, 아동밸리, **미술**, 이혈,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등
부여군	**서예교실**, **시조교실**, **오카리나교실**, **풍물교실**, **민요교실**, **논어교실**, **다도교실**, **통기타교실**, **서예교실**, **드럼교실**, **색소폰교실**, 건강체조, 탁구교실, 웰빙댄스교실 등
서천군	**노래교실**, **서예교실**, **비즈공예**, 요가교실, 체력단련실, **색소폰교실**, **통기타교실**, **난타교실**, **생활목공예교실**, 비인행복기원제, **주민자치학습발표회**, **관광지 연계 여름음악회** 등
청양군	**노래교실**, **한국화반**, **농악반**, **서예반**, **통기타**, **아코디언**, **풍물교실**, **서예한자교실**, **한지공예교실**, **성명학교실** 등
홍성군	요가교실, 생활건강체조교실, 웰빙댄스교실, **노래교실**, 댄스스포츠교실, **풍물교실**, **민요교실**, 배구교실, 필라테스, **난타교실**, **한자**, **합창**, **한문서예** 등
예산군	국선도, **기타**, **노래교실**, **난타**, 요가, **수채화**, **문인화**, 밸리댄스,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하모니카**, 도인체조, 복장단교실, 라인댄스 등
태안군	기타교실, 라인댄스, **사물**, **난타**, **오카리나**, **풍물**, **캘리그라피**, **노래교실**, 웰빙댄스, 요가교실, **풍물교실**, **공예교실**, **색소폰교실**, **드럼교실** 등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충청남도 내부자료

〈표 3-38〉 주민자치사업 예산 현황(2017)

(단위:백만원)

시·군	주민자치센터(읍면동 포함) 지원					주민자치 시책사업			읍면동 지원 사업비	그 외	비고
	계	운영비	참석 수당	강사 수당	기타	계	도비	시·군비			
합계	10,576	1,894	1,680	5,319	1,682	380	110	270	924	139	
천안시	1,642	375	183	925	158	14	7	7	49		
공주시	618	72	163	357	26	30	6	24	6	5	
보령시	516	64	77	299	76	10	5	5	20		
아산시	1,309	286	102	762	159	12	6	6		22	
서산시	1,739	398	170	525	646	20	5	15			
논산시	813	17	94	599	104	50	25	25	486	16	
계룡시	462	114	28	261	59	6	3	3			
당진시	927	62	440	352	73	85	25	60	250	33	
금산군	360	10	10	280	60	8	4	4		9	
부여군	280	90	0	135	55	10	5	5		40	
서천군	344	118	64	82	80	10	3	7			
청양군	493	96	210	173	14	18	4	14	17		
홍성군	418	56	36	284	41	25	4	21			
예산군	320	45	53	177	45	8	4	4	74		
태안군	335	91	51	108	85	74	4	70	22	14	

자료 : 충청남도, 2017 주민자치센터 사업 예산현황, 충청남도 내부자료

2017년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읍면동 포함) 지원예산은 총 10,567백만원, 주민자치 시책사업 총 380백만원, 읍면동 지원사업비 924백만원, 그 외 139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시설운영 현황 종합

법상으로 제시된 생활문화시설로서 충청남도에는 약715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생활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시설유형으로는 총9개로 ①문화원, ②주민자치센터, ③생활문화센터, ④(청소년)문화의집, ⑤미술관, ⑥(공공, 작은)도서관, ⑦평생학습센터, ⑧청소년 수련관, ⑨문화재단 등이었다.

시설별 현황실태를 정리하면, 대표적인 시설로서 문예회관・공연장은 전문공연시설로서 대부분 생활문화 활동에 공간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전시시설로서는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 박물관의 경우 박물 보존・전시 위주로 생활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미술관의 경우는 미술 관람객 확보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미술교실, 문화학교, 음악회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충남의 경우 서비스 수준이 전국대비 낮은 편에 있다.

문화원의 경우 지역 편차가 있지만 일정 시설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공주, 서산, 부여, 홍성, 예산문화원의 경우 생활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전통과 역사, 대상별로는 노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총 5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생활문화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집은 7개소가 있고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노후화 개선,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 관점에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으나, 서비스 변화와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동・읍소재지에 분포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충남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 간의 정보교류 연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만족도,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수준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9〉 생활문화시설별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추진 실태

구분		시설현황 (개소)	생활문화 정책 및 사업추진현황	비고
총계		715		
복합문화	문예회관	18	·생활문화 활동에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부대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활발하지 못함	
공연시설	공연장	27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은 제공하고 있음 ·소공연장 규모가 대부분 100㎡ 이상으로 생활문화 활동에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전시시설	박물관	46	·대부분의 시설이 박물 보존·전시 위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미술관 (전시관)	**9**	·찾아가는 미술교실, 문화학교, 음악회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제공	
도서관	**공공도서관**	**58**	·평생학습센터와 연계된 생활문화프로그램 제공	
	작은도서관	**282**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문화원		**16**	·주제별, 대상별로 다양한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단		**4**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생활문화센터		**5**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문화의집		**7**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10**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관		**11**	·생활문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	
영상문화시설	영상미디어센터	14	·조성 초기(서천)로서 생활문화 프로그램 도입 시도	
	작은영화관	5	·영화관람 중심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평생학습센터		**4**	·도서관과 통합운영을 통해 생활문화 프로그램 제공	
주민자치센터		**199**	·생활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3. 충남 생활문화 활동 및 정책요구도 조사

1) 의식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의식조사는 충남 생활문화 정책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충남도민 및 관련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충남 생활문화 진흥과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충남 생활문화 정책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을 위해 1차적으로 충남도내의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집, 평생교육원을 이용하고 있는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2차적으로는 충남생활문화 정책을 바탕으로 생활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문화재단, 시·군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평생교육 진흥원, 마을만들기센터의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3-40〉 의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 충남 생활문화 진흥과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	
조사대상	•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충남도민	
	• 충남 도내 생활문화시설 운영자	
조사기간	• 2017년 9월 11일 ~ 9월 18일(8일간)	
조사방법	• 1:1면접조사 및 자기기입방식	
조사내용	주민	- 생활문화 활동시설, 인식, 동기 및 참여방식 - 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운영자	-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 여건 및 개선사항 -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3) 조사 내용 및 방법

가.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주민 대상 의식조사의 경우 ①생활문화 활동시설, 인식, 동기 및 참여방식, ②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활동상태, ③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④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로 구성하고 이용자이며 수요자로서 느끼는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충남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운영자 및 전문가 대상 의식조사의 경우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 여건 및 개선사항, 생활문화 활동이 주민에게 주는 효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로 구성하여 운영자로서 바라보는 생활문화시설 운영실태와 충남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방향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나.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전문 면접원이 투입되어 1:1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8일간 진행되었다.

생활문화 시설 이용 주민의 경우 동, 읍, 면지역별 인구수 대비 설문표본수를 설정하여 총 311부의 유효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생활문화시설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의 경우 각 운영시설별 규모 대비 설문표본수를 설정하여 총 40여부의 유효 표본이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충남 생활문화 진흥과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 의식 분석

(1) 일반사항 -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소득 등

가. 성비·연령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192명으로 61.7%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이 11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8.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25.1%(78명)로 가장 높았으며, 50세 이상이 20.9%(65명), 60대가 18.3%(57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41〉 응답자 성비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남자	85	39.4	34	35.8	**119**	**38.3**
여자	131	60.6	61	64.2	**192**	**61.7**
합계	216	100.0	95	100.0	311	100.0

〈표 3-42〉 응답자 연령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0대~20대	26	12.0	4	4.2	30	9.6
30대	36	16.7	8	8.4	44	14.1
40대	**57**	**26.4**	21	22.1	**78**	**25.1**
50대	46	21.3	19	20.0	**65**	**20.9**
60대	31	14.4	**26**	**27.4**	**57**	**18.3**
70대 이상	20	9.3	17	17.9	37	11.9
합계	216	100.0	95	100.0	311	100.0

나. 직업

직업은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활용이 자유로운 **'가정주부'가 28.0%(8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서비스업'이 26.4%(82명), 직장인 25.7%(80명) 등의 순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3-43〉 응답자 직업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직장인	**67**	**31.0**	13	13.7	**80**	**25.7**
자영업/서비스업	46	21.3	**36**	**37.9**	82	26.4
가정주부	60	27.8	27	28.4	**87**	**28.0**
학생	24	11.1	4	4.2	28	9.0
무직/은퇴자	19	8.8	15	15.8	34	10.9
합계	216	100.0	95	100.0	311	100.0

다. 거주지 및 거주기간

응답자들의 거주지의 경우 동, 읍, 면지역별 인구수 대비 표본수를 설정하였기에 인구규모가 가장 큰 **'천안시'** 거주자의 응답비율이 **15.4%(48명)**로 제일 많으며, 공주시와 금산군이 13.5%(4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4〉 응답자 거주지

구분		동·읍 지역	면 지역	합계	구분		동·읍 지역	면 지역	합계
공주시	빈도(명)	**42**	0	42	예산군	빈도(명)	19	0	19
	비율(%)	**19.4**	0.0	13.5		비율(%)	8.8	0.0	6.1
금산군	빈도(명)	19	**23**	42	천안시	빈도(명)	**48**	0	**48**
	비율(%)	8.8	**24.2**	13.5		비율(%)	**22.2**	0.0	**15.4**
논산시	빈도(명)	23	0	23	청양군	빈도(명)	0	**24**	24
	비율(%)	10.6	0.0	7.4		비율(%)	0.0	**25.3**	7.7
부여군	빈도(명)	0	**24**	24	태안군	빈도(명)	0	**24**	24
	비율(%)	0.0	**25.3**	7.7		비율(%)	0.0	**25.3**	7.7
서산시	빈도(명)	23	0	23	홍성군	빈도(명)	19	0	19
	비율(%)	10.6	0.0	7.4		비율(%)	8.8	0.0	6.1
아산시	빈도(명)	23	0	23	합계	빈도(명)	216	95	311
	비율(%)	10.6	0.0	7.4		비율(%)	100.0	100.0	100.0

응답자의 거주지를 동, 읍, 면지역별로 살펴보면 **45%(140명)가 동지역에서 거주**하며, 읍지역이 30.5%(95명), 면지역이 24.4%(7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5〉 응답자의 동·읍·면별 거주지역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동지역	**140명**	**45.0%**	읍지역	95명	30.5%	면지역	76명	24.4%

생활문화시설 이용자 거주기간의 경우, 응답자의 **약 93.5%**가 **5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72.3%(225명)가**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거주자**였으며,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응답한 주민은 21.2%(66명)였다.

〈표 3-46〉 응답자 거주기간

구분	합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빈도(명)	311	1	2	17	66	**225**
비율(%)	100.0	0.3	0.6	5.5	21.2	**72.3**

라. 소득

생활문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충남도민의 월평균 개인소득 수준은 **'소득 없음'** 이 **48.9%(15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백만원 이하'** 가 **26.7%(8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개인소득 문항에서 '소득없음' 이 가장 높게 나타 난 이유는 응답자의 직업 중 '가정주부' 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표 3-47〉 응답자 개인 소득

구분		소득 없음	1백만원 이하	2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4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합계
동·읍지역	빈도(명)	**102**	30	**48**	20	13	3	216
	비율(%)	**47.2**	13.9	**22.2**	9.3	6.0	1.4	100.0
면지역	빈도(명)	**50**	**15**	13	13	3	1	95
	비율(%)	**52.6**	**15.8**	13.7	13.7	3.2	1.1	100.0
합계	빈도(명)	**152**	45	**61**	33	16	4	311
	비율(%)	**48.9**	14.5	**19.6**	10.6	5.1	1.3	100.0

〈표 3-48〉 응답자 가구 소득

구분		소득 없음	1백만 원 이하	2백만 원 이하	3백만 원 이하	4백만 원 이하	5백만 원 이하	6백만 원 이하	7백만 원 이하	9백만 원 이하	합계
동·읍 지역	빈도(명)	1	14	43	50	**68**	31	6	3	0	216
	비율(%)	0.5	6.5	19.9	23.1	**31.5**	14.4	2.8	1.4	0.0	100.0
면지역	빈도(명)	2	16	26	**29**	15	6	0	0	1	95
	비율(%)	2.1	16.8	27.4	**30.5**	15.8	6.3	0.0	0.0	1.1	100.0
합계	빈도(명)	3	30	69	79	**83**	37	6	3	1	311
	비율(%)	1.0	9.6	22.2	25.4	**26.7**	11.9	1.9	1.0	0.3	100.0

(2) 생활문화 활동시설, 인식, 동기 및 참여방식 - 인식, 이용 빈도, 활동 계기, 활동의 주된 목적, 활동 방식, 동반자, 애로사항, 접근성 및 이용시간 등

가.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충남의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생활문화**란 **'문화예술 관람'** 이라는 응답이 **50.7%(249명)**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에서 나아가 문화강좌 참여' 21.6%(106명), '문화예술 작품 창작, 만들기 등의 참여적 문화활동' 13.8%(6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9〉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합계	빈도(명)	338	153	491
	비율(%)	100.0	100.0	100.0
문화예술 관람	빈도(명)	**175**	**74**	**249**
	비율(%)	**51.8**	**48.4**	**50.7**
문화예술 관람에서 나아가 문화강좌 참여	빈도(명)	**71**	**35**	106
	비율(%)	**21.0**	**22.9**	21.6
문화예술 작품 창작, 만들기 등의 참여적 문화활동	빈도(명)	**54**	14	68
	비율(%)	**16.0**	9.2	13.8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계발, 교류 등 광의의 문화활동	빈도(명)	32	**24**	56
	비율(%)	9.5	**15.7**	11.4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활 속에서 하는 문화활동	빈도(명)	6	6	12
	비율(%)	1.8	3.9	2.4

나. 이용 빈도가 높은 생활문화 시설

생활문화 시설 중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 시설 순으로 1~5순위까지 각각의 시설명을 기입하게 한 결과, 충남도민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생활문화시설은 **(지방)문화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0〉 이용빈도가 높은 생활문화시설 우선순위

순위	동·읍지역	총점[29](점)	순위	면지역	총점(점)	순위	합계	총점(점)
1	**(지방)문화원**	**480**	**1**	**(지방)문화원**	**212**	**1**	**(지방)문화원**	**694**
2	**생활문화센터**	**373**	**2**	**주민자치센터**	**180**	**2**	**생활문화센터**	**555**
3	**문예회관**	**251**	**3**	**생활문화센터**	**85**	**3**	**주민자치센터**	**383**
4	공연장	238	4	마을회관	80	4	문예회관	306
5	평생학습센터(관)	224	5	노인복지회관	80	5	공연장	296
6	주민자치센터	202	6	공연장	58	6	평생학습센터(관)	279
7	도서관	179	7	평생학습센터(관)	55	7	도서관	214
8	박물관(기념관)	121	8	문예회관	55	8	노인복지회관	177
9	노인복지회관	97	9	사회복지관	50	9	박물관(기념관)	157
10	사회복지관	62	10	문화의집	42	10	마을회관	113

다. 생활문화 활동 계기(또는 매체)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문화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 관심'이 32.2%(10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의 권유·소개' 29.9%(93명), 가족의 권유·소개 17.0%(5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방송(TV,라디오 등)의 소개' 2.6%(8명), '인터넷·SNS 등을 통해' 1.6%(5명)** 등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층이 40~50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SNS등의 활용이 낮은 것으로 생각 된다.

29) 1~5순위에 응답 된 각 항목별 생활문화시설 개수 빈도에 1순위(5점)-2순위(4점)-3순위(3점)-4순위(2점)-5순위(1점)으로 가중치를 두어 총점을 산출함

〈표 3-51〉 생활문화 활동 계기(또는 매체)

생활문화 활동 계기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합계	빈도(명)	216	95	311
	비율(%)	100.0	100.0	100.0
개인적 관심	빈도(명)	**74**	26	**100**
	비율(%)	**34.3**	27.4	**32.2**
가족의 권유·소개	빈도(명)	34	19	**53**
	비율(%)	15.7	20.0	**17.0**
친구의 권유·소개	빈도(명)	63	**30**	93
	비율(%)	29.2	**31.6**	29.9
기관 또는 동호회 권유·소개	빈도(명)	11	9	20
	비율(%)	5.1	9.5	6.4
공공(문화)기관의광고(플랭카드, 전단, 영상 등)	빈도(명)	22	10	32
	비율(%)	10.2	10.5	10.3
방송(TV, 라디오 등)의 소개	빈도(명)	7	1	8
	비율(%)	3.2	1.1	2.6
인터넷·SNS 등을 통해	빈도(명)	5	0	5
	비율(%)	2.3	0.0	1.6

라. 생활문화 활동의 주된 목적(목표)

생활문화 활동의 주된 목적을 중요도 순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여가시간 보내기 및 활용’ 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창작(표현)활동 참여’ 2순위, ‘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증진’ 3순위, ‘친목형성, 대인 교류 및 공동체성 제고’ 4순위, ‘자기계발, 문화시민으로서 역량 개발’ 5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2〉 생활문화 활동의 주된 목적(목표)

생활문화 활동의 주된 목적	중요도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평균 (순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창작(표현)활동 참여	빈도(명)	76	**113**	54	36	32	3.53 (2순위)
	비율(%)	24.4	**36.3**	17.4	11.6	10.3	
여가시간 보내기 및 활용	빈도(명)	**124**	66	58	45	18	**3.74** (1순위)
	비율(%)	**39.9**	21.2	18.6	14.5	5.8	
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증진	빈도(명)	47	71	**87**	60	46	3.04 (3순위)
	비율(%)	15.1	22.8	**28.0**	19.3	14.8	
친목형성, 대인 교류 및 공동체성 제고	빈도(명)	43	32	70	**102**	64	2.63 (4순위)
	비율(%)	13.8	10.3	22.5	**32.8**	20.6	
자기계발, 문화시민으로서 역량 개발	빈도(명)	21	29	42	68	**151**	2.03 (5순위)
	비율(%)	6.8	9.3	13.5	21.9	**48.6**	

마. 생활문화 활동 방식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방식 중 해당 되는 항목을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중 생활문예술 관람 향수(관람)에 해당하는 **'문화예술행사(이벤트)관람'**이 44.5%(23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좌(강의 프로그램) 참여' 39.5%(208명), '동호회 활동' 11.2%(59명) 순으로 나타났고, 창작, 전시에 해당하는 '문화예술행사(이벤트) 작품공연 및 전시'의 경우 4.8%(25명)만이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53〉 생활문화 활동 방식

생활문화 활동 방식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합계	빈도(명)	380	146	526
	비율(%)	100.0	100.0	100.0
강좌(강의 프로그램) 참여	빈도(명)	**152**	**56**	**208**
	비율(%)	**40.0**	**38.4**	**39.5**
동호회 활동	빈도(명)	45	14	59
	비율(%)	11.8	9.6	11.2
문화예술행사(이벤트) 관람	빈도(명)	**168**	**66**	**234**
	비율(%)	**44.2**	**45.2**	**44.5**
문화예술행사(이벤트) 작품공연 및 전시	빈도(명)	15	10	25
	비율(%)	3.9	6.8	4.8

바. 생활문화 활동 동반자

생활문화 활동 동반자로서는 **'친구(연인 포함)' 가** 26.2%(10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네·마을 주민'이 17.6%(68명), '개인(혼자서)'이 15.8%(6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4〉 생활문화 활동 동반자

생활문화 활동 동반자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합계	빈도(명)	268	118	386
	비율(%)	100.0	100.0	100.0
개인(혼자서)	빈도(명)	**49**	12	61
	비율(%)	**18.3**	10.2	15.8
가족(친척 포함)	빈도(명)	40	18	58
	비율(%)	14.9	15.3	15.0
친구(연인 포함)	빈도(명)	**79**	**22**	101
	비율(%)	**29.5**	**18.6**	26.2
동네, 마을 주민	빈도(명)	27	**41**	68
	비율(%)	10.1	**34.7**	17.6
직장 동료	빈도(명)	16	5	21
	비율(%)	6.0	4.2	5.4
동호회	빈도(명)	45	14	59
	비율(%)	16.8	11.9	15.3
공동 관심사를 가진 일반인	빈도(명)	12	6	18
	비율(%)	4.5	5.1	4.7

사. 생활문화 활동 애로사항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 또는 불편사항을 항목별로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비용이 많이든다'**가 **16.2%**(23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문화 정보가 부족하다'** 16.1%(231명), '생활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하다' 15.6%(225명), '시설·장비 등이 불편하다' 14.8%(2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5〉 생활문화 활동 애로사항

생활문화 활동 애로사항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합계	빈도(명)	975	464	1439
	비율(%)	100.0	100.0	100.0
시간이 부족하다	빈도(명)	154	64	218
	비율(%)	15.8	13.8	15.1
비용이 많이 든다	빈도(명)	159	74	233
	비율(%)	**16.3**	**15.9**	**16.2**
교통(접근)이 불편하다	빈도(명)	97	79	176
	비율(%)	9.9	**17.0**	12.2
시설, 장비 등이 불편하다	빈도(명)	145	68	213
	비율(%)	14.9	**14.7**	14.8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	빈도(명)	99	44	143
	비율(%)	10.2	9.5	9.9
생활문화 정보가 부족하다	빈도(명)	164	67	231
	비율(%)	**16.8**	**14.4**	**16.1**
생활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빈도(명)	157	68	225
	비율(%)	**16.1**	**14.7**	**15.6**

아.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및 이용시간

생활문화 시설(공간)에 대한 적정 접근성 및 접근시간으로는 **'20분 이내'** 53.1%(165명), 거리로는 **'300m 이내'** 30.2%(94명)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6〉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시간

구분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40분 이내	합계
동·읍지역	빈도(명)	40	**116**	55	5	216
	비율(%)	18.5	**53.7**	25.5	2.3	100.0
면지역	빈도(명)	22	**49**	24	0	95
	비율(%)	23.2	**51.6**	25.3	0.0	100.0
합계	빈도(명)	62	**165**	79	5	311
	비율(%)	19.9	**53.1**	25.4	1.6	100.0

〈표 3-57〉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거리

구분		100m 이내	200m 이내	300m 이내	400m 이내	600m 이내	기타	합계
동·읍지역	빈도(명)	8	41	**69**	44	53	1	216
	비율(%)	3.7	19.0	**31.9**	20.4	24.5	0.5	100.0
면지역	빈도(명)	3	15	25	25	**27**	0	95
	비율(%)	3.2	15.8	26.3	26.3	**28.4**	0.0	100.0
합계	빈도(명)	11	56	**94**	69	80	1	311
	비율(%)	3.5	18.0	**30.2**	22.2	25.7	0.3	100.0

생활문화시설 적정 이용시간으로는 **오전 시간대**가 **'10:00시'** 에 **시작**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비율이 **44.4%(13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료**시간은 **'11:00시'** 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45.0%(14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후** 시간대 에서는 **'19:00시' 에 시작**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24.4%(7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료시간**은 **'22:00시'** 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28.0%(8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기입한 각각의 생활문화시설 적정 이용시간을 평균으로 나타낸 결과 오전 이용시간은 9.4시~11.3시, 오후 이용시간은 5.5시~7.9시가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8〉 생활문화시설 적정 시간 - 오전

오전 시작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오전 종료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7시	빈도(명)	5	1	6	8	빈도(명)	3	0	3
	비율(%)	2.3	1.1	1.9		비율(%)	1.4	.0	1.0
8시	빈도(명)	15	8	23	9	빈도(명)	3	1	4
	비율(%)	6.9	8.4	7.4		비율(%)	1.4	1.1	1.3
9시	빈도(명)	91	**45**	136	10	빈도(명)	11	17	28
	비율(%)	42.1	**47.4**	43.7		비율(%)	5.1	17.9	9.0
10시	빈도(명)	**99**	39	138	11	빈도(명)	**101**	**39**	140
	비율(%)	**45.8**	41.1	44.4		비율(%)	**46.8**	**41.1%**	45.0
11시	빈도(명)	6	2	8	12	빈도(명)	98	38	136
	비율(%)	2.8	2.1	2.6		비율(%)	45.4	40.0	43.7
합계	빈도(명)	216	95	311	합계	빈도(명)	216	95	311
	비율(%)	100.0	100.0	100.0		비율(%)	100.0	100.0	100.0

〈표 3-59〉 생활문화시설 적정 시간 - 오후

오후 시작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오후 종료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1시	빈도(명)	3	5	8	3시	빈도(명)	3	8	11
	비율(%)	1.4	5.3	2.6		비율(%)	1.4	8.4	3.5
2시	빈도(명)	24	16	40	4시	빈도(명)	9	10	19
	비율(%)	11.1	16.8	12.9		비율(%)	4.2	10.5	6.1
3시	빈도(명)	13	8	21	5시	빈도(명)	15	9	24
	비율(%)	6.0	8.4	6.8		비율(%)	6.9	9.5	7.7
4시	빈도(명)	20	15	35	6시	빈도(명)	28	15	43
	비율(%)	9.3	15.8	11.3		비율(%)	13.0%	15.8	13.8
5시	빈도(명)	5	2	7	7시	빈도(명)	3	3	6
	비율(%)	2.3	2.1	2.3		비율(%)	1.4	3.2	1.9
6시	빈도(명)	**52**	14	66	8시	빈도(명)	35	9	44
	비율(%)	**24.1**	14.7	21.2		비율(%)	16.2	9.5	14.1
7시	빈도(명)	51	**25**	76	9시	빈도(명)	54	**23**	77
	비율(%)	23.6	**26.3**	24.4		비율(%)	25.0	**24.2**	24.8
8시	빈도(명)	47	10	57	10시	빈도(명)	**69**	18	87
	비율(%)	21.8	10.5	18.3		비율(%)	**31.9**	18.9	28.0
9시	빈도(명)	1	0	1	합계	빈도(명)	216	95	311
	비율(%)	0.5	0.0	0.3		비율(%)	100.0	100.0	100.0
합계	빈도(명)	216	95	311					
	비율(%)	100.0	100.0	100.0					

(3) 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 생활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현재 활동 장르 및 유형, 향후 활동장르 및 유형, 개선사항 등

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응답자 모두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생활문화시설'의 경우 42.8%(133명)가 '만족'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경우도 '만족'이 43.4%(13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생활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60〉 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7점 척도)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점)
생활문화 시설	동·읍지역	빈도(명)	-	-	-	11	87	**90**	28	216	5.63
		비율(%)	-	-	-	5.1	40.3	**41.7**	13.0	100.0	
	면지역	빈도(명)	-	-	-	5	32	**43**	15	95	**5.72**
		비율(%)	-	-	-	5.3	33.7	**45.3**	15.8	100.0	
	합계	빈도(명)	-	-	-	16	119	**133**	43	311	5.65
		비율(%)	-	-	-	5.1	38.3	**42.8**	13.8	100.0	
생활문화 프로그램	동·읍지역	빈도(명)	-	-	1	12	82	**88**	33	216	5.65
		비율(%)	-	-	0.5	5.6	38.0	**40.7**	15.3	100.0	
	면지역	빈도(명)	-	-	0	4	34	**47**	10	95	**5.66**
		비율(%)	-	-	0.0	4.2	35.8	**49.5**	10.5	100.0	
	합계	빈도(명)	-	-	1	16	116	**135**	43	311	5.65
		비율(%)	-	-	0.3	5.1	37.3	**43.4**	13.8	100.0	

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생활문화의 장르 및 유형을 떠오르는 순서대로 5개씩 기입하게 한 결과 **'영화(영상포함) 미디어 관람'** 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국악·전통 예술관람'**, **'연극관람'** 이 뒤를 이었다.

충남도민이 생활문화 활동 유형은 **'생활예술에 대한 향유, 관람'** 유형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61〉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우선순위

순위	동·읍지역	총점 30) (점)	순위	면지역	총점 (점)	순위	합계	총점 (점))
1	**영화(영상포함)미디어관람**	**266**	**1**	**국악,전통 예술관람**	**101**	**1**	**영화(영상포함)미디어관람**	**522**
2	**연극 관람**	**163**	**2**	**연극 관람**	**73**	**2**	**국악,전통 예술관람**	**243**
3	**국악전통예술 관람**	**142**	**3**	**영화(영상포함)미디어관람**	**73**	**3**	**연극관람**	**236**
4	음악교육/무용교육	119	4	음악교육/무용교육	64	4	음악(악기,노래)교육	183
5	박물관 관람	110	5	요가 참여	54	5	음악회관람	154
6	음악회 관람	109	6	음악	48	6	박물관관람	147
7	음악	94	7	음악회 관람	45	7	음악(연주,노래 등)	142
8	문학행사 관람	77	8	박물관 관람	37	8	요가	125
9	요가 참여	71	9	문학행사 관람	30	9	문학행사참여	107
10	전시회 관람	70	10	전시회 관람	30	10	전시회관람(미술,사진등)	100

다. 향후 활동하고자 하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도민이 향후 활동하고 싶은 생활문화의 장르 및 유형을 떠오르는 순서대로 5개씩 기입하게 한 결과 현재 활동과 유사한 **‘영화(영상포함)미디어 관람’, ‘연극관람’**, **‘국악·전통 예술관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2〉 향후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우선순위

순위	동·읍지역	총점[31] (점)	순위	면지역	총점 (점)	순위	합계	총점 (점))
1	**연극 관람**	**189**	**1**	**국악·전통예술관람**	**99**	**1**	**영화(영상포함)미디어관람**	**229**
2	**영화(영상포함)미디어관람**	**168**	**2**	**요가 참여**	**77**	**2**	**연극관람**	**221**
3	**음악교육/무용교육**	**121**	**3**	**국악전통예술(사물놀이등)**	**76**	**3**	**국악·전통예술관람**	**200**
4	생활공예 교육	119	4	영화 관람	61	4	요가	173
5	커피관련 교육	101	5	음악	55	5	음악(악기,노래)교육	153
6	국악전통예술 관람	101	6	연극 관람	54	6	생활공예 관련교육	144
7	요가 참여	96	7	음악교육/무용교육	43	7	음악(연주,노래 등)	140
8	문학행사 관람	87	8	음악회 관람	43	8	커피관련교육	133
9	음악	85	9	생활공예 참여	36	9	생활공예(금속,도자기등)	118
10	생활공예 참여	82	10	제과제빵 교육	33	10	국악·전통예술(사물놀이등)	116

향후 활동하고자 하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과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선호도에 따라 가중치 점수를 부여할 때는 **‘생활공예관련교육’, ‘커피관련교육’, ‘생활공예’, ‘제과제빵교육’** 등 직접참여 하여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생활기술 참여, 교육’ 등의 활동에 대한 응답도가 증가하였다.**

30) 1~5번의 기입란에 응답자가 떠오른 순서대로 기입한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빈도에 1번(5점)-2번(4점)-3번(3점)-4번(2점)-5번(1점)으로 가중치를 두어 총점을 산출함

31) 1~5번의 기입란에 응답자가 떠오른 순서대로 기입한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빈도에 1번(5점)-2번(4점)-3번(3점)-4번(2점)-5번(1점)으로 가중치를 두어 총점을 산출함

라.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생화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충남 생활문화 시설 이용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개선시급성이 **‘높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개선시급성에 대한 응답에 점수[32]를 부여하여 분석 한 결과,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4.18점)**’**과 **‘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4.18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4.13점)**’**,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4.11점)**’**,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4.07점)**’ 의** 순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3〉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동읍·면 비교)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평균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4.06	**4.22**	4.11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4.17	4.20	**4.18**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4.07	4.06	4.07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4.18**	4.17	**4.18**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4.05	4.00	4.04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3.89	3.85	3.88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4.04	3.93	4.01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3.89	4.04	3.94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3.84	3.86	3.85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3.90	3.98	3.9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3.86	3.79	3.8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4.12	4.15	4.13

32) 5점 척도로 매우낮음(1점), 낮음(2점), 보통(3점), 높음(4점), 매우높음(5점)을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표 3-64〉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구분	개선시급성						평균(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합계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빈도(명)	-	-	50	**177**	84	311	**4.11**
	비율(%)	-	-	16.1	**56.9**	27.0	100.0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빈도(명)	-	-	57	**142**	112	311	**4.18**
	비율(%)	-	-	18.3	**45.7**	36.0	100.0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빈도(명)	-	-	48	**193**	70	311	**4.07**
	비율(%)	-	-	15.4	**65.2**	22.5	100.0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활동 지원	빈도(명)	-	-	37	**182**	92	311	**4.18**
	비율(%)	-	-	11.9	**58.5**	29.6	100.0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빈도(명)	-	1	58	**181**	71	311	4.04
	비율(%)	-	0.3	18.6	**58.2**	22.8	100.0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빈도(명)	-	2	79	**185**	45	311	3.88
	비율(%)	-	0.6	25.4	**59.5**	14.5	100.0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빈도(명)	-	-	60	**189**	62	311	4.01
	비율(%)	-	-	19.3	**60.8**	19.9	100.0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빈도(명)	-	-	67	**197**	47	311	3.94
	비율(%)	-	-	21.5	**63.3**	15.1	100.0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빈도(명)	-	-	90	**178**	43	311	3.85
	비율(%)	-	-	28.9	**57.2**	13.8	100.0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빈도(명)	-	-	74	**187**	50	311	3.92
	비율(%)	-	-	23.8	**60.1**	16.1	100.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빈도(명)	-	-	98	**166**	47	311	3.84
	비율(%)	-	-	31.5	**53.4**	15.1	100.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빈도(명)	-	-	30	**211**	70	311	**4.13**
	비율(%)	-	-	9.6	**67.8**	22.5	100.0	

〈표 3-65〉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구분	개선시급성						평균 (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합계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빈도(명)	-	-	50	**177**	84	311	**4.11**
	비율(%)	-	-	16.1	**56.9**	27.0	100.0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빈도(명)	-	-	57	**142**	112	311	**4.18**
	비율(%)	-	-	18.3	**45.7**	36.0	100.0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빈도(명)	-	-	48	**193**	70	311	**4.07**
	비율(%)	-	-	15.4	**65.2**	22.5	100.0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활동 지원	빈도(명)	-	-	37	**182**	92	311	**4.18**
	비율(%)	-	-	11.9	**58.5**	29.6	100.0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빈도(명)	-	1	58	**181**	71	311	4.04
	비율(%)	-	0.3	18.6	**58.2**	22.8	100.0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빈도(명)	-	2	79	**185**	45	311	3.88
	비율(%)	-	0.6	25.4	**59.5**	14.5	100.0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빈도(명)	-	-	60	**189**	62	311	4.01
	비율(%)	-	-	19.3	**60.8**	19.9	100.0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빈도(명)	-	-	67	**197**	47	311	3.94
	비율(%)	-	-	21.5	**63.3**	15.1	100.0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빈도(명)	-	-	90	**178**	43	311	3.85
	비율(%)	-	-	28.9	**57.2**	13.8	100.0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빈도(명)	-	-	74	**187**	50	311	3.92
	비율(%)	-	-	23.8	**60.1**	16.1	100.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빈도(명)	-	-	98	**166**	47	311	3.84
	비율(%)	-	-	31.5	**53.4**	15.1	100.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빈도(명)	-	-	30	**211**	70	311	**4.13**
	비율(%)	-	-	9.6	**67.8**	22.5	100.0	

(4)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 정서·심리적 효과,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향후 지속 의향 등

가.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정서·심리적 효과에 대해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응답자들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 증진'** 효과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일상생활의 활력(활기)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6〉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합계	빈도(명)	628	268	896
	비율(%)	100.0	100.0	100.0
효과가 없음	빈도(명)	-	-	-
	비율(%)	-	-	-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빈도(명)	117	37	154
	비율(%)	18.6	13.8	17.2
삶의 즐거움 증진	빈도(명)	**148**	**60**	**208**
	비율(%)	**23.6**	**22.4**	**23.2**
일상생활의 활력(활기) 증가	빈도(명)	**127**	55	182
	비율(%)	**20.2**	20.5	20.3
삶에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빈도(명)	122	**63**	**185**
	비율(%)	19.4	**23.5**	**20.6**
자존감 증대	빈도(명)	90	41	131
	비율(%)	14.3	15.3	14.6
이해·포용력 증대	빈도(명)	24	12	36
	비율(%)	3.8	4.5	4.0

나.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으로 인해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조사 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관람, 체험, 교류 증대'** 효과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문화 교류·소통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 등의 순으로 높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67〉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합계	빈도(명)	792	345	1137
	비율(%)	100.0	100.0	100.0
효과가 없음	빈도(명)	-	-	-
	비율(%)	-	-	-
문화참여(협력), 창조자, 기획가로서 문화예술 역량 제고	빈도(명)	53	21	74
	비율(%)	6.7	6.1	6.5
지역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발전에 기여	빈도(명)	84	43	127
	비율(%)	10.6	12.5	11.2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관람, 체험, 교류 증대	빈도(명)	**148**	**62**	**210**
	비율(%)	**18.7**	**18.0**	**18.5**
문화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와의 교류·참여 증가	빈도(명)	96	**49**	145
	비율(%)	12.1	**14.2**	12.8
문화 교류·소통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	빈도(명)	**116**	47	163
	비율(%)	**14.6**	13.6	14.3
집단간, 계층간 교류를 통해 갈등해소, 공감 증대	빈도(명)	73	41	114
	비율(%)	9.2	11.9	10.0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빈도(명)	**144**	**55**	**199**
	비율(%)	**18.2**	**15.9**	**17.5**
생활 속에서 창의성 증대	빈도(명)	64	23	87
	비율(%)	8.1	6.7	7.7
생활문화 활동으로 지역홍보,브랜딩, 매력 창출에 기여	빈도(명)	14	4	18
	비율(%)	1.8	1.2	1.6

다. 생활문화 활동의 지속 의향

생활문화 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향에서 참여자의 **74.0%(230명)**가 **'그렇다'**로 응답하여 앞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확대할 의향을 나타내었으며, 모든 응답자가 보통(현수준과 비슷) 이상의 지속적 참여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8〉 생활문화 활동 지속 의향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현수준과 비슷)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동·읍지역	빈도(명)	-	-	27	**169**	20	216	**3.97**
	비율(%)	-	-	12.5	**78.2**	9.3	100.0	
면지역	빈도(명)	-	-	20	**61**	14	95	3.94
	비율(%)	-	-	21.1	**64.2**	14.7	100.0	
합계	빈도(명)	-	-	47	**230**	34	311	3.96
	비율(%)	-	-	15.1	**74.0**	10.9	100.0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 수요 변화 인식, 정책 가치 및 필요성, 정책적 노력, 도 차원의 정책적 노력, 정책 중요도 등

가. 생활문화 활동 수요 변화에 대한 인식

향후 생활문화와 활동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도 모든 응답자가 **'보통(현수준과 비슷)' 이상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의 78.1%(243명)가 **'증가'**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9〉 생활문화 활동 수요 변화에 대한 인식

구분		대폭 감소	감소	보통 (현수준과 비슷)	증가	대폭증가	합계	평균
동·읍지역	빈도(명)	-	-	22	**173**	21	216	**4.00**
	비율(%)	-	-	10.2	**80.1**	9.7	100.0	
면지역	빈도(명)	-	-	14	**70**	11	95	3.97
	비율(%)	-	-	14.7	**73.7**	11.6	100.0	
합계	빈도(명)	-	-	36	**243**	32	311	3.99
	비율(%)	-	-	11.6	**78.1**	10.3	100.0	

나.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생활문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생활문화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8.8%가 **'높음'** 으로 답하였으며, 19.0%는 '매우높음'에 답하였다.

〈표 3-70〉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현수준과 비슷)	높음	매우 높음	합계	평균
동·읍지역	빈도(명)	-	-	27	**148**	41	216	4.06
	비율(%)	-	-	12.5	**68.5**	19.0	100.0	
면지역	빈도(명)	-	-	11	**66**	18	95	**4.07**
	비율(%)	-	-	11.6	**69.5**	18.9	100.0	
합계	빈도(명)	-	-	38	**214**	59	311	**4.07**
	비율(%)	-	-	12.2	**68.8**	19.0	100.0	

다.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매우미흡(1점)-미흡(2점)-약간미흡(3점)-보통(4점)-약간충분(5점)-충분(6점)매우충분(7점)으로 각각 점수를 산출하여 조사 대상별 평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책적 노력'**이 **'평균 5.11'** 점으로 약간충분 이상, 충분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정책적 노력'**은 **'평균 4.73점'**으로 보통이상 약간충분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청남도 차원보다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7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 - 충청남도

구분		매우 미흡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약간 충분	충분	매우 충분	합계	평균
동·읍지역	빈도(명)	-	-	1	55	**93**	48	19	216	**5.13**
	비율(%)	-	-	0.5	25.5	**43.1**	22.2	8.8	100.0	
면지역	빈도(명)	-	-	0	31	**38**	15	11	95	5.06
	비율(%)	-	-	0.0	32.6	**40.0**	15.8	11.6	100.0	
합계	빈도(명)	-	-	1	86	**131**	63	30	311	**5.11**
	비율(%)	-	-	0.3	27.7	**42.1**	20.3	9.6	100.0	

〈표 3-7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 - 시·군

구분		매우 미흡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약간 충분	충분	매우 충분	합계	평균
동·읍지역	빈도(명)	-	1	23	**79**	52	52	9	216	**4.73**
	비율(%)	-	0.5	10.6	**36.6**	24.1	24.1	4.2	100.0	
면지역	빈도(명)	-	1	11	**34**	20	26	3	95	4.72
	비율(%)	-	1.1	11.6	**35.8**	21.1	27.4	3.2	100.0	
합계	빈도(명)	-	2	34	**113**	72	78	12	311	**4.73**
	비율(%)	-	0.6	10.9	**36.3**	23.2	25.1	3.9	100.0	

라. 향후 도민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남도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

향후 도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응답자의 81.7%(254명)**가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3〉 향후 도민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남도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

구분		매우 필요 하지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현수준과 비슷)	필요	매우 필요	합계	평균
동·읍 지역	빈도(명)	-	-	44	**148**	24	216	3.91
	비율(%)	-	-	20.4	**68.5**	11.1	100.0	
면지역	빈도(명)	-	-	13	**66**	16	95	**4.03**
	비율(%)	-	-	13.7	**69.5**	16.8	100.0	
합계	빈도(명)	-	-	57	**214**	40	311	3.95
	비율(%)	-	-	18.3	**68.8**	12.9	100.0	

마.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 충남 생활문화 시설 이용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정책 중요도를 **'높음'** 이라고 응답하였다.

각 항목별로 정책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33],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4.18점)'**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4.14점)',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4.13점)',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4.11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4.07점)' 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74〉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동읍·면지역별)

정책 중요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평균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4.14	**4.25**	**4.18**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4.03	4.09	4.05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4.13	4.12	4.13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4.12	4.07	4.11

33) 5점 척도로 매우낮음(1점), 낮음(2점), 보통(3점), 높음(4점), 매우높음(5점)을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4.02	3.96	4.00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3.96	3.97	3.96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4.16**	4.07	4.14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3.94	3.98	3.95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3.89	3.78	3.86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3.97	3.9	3.97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3.90	3.99	3.9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4.07	4.08	4.07

〈표 3-75〉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정책 중요도	구분	정책 중요도						평균 (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합계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빈도(명)	-	-	48	**160**	103	311	**4.18**
	비율(%)	-	-	15.4	**51.4**	33.1	100.0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빈도(명)	-	-	57	**181**	73	311	4.05
	비율(%)	-	-	18.3	**58.2**	23.5	100.0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빈도(명)	-	-	34	**203**	74	311	**4.13**
	비율(%)	-	-	10.9	**65.3**	23.8	100.0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빈도(명)	-	-	29	**220**	62	311	**4.11**
	비율(%)	-	-	9.3	**70.7**	19.9	100.0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빈도(명)	-	1	68	**172**	70	311	4.00
	비율(%)	-	0.3	21.9	**55.3**	22.5	100.0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빈도(명)	-	-	63	**197**	51	311	3.96
	비율(%)	-	-	20.3	**63.3**	16.4	100.0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빈도(명)	-	-	43	**183**	85	311	**4.14**
	비율(%)	-	-	13.8	**58.8**	27.3	100.0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빈도(명)	-	-	86	**155**	70	311	3.95
	비율(%)	-	-	27.7	**49.8**	22.5	100.0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빈도(명)	-	-	86	**184**	41	311	3.86
	비율(%)	-	-	27.7	**59.2**	13.2	100.0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빈도(명)	-	-	65	**190**	56	311	3.97
	비율(%)	-	-	20.9	**61.1**	18.0	100.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빈도(명)	-	1	75	**181**	54	311	3.93
	비율(%)	-	0.3	24.1	**58.2**	17.4	100.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빈도(명)	-	-	54	**180**	77	311	**4.07**
	비율(%)	-	-	17.4	**57.9**	24.8	100.0	

3) 충남 생활문화 진흥과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운영자·전문가 의식 분석

(가) 일반사항 - 성별, 연령, 거주지, 소속기관, 종사기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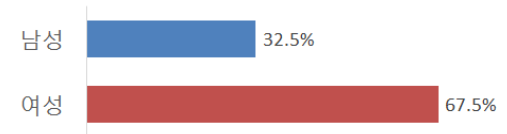
가. 성비·연령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27명으로 67.5%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이 13명으로 전체응답자의 32.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52.5%(21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32.5%(13명)**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30~40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6〉 응답자 연령 및 성비

구분	빈도(명)	비율(%)	성비
10대~20대	4	10.0	
30대	**21**	**52.5**	
40대	**13**	**32.5**	
50대	2	5.0	
합계	40	100.0	



나. 거주지

본 의식조사에 참여한 생활문화시설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의 거주지의 경우 **'홍성군'이 22.5%(9명)**로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 소속기관이 홍성에 소재한 충남문화재단과 문화원, 문화의집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성군 다음으로는 아산시와 서산시 15.0%(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7〉 응답자 거주지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공주시	1	2.5	세종시	2	5.0
금산군	2	5.0	아산시	6	15.0
당진시	2	5.0	예산군	3	7.5
보령시	4	10.0	태안군	2	5.0
부여군	3	7.5	**홍성군**	**9**	**22.5**
서산시	6	15.0	합계	40	100.0

응답자의 거주지를 동, 읍, 면지역별로 살펴 본 결과 생활문화시설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지역**과 **읍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8〉 응답자의 동·읍·면별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동	20	50.0	읍	20	50.0	면	-	-

다. 전문가 소속 기관

충남의 생활문화시설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 소속 기관의 경우 각 운영시설별 규모 대비 설문표본수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각 시·군 **'생활문화센터 30.0%(13명)'**, '문화원 27.5%(11명)', '충남문화재단 15.0%(6명)', '문화의집 10.0%(4명)', '평생교육진흥원 7.5%(3명)', '마을만들기센터 7.5%(3명)' 의 순이다.

〈표 3-79〉 응답자 소속기관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생활문화센터	**8**	**20.0**	예산문화원	1	2.5
서산생활문화센터	3	7.5	태안문화원	2	5.0
부여생활문화센터	1	2.5	**충남문화재단**	**6**	**15.0**
풀잎문화센터예산지부	1	2.5	문화의집	2	5.0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	5.0	서산문화의집	1	2.5
당진문화원	2	5.0	홍성 청소년 문화의집	1	2.5
서산문화원	2	5.0	충남평생교육진흥원	3	7.5
부여문화원	2	5.0	마을만들기센터	3	7.5
합계				40	100.0

라. 전문가 종사 기간

충남 생활문화시설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의 **대부분인 87.5%(35명)**가 종사기간이 **'5년 이하'**로 나타났으며, 그 중 종사기간이 **'3년'** 인 경우가 **25%(10명)**으로 제일 높았으며, **'1년'** 인 경우가 **22.5%(9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기간 평균은 3.3년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근무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0〉 응답자 종사기간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9년	15년	합계	평균(년)
빈도(명)	9	7	10	7	2	3	1	1	40	3.3
비율(비율)	22.5	17.5	25.0	17.5	5.0	7.5	2.5	2.5	100.0	

(2)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 여건 및 개선사항 - 주민 관심과 수요, 주민 수요충족, 기존 정책과 차별성, 접근성 및 이용시간, 개선사항 등

가. 주민의 생활문화 관심과 수요

생활문화시설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생활문화 관심과 수요 정도는 **'보통(현수준과 비슷)' 이상이 87.5%(35명)**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응답자인 **52.5%(21명)**가 주민의 생활문화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3-81〉 주민의 생활문화 관심과 수요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현수준과 비슷)	높음	매우 높음	합계	평균(점)
빈도(명)	-	5	13	21	1	40	3.45
비율(%)	-	12.5	32.5	52.5	2.5	100.0	

나. 향후 주민의 생활문화 관심과 수요

생활문화시설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향후 주민들의 생활문화 관심과 수요는 **'보통(현수준과 비슷)'** 이상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인 **65.0%(26명)**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3-82〉 향후 주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

구분	대폭 감소	감소	보통(현수준과 비슷)	증가	대폭 증가	합계	평균(점)
빈도(명)	-	-	7	26	7	40	4.00
비율(%)	-	-	17.5	65.0	17.5	100.0	

다.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한 충족도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 충족도를 분석한 결과[34] 전체 평균이 **'4.1점'** 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활문화시설로의 접근성'** 이 **'평균 4.33점'**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 '평균 4.20점', '생활문화 기관 간의 협력'과 '생활문화시설(공간) 확보'가 '평균 4.15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생활문화 예산'** 과 **'생활문화 인력(매개, 강사)'** 의 경우 평균이 4점대에 채 미치지 못하여 **'약간 미충족'** 이라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응답의 정규분포 상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 '생활문화시설 운영 장비', '생활문화 시설(공간) 확보', '생활문화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3〉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한 충족도

관심과 수요 충족	구분	매우 미충족	미충족	약간 미충족	보통	약간 충족	충족	매우 충족	합계	평균 (점)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	빈도(명)	-	2	**9**	**13**	11	5	-	40	**4.20**
	비율(%)	-	5.0	**22.5**	**32.5**	27.5	12.5	-	100.0	
생활문화 공급의 전달체계	빈도(명)	-	**5**	5	**17**	7	6	-	40	4.10
	비율(%)	-	**12.5**	12.5	**42.5**	17.5	15.0	-	100.0	
생활문화 예산	빈도(명)	-	**5**	**12**	10	11	2	-	40	**3.83**
	비율(%)	-	**12.5**	**30.0**	25.0	27.5	5.0	-	100.0	
생활문화 시설(공간) 확보	빈도(명)	1	3	**8**	**12**	11	3	2	40	4.15
	비율(%)	2.5	7.5	**20.0**	**30.0**	27.5	7.5	5.0	100.0	
생활문화 시설 운영 장비	빈도(명)	1	2	**9**	**14**	11	3	-	40	4.03
	비율(%)	2.5	5.0	**22.5**	**35.0**	27.5	7.5	-	100.0	

34) 7점 척도로 매우미흡(1점), 미흡(2점), 약간미흡(3점), 보통(4점), 약간충분(5점), 충분(6점), 매우충분(7점)으로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생활문화시설로의 접근성	빈도(명)	-	3	5	**15**	10	7	-	40	**4.33**
	비율(%)	-	7.5	12.5	**37.5**	25.0	17.5	-	100.0	
생활문화 프로그램 공급	빈도(명)	-	2	**9**	**15**	9	5	-	40	4.15
	비율(%)	-	5.0	**22.5**	**37.5**	2.5	12.5	-	100.0	
생활문화 인력(매개, 강사)	빈도(명)	-	**5**	7	**15**	10	3	-	40	**3.98**
	비율(%)	-	**12.5**	17.5	**37.5**	25.0	7.5	-	100.0	
생활문화 기관 간의 협력	빈도(명)	-	1	7	**18**	13	1	-	40	4.15
	비율(%)	-	2.5	17.5	**45.0**	32.5	2.5	-	100.0	
생활문화 홍보·정보제공	빈도(명)	-	3	7	**16**	11	3	-	40	4.10
	비율(%)	-	7.5	17.5	**40.0**	27.5	7.5	-	100.0	

라. 생활문화정책과 기존 문화복지 정책의 차별성

생활문화정책이 기존 문화복지정책(문화예술교육,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과 갖는 차별성에 대해서는 **'생활 속에서 참여적 문화활동'** 이 **'77.5%(31명)'** 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공동체)와 연계된 활동' '40.0%(16명)',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27.5%(11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4〉 생활문화정책과 기존 문화복지 정책의 차별성

기존 문화복지 정책과의 차별성	빈도(명)	비율(%)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11	27.5
지역사회(공동체)와 연계된 활동	16	40.0
생활 속에서 참여적 문화활동	**31**	**77.5**
예술을 넘는 광의의 문화활동	8	20.0

마.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및 이용시간

충남 생활문화시설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들은 생활문화 시설(공간)에 대한 적정 접근시간은 **'20분 이내' 47.5%(19명) 혹은 30분 이내 45.0%(18명)** 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정 접근거리로는 **'600m 이내' 42.5%(17명)**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5〉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 시간 및 거리

접근시간	빈도(명)	비율(%)	접근거리	빈도(명)	비율(%)
10분 이내	3	7.5	200m 이내	1	2.5
20분 이내	**19**	**47.5**	**300m 이내**	**12**	**30.0**
30분 이내	**18**	**45.0**	400m 이내	7	17.5
40분 이내	-	-	500m 이내	-	-
50분 이내	-	-	**600m 이내**	**17**	**42.5**
60분 이내	-	-	기타	3	7.5
합계	40	100.0	합계	40	100.0

생활문화시설 적정 이용시간으로는 **오전 시간대**가 **'09:00시'** 에 **시작**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비율이 **57.5%(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료**시간은 **'11:00시'** 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62.5%(2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후** 시간대 에서는 **'18:00시' 에 시작**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0.0%(1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료시간**은 **'22:00시'** 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40.0%(1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기입한 각각의 생활문화시설 적정 이용시간을 평균으로 나타낸 결과 오전 이용시간은 9.1시~11.3시, 오후 이용시간은 5.8시~9.3시가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6〉 생활문화시설 이용 시간

오전						오후					
시작	빈도(명)	비율(%)	종료	빈도(명)	비율(%)	시작	빈도(명)	비율(%)	종료	빈도(명)	비율(%)
6시	2	5.0	7시	1	2.5	1시	1	2.5	5시	1	2.5
						2시	2	5.0	6시	1	2.5
7시	1	2.5	**11시**	**25**	**62.5**	3시	3	7.5	8시	5	12.5
8시	2	5.0	12시	14	35.0	4시	3	7.5	9시	14	35.0
						5시	3	7.5	**10시**	**16**	**40.0**
9시	**23**	**57.5**	-	-	-	**6시**	**12**	**30.0**	11시	3	7.5
						7시	10	25.0	-	-	-
10시	12	30.0	-	-	-	8시	6	15.0	-	-	-
합계	40	100.0	합계	40	100.0	합계	40	100.0	합계	40	100.0
시작	**9.0시**		**종료**	**12.0시**		**시작**	**5.8시**		**종료**	**10.0시**	

바.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생화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개선시급성이 **‘높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척도 분석 결과[35],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4.28점)’**, **‘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4.25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4.05점)’**,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4.05점)’**,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4.03점)’**, 의 순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7〉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생활문화 활동 계기(또는 매체)	구분	개선시급성					합계	평균(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빈도(명)	-	1	12	**23**	4	40	3.75
	비율(%)	-	2.5	30.0	**57.5**	10.0	100.0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빈도(명)	-	1	7	**22**	10	40	4.03
	비율(%)	-	2.5	17.5	**55.0**	25.0	100.0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빈도(명)	-	1	12	**21**	6	40	3.80
	비율(%)	-	2.5	30.0	**52.5**	15.0	100.0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빈도(명)	-	-	5	**28**	7	40	4.05
	비율(%)	-	-	12.5	**70.0**	17.5	100.0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빈도(명)	-	-	4	**22**	14	40	**4.25**
	비율(%)	-	-	10.0	**55.0**	35.0	100.0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빈도(명)	-	-	14	**20**	6	40	3.80
	비율(%)	-	-	35.0	**50.0**	15.0	100.0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빈도(명)	-	1	16	**18**	5	40	3.68
	비율(%)	-	2.5	40.0	**45.0**	12.5	100.0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빈도(명)	-	-	7	**24**	9	40	4.05
	비율(%)	-	-	17.5	**60.0**	22.5	100.0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빈도(명)	-	-	11	**22**	7	40	3.90
	비율(%)	-	-	27.5	**55.0**	17.5	100.0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빈도(명)	-	-	5	**31**	4	40	3.98
	비율(%)	-	-	12.5	**77.5**	10.0	100.0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빈도(명)	-	-	14	**21**	5	40	3.78
	비율(%)	-	-	35.0	**52.5**	12.5	100.0	

35) 5점 척도로 매우낮음(1점), 낮음(2점), 보통(3점), 높음(4점), 매우높음(5점)을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생활문화 활동 계기(또는 매체)	구분	개선시급성					합계	평균(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빈도(명)	-	-	16	**20**	4	40	3.70
	비율(%)	-	-	40.0	**50.0**	10.0	100.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빈도(명)	-	-	1	**27**	12	40	**4.28**
	비율(%)	-	-	2.5	**67.5**	30.0	100.0	

(3)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가. 주민에게 미치는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운영자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생활문화 활동이 주민에게 미치는 정서·심리적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삶에 대한 즐거움 증진'**과 **'일상생활의 활력(활기)증가'** 효과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삶에 자신감 형성과 향상'에 효과를 준다고 응답하였다.

〈표 3-88〉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 동반자	빈도(명)	비율(%)
효과가 없음	-	-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10	25.0
삶의 즐거움 증진	**29**	**72.5**
일상생활의 활력(활기) 증가	**28**	**70.0**
삶에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23**	**57.5**
자존감 증대	14	35.0
이해·포용력 증대	2	5.0
기타(힐링)	1	2.5

나. 주민에게 미치는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이 주민에게 미치는 문화·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생활문화시설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들은 생활문화 활동이 주민에게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발전에 기여'**, **'문화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와의 교류·참여 증가'** 등의 순으로 문화・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89〉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 동반자	빈도(명)	비율(%)
효과가 없음	-	-
문화참여(협력), 창조자, 기획가로서 문화예술 역량 제고	13	32.5
지역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발전에 기여	**22**	**55.0**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관람, 체험, 교류 증대	17	42.5
문화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와의 교류·참여 증가	**18**	**45.0**
문화 교류·소통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 : 협력(협동) 정신 증대	17	42.5
집단간, 계층간 교류를 통해 갈등해소, 공감 증대 : 사회통합에 기여	15	37.5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32**	**80.0**
생활 속에서 창의성 증대	15	37.5
생활문화 활동으로 지역홍보, 브랜딩, 매력 창출에 기여	4	10.0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가.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생활문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문화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높음'** 72.5%(29명)이라 응답하였다.

〈표 3-90〉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5점 척도, 기준3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현수준과 비슷)	**높음**	매우 높음	합계	평균 (점)
빈도(명)	-	-	5	**29**	6	40	4.03
비율(%)	-	-	12.5	**72.5**	15.0	100.0	

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조사결과[36], 응답자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평균 4.33'** 점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생활문화시설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들이 소속하고 있는 **'시·군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도 **'평균 4.13점'**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렇지만 응답의 점수와 분포를 보면 시·군의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고, 보통 이하라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

정책적 노력	구분	매우 미흡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약간 충분	충분	매우 충분	합계	평균 (점)
충청남도	빈도(명)	-	4	3	12	**19**	1	1	40	4.33
	비율(%)	-	10.0	7.5	30.0	**47.5**	2.5	2.5	100.0	
시·군	빈도(명)	-	4	9	9	**14**	4	-	40	4.13
	비율(%)	-	10.0	22.5	22.5	**35.0**	10.0	-	100.0	

다. 향후 도민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남도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

향후 도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응답자 전원**이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에 **100% 응답**을 보였다.

〈표 3-92〉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5점 척도, 기준3점)

구분	매우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현수준과 비슷)	**필요**	매우 필요	합계	평균 (점)
빈도(명)	-	-	-	**29**	11	40	4.28
비율(%)	-	-	-	**72.5**	27.5	100.0	

36) 7점 척도로 매우미흡(1점), 미흡(2점), 약간미흡(3점), 보통(4점), 약간충분(5점), 충분(6점), 매우충분(7점)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라.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 생활문화시설 관련 운영자 및 전문가들은 모든 항목에서 정책 중요도를 **'높음'** 이라고 응답하였다.

척도분석 결과[37],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4.25점)'**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4.23점)',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4.18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4.15점)',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4.08점)' 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93〉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생활문화 활동 계기(또는 매체)	구분	개선시급성						평균(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합계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빈도(명)	-	-	6	**29**	5	40	3.98
	비율(%)	-	-	5.0	**72.5**	12.5	100.0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빈도(명)	-	-	4	**29**	7	40	4.08
	비율(%)	-	-	10.0	**72.5**	17.5	100.0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빈도(명)	-	-	9	**26**	5	40	3.90
	비율(%)	-	-	22.5	**65.0**	12.5	100.0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빈도(명)	-	-	1	**29**	10	40	4.23
	비율(%)	-	-	2.5	**72.5**	25.0	100.0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빈도(명)	-	-	3	**24**	13	40	4.25
	비율(%)	-	-	7.5	**60.0**	35.5	100.0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빈도(명)	-	-	9	**23**	8	40	3.98
	비율(%)	-	-	22.	**57.5**	20.0	100.0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빈도(명)	-	-	10	**24**	6	40	3.90
	비율(%)	-	-	25.0	**60.0**	15.0	100.0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빈도(명)	-	-	6	**21**	13	40	4.18
	비율(%)	-	-	15.0	**52.5**	32.5	100.0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빈도(명)	-	-	9	**23**	8	40	3.98
	비율(%)	-	-	22.5	**27.5**	20.0	100.0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빈도(명)	-	-	7	**27**	6	40	3.98
	비율(%)	-	-	17.5	**67.5**	15.0	100.0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빈도(명)	-	-	8	**22**	10	40	4.05
	비율(%)	-	-	20.0	**55.0**	25.0	100.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빈도(명)	-	1	14	**21**	4	40	3.70
	비율(%)	-	2.5	35.0	**52.5**	10.0	100.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빈도(명)	-	-	4	**26**	10	40	4.15
	비율(%)	-	-	10.0	**65.0**	25.0	100.0	

37) 5점 척도로 매우낮음(1점), 낮음(2점), 보통(3점), 높음(4점), 매우높음(5점)을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4) 충남 생활문화 진흥과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과 운영자 간의 의식 비교 분석

(1)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및 이용시간

가. 접근시간

주민 및 운영자간의 생활문화시설 접근시간 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주민과 운영자 모두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시간은 **'20분 이내'**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94〉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시간에 대한 인식

(주민)접근시간	빈도(명)	비율(%)	(운영자)접근시간	빈도(명)	비율(%)
10분 이내	62	19.9	10분 이내	3	7.5
20분 이내	**165**	**53.1**	**20분 이내**	**19**	**47.5**
30분 이내	79	25.4	30분 이내	18	45.0
40분 이내	5	1.6	40분 이내	-	-
합계	311	100.0	합계	40	100.0

나. 접근거리

주민 및 운영자간의 생활문화시설 접근거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주민**의 경우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거리가 **'300m 이내'** 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자**의 경우 **'600m 이내'** 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95〉 생활문화시설 적정 접근거리에 대한 인식

(주민)접근시간	빈도(명)	비율(%)	(운영자)접근시간	빈도(명)	비율(%)
100m 이내	11	3.5	100m 이내	-	-
200m 이내	56	18.0	200m 이내	1	2.5
300m 이내	**94**	**30.2**	**300m 이내**	**12**	**30.0**
400m 이내	69	22.2	400m 이내	7	17.5
500m 이내	-	-	500m 이내	-	-
600m 이내	**80**	**25.7**	**600m 이내**	**17**	**42.5**
기타	1	0.3	기타	3	7.5
합계	311	100.0	합계	40	100.0

다. 이용 시간대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적용 이용시간대에 대한 주민과 운영자간 비교 결과, 오전은 9시부터 12시까지가 적합하며, 오후는 5시30분에서 10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6〉 생활문화시설 이용 시간

구분	오전 시작	오전 종료	오후 시작	오후 종료
주민	**9.0시**	**12.0시**	**5.5시**	**10.0시**
운영자	**9.0시**	**12.0시**	**5.8시**	**10.0시**

(2)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충남 생활문화 시설 이용자와 관련 운영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개선시급성이 **'높음'** 이라고 응답하였다.

각 항목별 비교분석 결과, 주민과 운영자 모두 공통적으로 **'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가 시급하다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의 개선에 응답하였다.

한편, 주민들은 운영자 보다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97〉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생활문화 활동 계기(또는 매체)	주민 평균(점)	운영자 평균(점)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	3.75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4.11**	4.03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4.18**	3.80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4.07**	**4.05**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4.18**	**4.25**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4.04	3.80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3.88	3.68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4.01**	**4.05**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3.94	3.90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3.85	3.98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3.92	3.78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3.84	3.7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4.13**	**4.28**

(3)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가.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정서·심리적 효과에 대해 주민과 생활문화시설 운영자 모두 **'삶의 즐거움 증진'** 효과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운영자는 '삶의 즐거움 증진' 외에 '일상생활의 활력을 증가', '삶의 자신감 형성' 등 2개 항목에 효과를 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민들은 '삶의 즐거움 증진' 외에, '삶에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일상생활의 활력을 증가' 외에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자존감 증대' 등 운영자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98〉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 동반자	주민		운영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효과가 없음	-	-	-	-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154	**49.5**	10	25.0
삶의 즐거움 증진	**208**	**66.9**	**29**	**72.5**
일상생활의 활력(활기) 증가	182	**58.5**	**28**	**70.0**
삶에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185	**59.5**	23	57.5
자존감 증대	131	**42.1**	14	35.0
이해·포용력 증대	36	11.6	2	5.0

나.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을 하면서 느낀 문화·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주민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관람, 체험',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문화 교류·소통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 항목에 응답하였다.

한편, 운영자 및 전문가의 경우는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지역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발전'** 에 기여를 가장 많이 꼽았다. 생활문화 활동이 미치는 문화・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민과 운영자간의 인식비교 결과,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주민이 운영자보다 생활문화 활동이 문화・사회・경제적으로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99〉 생활문화 활동의 문화·사회·경제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 동반자	주민		운영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효과가 없음	-	-	-	-
문화참여(협력), 창조자, 기획가로서 문화예술 역량 제고	74	23.8	13	32.5
지역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발전에 기여	127	40.8	**22**	**55.0**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관람, 체험, 교류 증대	**210**	**67.5**	17	42.5
문화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와의 교류·참여 증가	145	46.5	18	45.0
문화 교류·소통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 : 협력(협동) 정신 증대	**163**	**52.4**	17	42.5
집단간, 계층간 교류를 통해 갈등해소, 공감 증대 : 사회통합에 기여	114	36.7	15	37.5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199**	**64.0**	**32**	**80.0**
생활 속에서 창의성 증대	87	28.0	15	37.5
생활문화 활동으로 지역홍보, 브랜딩, 매력 창출에 기여	18	5.8	4	10.0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가.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

생활문화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주민(4.07점), 운영자(4.03점)으로 응답하여 모두 '높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3-100〉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5점 척도, 3점 기준)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현수준과 비슷)	높음	매우 높음	합계	평균(점)
주민	빈도(명)	-	-	38	**214**	59	311	4.07
	비율(%)	-	-	12.2	**68.8**	19.0	100.0	
운영자	빈도(명)	-	-	5	**29**	6	40	4.03
	비율(%)	-	-	12.5	**72.5**	15.0	100.0	

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민이 운영자보다는 약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충청남도와 시·군간의 비교에서는 두 집단 모두 충청남도보다는 시·군의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여 시·군 차원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7점 척도, 4점 기준)

구분		구분	매우 미흡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약간 충분	충분	매우 충분	합계	평균(점)
주민	충청남도	빈도(명)	-	-	1	86	**131**	63	30	311	5.11
		비율(%)	-	-	0.3	27.7	**42.1**	20.3	9.6	100.0	
	시·군	빈도(명)	-	2	34	**113**	72	78	12	311	4.73
		비율(%)	-	0.6	10.9	**36.3**	23.2	25.1	3.9	100.0	
운영자 및 전문가	충청남도	빈도(명)	-	4	3	12	**19**	1	1	40	4.33
		비율(%)	-	10.0	7.5	30.0	**47.5**	2.5	2.5	100.0	
	시·군	빈도(명)	-	4	9	9	**14**	4	-	40	4.13
		비율(%)	-	10.0	22.5	22.5	**35.0**	10.0	-	100.0	

다. 향후 도민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남도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

주민과 운영자 모두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운영자(4.28점)들이 주민(3.95점)보다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102〉 향후 도민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충남도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

구분		매우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현수준과 비슷)	필요	매우 필요	합계	평균(점)
주민	빈도(명)	-	-	57	**214**	40	311	3.95
	비율(%)	-	-	18.3	**68.8**	12.9	100.0	
운영자 및 전문가	빈도(명)	-	-	-	**29**	11	40	4.28
	비율(%)	-	-	-	**72.5**	27.5	100.0	

라.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 충남 생활문화 시설 이용자와 관련 운영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정책 중요도가 **'높음'** 이라고 응답하였다.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주민과 운영자 간 우선순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민**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4.18점)’**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의 경우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4.25점)’**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3〉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주민 평균(점)	운영자 평균(점)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	3.98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4.18**	**4.08**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4.05	3.90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4.13**	**4.23**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4.11**	**4.25**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4.00	3.98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3.96	3.90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4.14**	**4.18**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3.95	3.98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3.86	3.98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3.97	4.05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3.93	3.7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4.07**	**4.15**

5) 설문의식조사 종합

(1) 생활문화 인식, 활동시설, 동기 및 참여방식

주민이 생각하는 생활문화 활동은 문화예술관람(50.7%), 문화강좌 참여(21.6%)가 대부분이어서 주체성보다는 참여하는 자체를 생활문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로 이용하는 생활문화시설로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①문화원, ②생활문화센터, ③문예회관(공연장), ④평생학습센터 순이었고, 면지역 주민들은 ①문화원, ②주민자치센터, ③생활문화센터, ④마을회관 순으로 응답하여, 충남지역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원을 자주이용하지만, 도시지역은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농촌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 활동계기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개인적 관심(34.3%)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면지역 주민들은 친구의 권유・소개(31.6%)가 가장 많았다. 다음 순위로 동・읍지역 주민 15.7%, 면지역 주민 20.0%가 가족의 권유・소개로 응답하였다. 반면, 기관 또는 동호회의 소개, 공공기관 또는 방송의 홍보, 인터넷・SNS를 통해 참여하게 된 계기는 매우 적게 나타나 공적인 홍보에 의한 것이 아닌 사적인 권유・소개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활문화 활동의 주된 목적은 ①여가시간 보내기 및 활용, ②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창작(표현)활동 참여, ③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증진 순으로 나타나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여가문화, 정신건강 등 문화복지적 목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다.

활동 방식은 동・읍지역 주민, 면지역 주민 모두 ①문화예술행사(이벤트) 관람(44.5%)이 가장 많았으며, ②강좌(강의 프로그램) 참여(39.5%), ③동호회 활동(11.2%), ④문화예술행사(이벤트) 작품공연 및 전시(4.8%)로 나타나 생활문화 활동의 단계가 초기단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문화 활동 동반자로서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친구(연인 포함, 25.7%)가 가장 많은 반면, 면지역 주민들은 동네, 마을 주민(13.2%)를 보여 차이를 보였다.

생활문화 활동 애로사항으로서는 전체적으로는 ① ‘비용이 많이든다’ 16.2%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② ‘생활문화 정보가 부족하다’ 16.1%, ③ ‘생활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하다’ 15.1%, ④ ‘시설·장비 등이 불편하다’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역별로 면지역 주민들은 ‘교통(접근)이 불편하다’를 가장 불편한 항목으로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

생활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응답자 모두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생활문화시설'의 경우 42.8%(133명)가 '만족'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경우도 '만족'이 43.4%(13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우선순위에서 동·읍지역 주민들은 영화, 연극, 국악전통예술 순이었지만, 면지역 주민들은 국악전통예술, 연극, 영화 등 순위에 차이를 보였다. 향후 활동하고자 하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으로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연극, 영화, 음악/무용 순으로 응답하였고, 면지역 주민들은 국악전통예술관람, 요가 참여, 국악전통예술 참여로 나타나, 도시지역의 주민들은 예술 쪽에, 농촌지역 주민들은 전통 관람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서는 동·읍지역 주민들은 ①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②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고, 면지역 주민들은 ①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②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순으로 응답하여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이 현재 문화공간과 시설에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개선시급성이 높은 항목으로 도시와 농촌지역 공통적으로 '공간보다는 시설의 개선',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을 응답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생활문화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정서·심리적 효과에 대해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응답자들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 증진' 효과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일상생활의 활력(활기)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나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4〉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생활문화 활동의 정서·심리적 효과	구분	동·읍지역	면지역	합계
합계	빈도(명)	628	268	896
	비율(%)	100.0	100.0	100.0
효과가 없음	빈도(명)	-	-	-
	비율(%)	-	-	-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빈도(명)	117	37	154
	비율(%)	18.6	13.8	17.2
삶의 즐거움 증진	빈도(명)	**148**	**60**	**208**
	비율(%)	**23.6**	**22.4**	**23.2**
일상생활의 활력(활기) 증가	빈도(명)	**127**	55	182
	비율(%)	**20.2**	20.5	20.3
삶에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빈도(명)	122	**63**	**185**
	비율(%)	19.4	**23.5**	**20.6**
자존감 증대	빈도(명)	90	41	131
	비율(%)	14.3	15.3	14.6
이해·포용력 증대	빈도(명)	24	12	36
	비율(%)	3.8	4.5	4.0

문화·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관람, 체험, 교류 증대'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지만, 다음으로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문화교류·소통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생활문화 활동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건강한 여가시간의 활용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생활문화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주민은 4.07점, 운영자는 4.03점으로 모두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운영자(4.28점)들이 주민(3.95점)보다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중요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민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4.18점)’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의 경우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4.25점)’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5〉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	주민 평균(점)	운영자 평균(점)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	3.98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4.18**	**4.08**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4.05	3.90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4.13**	**4.23**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4.11**	**4.25**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4.00	3.98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3.96	3.90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4.14**	**4.18**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3.95	3.98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3.86	3.98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3.97	4.05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3.93	3.70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4.07**	**4.15**

제4장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충남도민의 경제적 소득 증가, 여가시간의 증대 그리고 복지에 대한 수요 증대로 생활 속에서 문화향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편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제고와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문화 향유의 공급정책도 중요하다.

충청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사례조사, 현황 및 실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방향

1) 정책기본 방향

(1) 여가문화, 복지, 공동체 측면에서 생활문화 진흥 정책 추진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도민은 정서·심리적으로는 '삶의 즐거움, 활력, 자신감'을 얻고, 문화·사회·경제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 '여가시간의 건강한 활용', '교류·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형성' 등을 이루고 있었다.

생활문화의 개념을 '주민이 생활 속에서 주체적, 자발적으로 하는 유·무형의 문화 활동'이라 정의한다면, 충청남도 차원의 생활문화 정책 추진의 접근방향은 생활문화 활동 그 자체

보다는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에 목적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생활문화 정책의 방향을 도민 삶의 행복 증진,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용을 통한 건강한 문화공동체 형성에 둘 필요가 있다.

(2) 현장밀착형 생활문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

충남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촌지역도 농촌, 어촌, 산촌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생활문화 활동의 인식과 여건이 다를 수 있다.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활동계기, 동반자, 참여방식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및 향후 생활문화 활동 장르와 유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활문화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 지역별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 수요 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생활문화 사업의 발굴과 추진, 정책 건의 등의 실천적인 사업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광역시스템 구축

충청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생활문화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있어 시·군과는 차별화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광역도로서 시·군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활문화 활동 프로그램, 성과 등에 대한 정보공유 제공, 교류, 매개인력 지원 등 기반이 되는 것을 지원하고, 시·군 단위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진흥 사업의 발굴, 추진, 제안 등의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광역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작동을 위한 추진조직, 제도, 재원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2) 목표와 추진전략

(1) 정책목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목표를 도민이 생활문화 활동으로 얻는 효과, 광역도로서 충청남도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문화 진흥 시스템 구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생활문화 활동은 정서적으로 삶에 즐거움, 생활에 활력 증진 그리고 자신감 형성 등에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대,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 정신 증대에 효과가 있다. 이는 결국 개인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생활문화와 활동의 가치가 여기에 있으며, 이것이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림 4-1〉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2) 추진전략

추진전략은 첫째, 현장밀착형 생활문화 매개인력의 확보 및 지원, 둘째, 정보·성과의 공유와 제도적 기반구축, 셋째, 광역과 기초의 협력관계 구축 등 3개의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현장밀착형 생활문화 매개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한다. 주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에 접촉하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생활문화 매개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충청북도의 경우, 플랫폼 강사, 문화코디네이터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생활문화 매개인력 확보와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성과의 공유와 제도적 기반구축을 구축해야 한다.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중요도에 대한 설문에서 주민, 운영자 모두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 도민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는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조례', '시·군 생활문화 진흥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정책사업의 근거와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광역과 기초,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이다. 충청남도는 15개의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행정구역상 면적은 8,204.5㎢로 도시와 농산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 면적에 정책 대상의 특성도 매우 다양하다.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이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일 때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충청남도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은 광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시·군과 민간은 각각의 역할을 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2〉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정책추진전략

2. 정책과제

1)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조성과 매개인력 지원

(1) 충남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조성

충남도민은 현재 생활문화공간과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속적인 생활문화공간의 확충과 시설개선, 장비지원 등의 필요성을 높게 제기하고 있다. 생활문화 활동의 확산과 지속성을 생각할 때 충청남도와 시·군에서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문화 활동 공간의 조성은 첫째, 현재 생활문화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과 공간, 생활문화 활동의 적합성 및 편의성에 대해 일차적인 진단을 통해 기존 시설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면지역에서 생활문화 활동은 주로 ①주민자치센터, ②문화원, ③노인복지회관, ④마을회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동·읍지역에서는 ①문화원, ②생활문화센터, ③문예회관/공연장, ④주민자치센터, ⑤평생학습센터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문화의집을 생활문화센터화하여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의집, 문화원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의집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로 활성화 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충남 생활문화 매개인력 지원

주민이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촉진자, 매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활문화예술, 기술과 교류에 재미있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지원하는 강사, 지원자(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활동의 참여와 지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개인력(강사, 기획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개인력 발굴과 지원은 충남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출향 예술인 또는 생활예술인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중 희망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특히 충남도 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예술관련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충남지역 내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및 지원사업 추진도 필요하다.

생활문화강사와 함께 생활문화기획자(코디네이터)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화기획자(코디네이터) 는 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발견하여 이를 창조적 생산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 지원' 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

〈표 4-1〉 충남 생활문화 매개자(강사, 기획자) 발굴 및 양성

구분	대상	내용	비고
생활문화 매개자 (강사)	문화예술인 /생활예술인	· 충남 지역 또는 출향 문화예술인 중 희망자 대상 - 기존 문화예술인 중 희망자 - 생활예술인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자 · 교육양성 프로그램 참여 및 강사 기회부여	· 발굴 · 지원
	신진 청년	· 충남지역 대학 청년 문화예술인 중 희망자 대상 - 교육양성 프로그램 기회부여 · 생활문화 매개자 협의체에 참여 지원	· 발굴 · 양성 · 지원
생활문화 기획자 (코디네이터)		·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이모작 사업과 연계 추진 (교육이수 대상자를 중심으로 참여기회 부여)	· 발굴 · 양성 · 지원

2) 생활문화 활동의 홍보와 공유

(1) 생활문화와 활동에 대한 정책 홍보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와 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홍보' 가 필요하다.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단계는 활동 시작 전, 활동 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활동 시작 전,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 계기는 동·읍지역의 경우 ①개인적인 관심, ②친구의 권유·소개, ③가족의 권유·소개가 전체의 79.2%, 면지역의 경우 ①친구의 권유·소개,

②개인적인 관심, ③가족의 권유・소개가 전체의 89.0%를 차지하여, 개인의 관심 또는 친분 관계에 소개로 시작되었고, 정책 홍보 등을 통한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한편, 활동 중인 주민들 대상으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과 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항목에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충청남도와 시・군에서는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현재 생활문화 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동호회 등에 충남도와 시・군, 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소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 확산과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매체,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충남 생활문화 활동 및 정책사업에 대한 브랜드 구축

주민참여의 정보제공과 홍보를 위해서는 대상이 명확하고 콘텐츠(내용, 실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충남도와 시・군, 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 할지라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충남 만의 통합브랜드를 구축하여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4-3〉 정책브랜드 유형(좌)과 성남 생활문화 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례(우)

• 브랜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네이밍과 디자인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실체'임을 전제로 함

• '2012 지역·전통 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정책사업의 대표 브랜드 문화예술 동아리 네트워크 사랑방

자료 : http://blog.naver.com/brandcontest/
http://seongnamdiary.com/

3) 충남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 구축

(1)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 구축

그 동안 충청남도의 생활문화 정책은 생활교류(문화원), 생활교류(농촌마을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생활기술(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생활문화 시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도민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와 충남문화재단 지원 하에 2017년도부터 시작한 동아리 지원 사업이다.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서 예산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한정적인 재원과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네트워크화하고 협력을 통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의 명칭을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 라 하고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하에 문화정책과에서 주도하거나 문화정책과 내에 생활문화정책팀을 두어 문화예술정책을 전문가(문화예술인)와 생활예술인(일반주민),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4-2〉 충남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

구분	내용	비고
명칭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	
참여기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자치행정과, 농촌마을지원과	
	충남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시·군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예회관 담당자	
업무	·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 정보교환 및 공유 ·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도내 우수 프로그램, 선진사례 등 ·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추진 및 평가 -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중복 방지 -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협력·지원	
활동근거	·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조례'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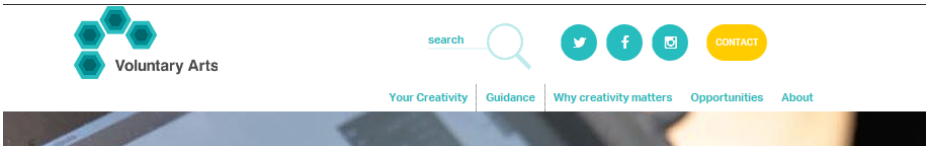
(2) 다양한 정보제공, 성과의 공유와 확산

충청남도에서 생활문화를 정책적 영역으로서 접근한 것은 2017년부터 이지만, 금산 생활문화센터 '어깨동무'(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운영분야 최우수센터), 3농혁신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생활문화를 농촌마을만들기에 접목한 태안군 만대마을(대통령상, 금상), 당진시 백석올미마을(동산, 장관상) 등의 우수사례가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운영의 지속성 확보, 각각의 문화시설에서는 보다 많은 방문객 유치와 사업성과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고자 하지만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어려운 상태이다. 충청남도는 충남도 내외의 우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지원 및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 차원의 생활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내 자료실, 블로그 등이 있지만, 충청남도 내 기관들의 사업계획과 추진현황, 추진성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생활문화 네트워크 홈페이지와 자료실을 구축하고 블로그, SNS, 통합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성과의 공유와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4-4〉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국 VA Site map



Your Creativity	Guidance	Why creativity matters	Opportunities
·Big Conversation ·Get Creative ·Epic Awards ·Up For Arts ·Creative tips and suggestions ·Creative Lives	·Getting started ·Get funded ·Planning events ·Publicity &promotion ·Best practice ·Roles and responsibilities ·Practical help ·View all Briefings		·Arts jobs ·Funding ·Training ·Arts volunteering ·Creative opportunities

자료 : https://www.voluntaryarts.org/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1)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정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도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충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나타낼 뿐 아니라, 공적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기반이 된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일회적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는 현재 23개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조례 유형은 ①생활문화(예술) 진흥, ②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③지역문화진흥 조례와 함께 또는 내에 제정하는 등 3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4-3〉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활력 있고 자신감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지원
제2조	(정의)	지역문화, 생활문화, 그 밖의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등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제4조(도지사의책무)		지원 범위 - 1. 시설 및 공간, 2. 도민, 단체 또는 동호회
제2장		생활문화 진흥
제5조(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과 내용에 관한 사항 1.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생활문화 육성, 3.생활문화인력 양성, 4.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5.예산 및 지원
제6조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에 대한 사항
	(취약지역 우선지원)	문화소외계층, 문화격차 심화지역, 문화환경 개선지역 등에 대한 우선 지원에 대한 사항
	(시설확충 및 지원)	

제3장	가칭 '충청남도 생활문화 정책협력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제7조(설치)	설치 운영의 명문화
제8조(업무)	생활문화 진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 및 평가, 지원 등
제9조(위원장 등)	위원장의 역할과 권한
제10조(예산지원)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 내용, 정산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역할과 임무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칙 및 부칙
제14조(포상)	활성화를 위한 포상
제15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5)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 및 동아리 육성

(1)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과 모델사업의 확산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주민 또는 특정 동호회가 아닌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와 평가, 지원 후 성과 분석을 통한 우수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 차원에서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생각하게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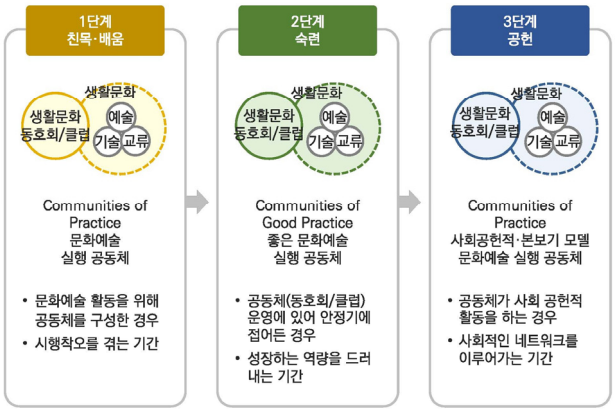
'충청남도형 지역생활문화 특화 지원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통해 사업결과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활력을 부여하고 자신감 형성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지역특화에 기여했는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사업의 선정과 평가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표 4-4〉 충남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과 모델사업(예시)

구분	내용	비고
시범사업 발굴	사 업 명: '충청남도형 지역생활문화 특화지원사업' 사업방식: 공모형 사업대상: 충남도 내 시·군 및 기관, 단체(동아리 포함), 주민(2인 이상)	
모델사업	생활예술형: 충남 전통 유·무형의 유산을 소재로 한 예술창작 프로그램	기존 충남의 지역자산과 연계된 (네트워크형) 사업 발굴
	생활기술형: 평생교육과 연계된 생활기술·교육문화 프로그램	
	생활교류형: 마을만들기(지역사회, 공동체) 등과 연계된 생활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2) 생활문화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과 단계별 발전방안 마련

생활문화 활성화의 중요한 척도로 동아리 활동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생활문화 활동에 자발적 참여, 교류 증가의 결과적 형태가 동아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의 생활문화 동아리는 대부분 배움, 친목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문화·사회·경제적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친목에서, 숙련, 공헌의 단계로 발전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동아리 또는 클럽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단계적인 육성 로드맵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림 4-5〉 충청남도 동호회/클럽 육성 단계

참고문헌

알린 골드바드 저, 임산 옮김, 2015, 새로운 창의적 공동체 : 예술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울아카데미

강윤주, 심보선, 2017, 생활예술 : 삶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바꾸는 삶, 살림

김남일, 2017, 마을, 예술을 이야기하다, 워치북스

강윤주, 2015, 생활문화공동체에 대한 뉴 패러다임 동아리 활동에서 마을만들기 까지, 웹진 아르코

강윤주, 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김경민, 2013, 한국의 도시지역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의 자발적 소규모 공동체 공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대종, 2010. 자발적 시민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김유진, 2017, 생활문화예술공동체 활동과 삶의 만족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민희, 2014, 생활문화예술동호인 활동 만족도 분석 : 전라북도 익산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세길, 2017, 전북 생홀문화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충남 생활문화 진흥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

정광렬, 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2015,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해홍, 2017, 전라북도의 생활문화예술 방향과 지원체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광호, 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주, 2014, 국외 문화여가정책 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주, 2009, 생활권 공공공간에서의 여가활동 활성화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성은, 2017, 대전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승관, 2015, 건강한 생활문화예술의 힘, 시민동아리 활동가, (전북)문화저널

윤소영, 2010, 지역의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 농촌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매개로 형성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제5권 2호 (2010. 11) pp.1-13

경기문화재단, 2015,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 평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재)생활문화진흥원, 2017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신규단체) 공모안내서

자발적예술네트워크(http://www.voluntaryarts.org/policy-and-research/)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www.kccf.or.kr)

부 록

1. 설문조사지 - 주민

2. 설문조사지 - 운영자 및 전문가

부록 1. 설문조사지 - 주민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과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ID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략과제로서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생활문화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기획된 것으로서, 모든 응답 내용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적인 자료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리며,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8월

충남연구원장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박철희 박사, 조소진 연구원 **Tel 041-840-1142**

설문에 앞서 아래의 생활문화 개념과 유형에 대해 읽어보시고 응답바랍니다.

0 생활문화의 개념, 장르와 유형에 대한 이해

설명-0.1. 생활문화의 개념(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요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합니다.

설명-0.2. 생활문화의 장르 및 유형

생활문화의 장르는 크게 ①생활예술, ②생활기술, ③생활교류 등 3영역으로 나누며, ①생활예술은 예술향유·창작에 기반한 활동, ②생활기술은 문화적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자기계발적 활동, ③생활교류는 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 증진 및 사회공동체 형성 활동입니다.

[보기-1]

구분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생활예술	A.창작	①별도 생활을 영위하며 예술인에 준하는 생활예술 활동(창작, 전시/발표 등)을 스스로 행하고 향유
	B.참여	②문학(독서토론 등), ③미술(그림, 서예, 디자인, 만화 등), ④음악(연주, 노래 등), ⑤무용(춤, 댄스 포함), ⑥연극 활동(뮤지컬, 인형극 포함) ⑦영화(영상 포함)제작, ⑧국악·전통예술(사물놀이 등), ⑨사진촬영, ⑩기타 생활예술 참여 활동
	C.교육	⑪문학 교육, ⑫미술 교육, ⑬음악(악기, 노래) 교육, ⑬무용 교육, ⑭연극 교육, ⑮영화(영상 포함) 미디어 교육, ⑯국악·전통예술 교육, ⑰사진, ⑱기타 생활예술 관련 교육
	D.향수(관람)	⑲문학행사 참여, ⑳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등), ㉑음악회 관람, ㉒무용 관람, ㉓연극 관람, ㉔영화(영상 포함) 미디어 관람, ㉕국악·전통예술 관람, ㉖박물관 관람, ㉗기타 생활예술 관련 관람
생활기술	창작	㉘별도 생활을 영위하며 관련 자격을 보유한 이후 전문가에 준하는 생활기술(생산, 판매 등)을 스스로 행하고 향유
	참여	㉙생활공예(금속, 도자기 등), ㉚캘리그라피 / POP, ㉛요리 / 다도, ㉜제과제빵, ㉝네일아트, ㉞요가, ㉟바느질, ㊱뉴미디어/컴퓨터, ㊲원예, ㊳꽃꽂이, ㊴마술, ㊵그 외 기술활동
	교육	㊶생활공예 관련 교육, ㊷언어 관련 교육(영어, 한자 등), ㊸캘리그라피, ㊹요리 관련 교육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㊺제과제빵 교육, ㊻디자인 교육(시각, 그래픽, 의상 등), ㊼커피 관련 교육, ㊽플로리스트 관련 교육, ㊾미용 관련 교육(피부미용사 등), ㊿네일아트 관련 교육, (51)전문가 양성 교육(안내자 등), (52)원예(생태) 관련 교육, (53)마술 관련 교육, (54)컴퓨터 관련 교육, (55)그 외 기술활동 관련 교육
생활교류	창작	(56)별도 생활을 영위하며 사회교류활동의 매개·기획을 위한 리더에 준하는 생활교류(활동기획, 총괄 등)을 스스로 행하고 향유
	참여	(57)마을 행사 참여(프리마켓, 잔치 등), (58)마을만들기 (59)공동체 활동(청소년, 다문화 등)
	교육	(60)역사 및 문화유산 교육
기타	그 외 기타	(61)그 외 기타 생활문화 활동

1 일반사항 (다음 질문에 √ 해 주세요)

문-1.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문-1.2. 귀하의 연령(나이)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문-1.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직장인(월급을 받는 경우) ③ 가정주부 ⑤ 무직·은퇴자
② 자영업 · 서비스업 ④ 학생 ⑥ 기타 (_____)

문-1.4. 귀하께서 살고 계신 거주지는?

_____시 · 군 _____읍 · 면 _____(신도로명 또는 번지)

문-1.5. 거주지에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③ 3년 이상 ④ 5년 이상 ⑤ 10년 이상

문-1.6. 귀하의 월 평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아래 보기-2를 참고하여 번호 또는 금액을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월평균 개인소득 : _____ 월평균 가구소득 : _____

[보기-2]

① 소득 없음	⑤ 4백만원 이하	⑨ 8백만원 이하
② 1백만원 이하	⑥ 5백만원 이하	⑩ 9백만원 이하
③ 2백만원 이하	⑦ 6백만원 이하	⑪ 1천만원 이하
④ 3백만원 이하	⑧ 7백만원 이하	⑫ 기타 (_____)

2 생활문화 활동시설, 인식, 동기 및 참여방식 (다음 질문에 √ 해 주세요)

문-2.1. 귀하께서는 현재 생활문화 활동을 하십니까?

① 예 **☞문-2.2.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5.1. 문항으로 이동**

문-2.2. 귀하께서는 생활문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문화예술 관람
② 문화예술 관람에서 나아가 문화강좌 참여
③ 문화예술 작품 창작, 만들기 등의 참여적 문화활동
④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계발, 교류 등 광의의 문화활동
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활 속에서 하는 문화활동
⑥ 기타 (_____)

문-2.3. 귀하께서 생활문화시설 중(아래 보기-3 참조) 이용하시는 횟수가 많은 순으로 시설명을 적어주십시오. (번호 또는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보기-3]

① 생활문화센터	⑦ 주민자치센터	⑬ 미술관(전시관)
② (지방)문화원	⑧ 평생학습센터(관)	⑭ 문예회관
③ 문화의 집	⑨ 마을회관	⑮ 도서관
④ 영상미디어 센터	⑩ 사회복지관	⑯ 작은도서관
⑤ 작은영화관	⑪ 노인복지회관	⑰ 기타 (_____)
⑥ 공연장	⑫ 박물관(기념관)	

문-2.4. 귀하께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게 된 계기(또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① 개인적 관심
② 가족의 권유·소개
③ 친구의 권유·소개
④ 기관 또는 동호회 권유·소개
⑤ 공공(문화)기관의 광고(플랭카드, 전단, 영상 등)
⑥ 방송(TV, 라디오 등)의 소개
⑦ 인터넷·SNS 등을 통해
⑧ 기타(_____)

문-2.5. 귀하께서 생활문화 활동하는 주된 목적(또는 목표)을 중요도 순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1로, 다음 2, 3, 4 ~ 6 순을 기입)

항목	생활문화 활동 동기와 목적	중요도 순위
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창작(표현)활동 참여	( )
②	여가시간 보내기 및 활용	( )
③	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증진	( )
④	친목형성, 대인 교류 및 공동체성 제고 (예: 마을만들기)	( )
⑤	자기계발, 문화시민으로서 역량 개발	( )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	( )

문-2.6. 귀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강좌(강의 프로그램) 참여
② 동호회 활동
③ 문화예술행사(이벤트) 관람
④ 문화예술행사(이벤트) 작품공연 및 전시
⑤ 기타(_____)

문-2.7. 귀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개인(혼자서)
② 가족(친척 포함)
③ 친구(연인 포함)
④ 동네, 마을 주민
⑤ 직장 동료
⑥ 동호회
⑦ 공동 관심사를 가진 일반인
⑧ 기타 ( )

문-2.8. 생활문화 활동에 어려움 또는 불편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시간이 부족하다
② 비용이 많이 든다
③ 교통(접근)이 불편하다
④ 시설, 장비 등이 불편하다
⑤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
⑥ 생활문화 정보가 부족하다
⑦ 생활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⑧ 기타 (_____)

문-2.9. 생활문화 시설(공간)로의 접근시간, 거리, 이용시간대는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시간은 도보, 교통수단을 이용한 총시간입니다.)

구분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40분 이내	60분 이내	기타
접근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구분	100m 이내	200m 이내	300m 이내	400m 이내	600m 이내	기타
접근거리	①	②	③	④	⑤	⑥

구분	오전 (예: 9시~11시)	오후 (예: 8시~10시)
이용시간대	_____부터 ~ _____ 까지	_____부터 ~ _____ 까지

3 생활문화 시설(공간)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문-3.1. 현재 주로 이용하고 계신 생활문화시설(공간) 및 프로그램에 명칭 및 만족도는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명칭 (주관식)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시설(공간)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프로그램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2. 귀하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아래 보기-4 참조)은 무엇입니까 ? (번호 또는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문-3.3. 귀하께서 **향후** 활동하고 싶은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아래 보기-4 참조)은 무엇입니까 ? (번호 또는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보기-4]

구분		생활문화 장르 및 유형	
생활예술	A.창작	①별도 생활을 영위하며 예술인에 준하는 생활예술 활동(창작, 전시/발표 등)을 스스로 행하고 향유	
	B.참여	②문학(독서토론 등) ③미술(그림, 서예, 디자인, 만화 등) ④음악(연주, 노래 등) ⑤무용(춤, 댄스 포함) ⑥연극 활동(뮤지컬, 인형극 포함)	⑦영화(영상 포함)제작 ⑧국악·전통예술(사물놀이 등) ⑨사진촬영 ⑩기타 생활예술 참여 활동
	C.교육	⑪문학 교육 ⑫미술 교육 ⑬음악(악기, 노래) 교육 ⑬무용 교육 ⑭연극 교육	⑮영화(영상 포함) 미디어 교육 ⑯국악·전통예술 교육 ⑰사진 ⑱기타 생활예술 관련 교육
	D.향수(관람)	⑲문학행사 참여 ⑳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등) ㉑음악회 관람 ㉒무용 관람 ㉓연극 관람	㉔영화(영상 포함) 미디어 관람 ㉕국악·전통예술 관람 ㉖박물관 관람 ㉗기타 생활예술 관련 관람
생활기술	창작	㉘별도 생활을 영위하며 관련 자격을 보유한 이후 전문가에 준하는 생활기술(생산, 판매 등)을 스스로 행하고 향유	
	참여	㉙생활공예(금속, 도자기 등) ㉚캘리그라피 / POP ㉛요리 / 다도 ㉜제과제빵 ㉝네일아트 ㉞요가	㉟바느질 ㊱뉴미디어/컴퓨터 ㊲원예 ㊳꽃꽂이 ㊴마술 ㊵그 외 기술활동
	교육	㊶생활공예 관련 교육 ㊷언어 관련 교육(영어, 한자 등) ㊸캘리그라피 / POP 교육 ㊹요리 / 다도 관련 교육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㊺제과제빵 교육 ㊻디자인 관련 교육(시각, 그래픽, 의상 등) ㊼커피 관련 교육	㊽플로리스트 관련 교육 ㊾미용 관련 교육(피부미용사 등) ㊿네일아트 관련 교육 51전문가 양성 교육(안내자 등) 52원예(생태) 관련 교육 53마술 관련 교육 54컴퓨터 관련 교육 55그 외 기술활동 관련 교육
생활교류	창작	56별도 생활을 영위하며 사회교류활동의 매개 및 기획을 위한 리더에 준하는 생활교류(활동 기획, 총괄 등)을 스스로 행하고	

		향유
	참여	㊼마을 행사 참여(프리마켓, 잔치 등) ㊽마을만들기 ㊾공동체 활동(청소년, 다문화 등)
	교육	㊿역사 및 문화유산 교육
기타	그 외 기타	(61)그 외 기타 생활문화 활동

문-3.4.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항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아래 사항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사항	개선 시급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①	②	③	④	⑤
8)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9)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①	②	③	④	⑤
10)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1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①	②	③	④	⑤
1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13)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⑤

4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문-4.1. 귀하께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정서·심리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효과가 없음
②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③ 삶의 즐거움 증진
④ 일상생활의 활력(활기) 증가
⑤ 삶에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⑥ 자존감 증대
⑦ 이해·포용력 증대
⑧ 기타 (_____)

문-4.2. 귀하께서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사회·경제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효과가 없음
② 문화참여(협력), 창조자, 기획가로서 문화예술 역량 제고
③ 지역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발전에 기여
④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관람, 체험, 교류 증대
⑤ 문화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와의 교류·참여 증가
⑥ 문화 교류·소통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 : 협력(협동) 정신 증대
⑦ 집단간, 계층간 교류를 통해 갈등해소, 공감 증대 : 사회통합에 기여
⑧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⑨ 생활 속에서 창의성 증대
⑩ 생활문화 활동으로 지역홍보, 브랜딩, 매력 창출에 기여
⑪ 기타 (_____)

문-4.3. 귀하께서는 향후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현수준과 비슷)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문-5.1. 귀하께서는 향후 생활문화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대폭 감소 ② 감소 ③ 보통(현수준과 비슷) ④ 증가 ⑤ 대폭 증가

문-5.2.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생활문화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생활문화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현수준과 비슷)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5.3. 충청남도, 시·군 차원에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군은 귀하께서 살고 계신 곳)

구분(정책 주체)	매우 미흡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약간 충분	충분	매우 충분
충청남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4. 충청남도 차원에서 향후 도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 (현수준과 비슷)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문-5.5.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항별 향후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십시오. (아래 사항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사항	정책 중요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	①	②	③	④	⑤
8)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9)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①	②	③	④	⑤
10)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1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①	②	③	④	⑤
1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13)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설문조사지 - 운영자 및 전문가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과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운영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ID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략과제로서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생활문화와 관련된 운영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획된 것으로서, 모든 응답 내용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적인 자료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리며,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8월

충남연구원장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박철희 박사, 조소진 연구원 **Tel 041-840-1142**

설문에 앞서 아래의 생활문화 개념과 유형에 대해 읽어보시고 응답바랍니다.

0 생활문화의 개념, 장르와 유형에 대한 이해

설명-0.1. 생활문화의 개념(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요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합니다.

설명-0.2. 생활문화의 장르 및 유형

생활문화의 장르는 크게 ①생활예술, ②생활기술, ③생활교류 등 3영역으로 나누며, ①생활예술은 예술향유·창작에 기반한 활동, ②생활기술은 문화적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자기계발적 활동, ③생활교류는 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 증진 및 사회공동체 형성 활동입니다.

1 일반사항 (다음 질문에 √ 해 주세요)

문-1.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문-1.2. 귀하의 연령(나이)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문-1.3. 귀하께서 살고 계신 거주지는?

_____시·군 _____동·읍·면 _____(신도로명 또는 번지)

문-1.4. 귀하께서 종사하고 계신 소속기관과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기관명 : _____ , 해당부분 종사기간 : _____년

2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 여건 및 개선사항 (다음 질문에 √ 해 주세요)

문-2.1. 귀하께서는 주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현수준과 비슷)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2.2. 향후 주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활동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대폭 감소 ② 감소 ③ 보통(현수준과 비슷) ④ 증가 ⑤ 대폭 증가

문-2.3.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해서 아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미충족	미충족	약간 미충족	보통	약간 충족	충족	매우 충족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활문화 공급의 전달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활문화 예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활문화 시설(공간)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분	매우 미충족	미충족	약간 미충족	보통	약간 충족	충족	매우 충족
생활문화 시설 운영 장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활문화시설로의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활문화 프로그램 공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활문화 인력(매개, 강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활문화 기관 간의 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활문화 홍보·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4. 귀하께서는 생활문화정책이 기존 문화복지정책(문화예술교육,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② 지역사회(공동체)와 연계된 활동
③ 생활 속에서 참여적 문화활동
④ 예술을 넘는 광의의 문화활동
⑤ 기타(_____)

문-2.5. 생활문화 시설(공간)로의 접근시간, 거리, 이용시간대는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시간은 도보, 교통수단을 이용한 총시간입니다.)

구분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40분 이내	60분 이내	기타
접근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구분	100m 이내	200m 이내	300m 이내	400m 이내	600m 이내	기타
접근거리	①	②	③	④	⑤	⑥

구분	오전 (예: 9시~11시)	오후 (예: 8시~10시)
이용시간대	_____부터 ~ _____ 까지	_____부터 ~ _____ 까지

문-2.6.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항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아래 사항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사항	개선 시급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①	②	③	④	⑤
2)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①	②	③	④	⑤

사항	개선 시급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	①	②	③	④	⑤
9)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10)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①	②	③	④	⑤
11)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1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①	②	③	④	⑤
1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14)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⑤

4 생활문화 활동의 효과

문-4.1. 귀하께서는 생활문화 활동이 주민들에게 주는 정서·심리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효과가 없음
②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③ 삶의 즐거움 증진
④ 일상생활의 활력(활기) 증가
⑤ 삶에 자신감 형성 또는 향상
⑥ 자존감 증대
⑦ 이해·포용력 증대
⑧ 기타 (_____)

문-4.2. 귀하께서 생활문화 활동이 주민들에게 주는 문화·사회·경제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효과가 없음
② 문화참여(협력), 창조자, 기획가로서 문화예술 역량 제고
③ 지역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발전에 기여
④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화 관람, 체험, 교류 증대
⑤ 문화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와의 교류·참여 증가
⑥ 문화 교류·소통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 : 협력(협동) 정신 증대
⑦ 집단간, 계층간 교류를 통해 갈등해소, 공감 증대 : 사회통합에 기여
⑧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
⑨ 생활 속에서 창의성 증대
⑩ 생활문화 활동으로 지역홍보, 브랜딩, 매력 창출에 기여
⑪ 기타 (_____)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도

문-5.1.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생활문화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생활문화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현수준과 비슷)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문-5.2. 충청남도, 시·군 차원에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군은 귀하께서 소속된 곳)

구분(정책 주체)	매우 미흡	미흡	약간 미흡	보통	약간 충분	충분	매우 충분
충청남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4. 충청남도 차원에서 향후 도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치 않음 ② 필요치 않음 ③ 보통(현수준)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문-5.5.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항별 향후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십시오. (아래 사항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사항	개선 시급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①	②	③	④	⑤
2) 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장비 개선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소외(저소득층, 약자) 계층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생활문화 활동 동호회 육성 및 단체 간의 교류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	①	②	③	④	⑤
9) 우수 프로그램 강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10) 시설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	①	②	③	④	⑤
11)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1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법령 정비	①	②	③	④	⑤
1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14)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 철 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 · 조 소 진 충남연구원 연구원
신 선 하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17-17 ·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글쓴이 · 박철희, 조소진, 신선하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7년 12월 31일 / 발행 · 2017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42(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59
ISBN · 978-89-6124-413-8 03350

http://www.cni.re.kr

ⓒ 2017.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